

# 성경 공과

제3권

성취반 (Advance Class 2)



요단 강을 건너다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3권

Advance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3권 제5반, adult class만을 가지고 성취반, Advanced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날을 오래 전부터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의 구름에 이미 오셨기에 아무리 자연계의 하늘을 쳐다본들 헛수고 일 뿐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상응으로 씌어진 말씀(the Word)의 글자에 담긴 속뜻을 밝히 알 수 있게 해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속뜻(inner sense)의 파악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해집니다.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서 해석과 그에 따른 참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서에 담겨 천천히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하시고 싶은 성서 독자가에게 도움을 주고저 위 선견자의 저서를 기초로 본권은 편집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선택한 성서는 공동번역인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뿐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거한 해석은 직역된 글자여야 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취득하기 바랍니다.

##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 제 5-6일	창세기 1장 20-31절	9
2. 뱀	창세기 3장	15
3. 무지개	창세기 9장 1-17절	22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27
5.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32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42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창세기 41장	48
8. 열 가지 재앙	출애굽기 7-10장	55
9.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66
10. 성막	출애굽기 26, 27장	73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81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3, 4장	89
13.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 9장	97
14. 판관 입다	판관기 11장	103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사무엘상 4장 1-11절 5장, 6장 1-16절	110
16.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1-46절	118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사무엘하 6장	126
18. 성전 건축	열왕기상 6장	133
19. 엘리야의 겹옷	열왕기하 2장	140
20. 요시아 왕	열왕기하 22장	147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91편	153
22. 성전에서 솟는 샘	에제키엘 47장 1-12절	159
23. 느부갓네살왕의 꿈	다니엘 2장	164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아모스 8장	172
25. 강림에 대한 예언	말라기 3장	179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185
27.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20절	194
28. 나인 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30절	200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누가복음 9장 1-36절	206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42절	214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누가복음 11장	221
32.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229
33.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236
34. 부정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243
35. 종려주일(3)	누가복음 19장	251
36. 부활절(3)	누가복음 24장 1-12절	258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3-53절	267
38. 네 기수들	요한 계시록 6장	274
39. 일곱 쟁 봉인	요한 계시록 8; 9장	280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1장 9-27절	286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6:39

# 1

## 창조 제 5-6일

### 머리말

본과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이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창조 제1-4일 동안과 제 7일째에 있는 내용도 언급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0-31절

1장: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낫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며 창조자이시다.
- \* 우리 마음속의 두 평면인 자연적인 평면과 영적인 평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 \*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 \*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바램들을 잘 조절해야 한다.

### 상응 연구 (science of Correspondences)

- \* 날 = 어떤 일이 이뤄지는 시기
- \* 물고기 = 기억속의 지식에 관한 애착

### 해설

「천국의 신비」 제 4항에는 “내적 의미에서의 창세기 제 1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새 창조 또는 인간의 거듭남을 뜻하며, 특별하게는 태고 교회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 말씀 속에 위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의미나 표현을 하지 않는 단어 또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첫 절에서 말해지는 하늘은 거듭나기 이전 사람의 내적 측면을 의미하고, 땅은 외적 측면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의 첫 장은 물질적 창조의 진정한 수순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과학적이지 않는 의미로 24시간으로 구성된 「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날」이라는 단어는 관용적인 의미 혹은 특히 고대시대를 말할 때 어떤 기간, 즉 “그 시대에” 또는 “동굴에서 거주하던 시대”와 같은 문구에서 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날」을 24시간으로 이뤄진 하루로 간주하는 점이다.

본문 1장은 유아기로부터 성인기까지 있게 되는 개개인의 발달 단계를 그려준다. 또한 본문은

무지한 원시적 교회 상태에서 진정한 교회 상태가 되기까지 인간 종족이 발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진정한 교회란 지상에서의 첫 교회, 즉 태고 교회를 말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인류의 진화를 지켜보시다가 인간들의 내적 상태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그들을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그릇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인류라고 한다.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부터 진정한 형태로의 인간의 변화를 거듭남 또는 재탄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점진적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어떤 교회는 “개종”이라 부르는 한 번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인해 “구원”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새교회에서는 그러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이유가 종교를 바꾸거나 무종교인의 상태에서 종교를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개종은 필수적이나 그것이 창조 첫날에 있게 되는 “빛이 생겨라!”와 같이 마음에 빛이 옴으로서 영적 여행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 제 6-13항에서 창조의 육일을 거듭나는 과정에 적용시켜 그 의미를 함축해 설명하면서 “거듭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여섯째 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째 날 상태에, 그 다음 소수 사람들이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상태 혹은 다섯째 날 상태에 머무른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섯째 날 상태에 이르며, 일곱째 날 상태에까지 이르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제 1권 1장에서는 창조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 2권 1장에서는 1일부터 4일까지의 이야기를 다뤘다. 스웨덴봄은 “넷째 날의 상태는 사랑에 감동되고 믿음에 의해 밝혀질 때이다. 이 상태 이전의 사람은 경건하게 대화하며 선을 열매 맺기도 했으나 이 모든 것은 시험을 거친 결과로 행해졌다. 그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궁핍 때문이었을 뿐 믿음과 선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과 선행이 그 사람의 내적 인간 속에서 점화되고 있고, 이 둘을 두개의 발광체 곧 해와 달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한다. 본 반에서는 여기에서 더 진행되어 5일부터 6일째의 상태에 있게 되는 영적 성장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 제 11항에서 “다섯째 날의 상태는 인간이 믿음으로부터의 것으로 말하고, 자신을 선과 진리로 굳게 만들 때이다. 이 사람에 의해 생산된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데,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라고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믿음 곧 해와 달이 개인의 삶에서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자신이 생각한 진리 또는 자신이 행한 선들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바, 이 단계에서 그 사람이 움켜진 진리와 선함의 수준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푸른 움, 즉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진리와 선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때 바다와 공중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생물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질서대로 창조되어 졌다. 바다란 기억 속에 모아져 있을 때의 지식을 말한다. 고기란 “인간의 외면에 속하는” 기억 속의 지식들이다. 그렇다면 바다와 고기의 상이점은 무엇일까? 모든 지식은 우선 외면의 경로로부터 우리 속에 도달된다. 우리의 지성은 삶을 통하여 수집된 갖가지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자 끌어내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다. 설령 지식들이 세상적 혹은 어떤 지적인 사용을 위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지식들은 “고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21장 3-6절에서 언급되어 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진 쪽은 배의 왼쪽이었다. 왼쪽이란 지적인 측면인데, 이 측면에서는 어떤 고기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오른쪽이란 우리의 의지 또는 애착의 측면인데, 이곳에 던져진 그물에는 그것을 끌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 우리는 영적 진보를 이루기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기억 속에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 지식에는 생명을 주는 주님을 섬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천국의 신비」 제 40항에서는, “‘새’는 넓은 의미에서의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내면에 속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는 바람을 가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식을 끌어낸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끌어낸 지식을 살피본 후 그것을 단순히 세상적이고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식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린다. 다섯째 날에야 비로소 인간은 믿음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하여 자신을 선과 진리로 굳혀지게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 곧 여섯째 날은 「천국의 신비」 제 12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여섯째 상태란 인간이 사랑에서 생겨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 말하며 선한 행동을 할 때다. 이리하여 이뤄지는 것이 ‘살아있는 영혼’ 또는 ‘동물’이라고 불린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결합된 상태에서 행동하기 시작 할 때 그 사람은 영적 인간, 즉 ‘하느님의 모습대로’인 인간이 된다.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믿음에 속한 지식들과 그 사람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선행으로서 하게 되는 일들로 지탱되고, 이와 더불어 천국의 기쁨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 물론 그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은 여전히 육체와 감각들에 속한 것에 의해 지탱되고 그것들로부터 기쁨을 가진다. 이 두 생명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우위를 점령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그 싸움이 사랑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천적 인간이 된다.” 그리고 45항에서는 “짐승에는 해를

주는 악한 짐승과 해를 주지 않는 선한 짐승의 두 부류가 있다. 인간 속의 악들은 악한 짐승 곧 곰과 늑대 그리고 개들로 의미된다. 선하고 온화한 것들은 이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짐승들인 사슴과 양 그리고 어린양으로 의미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짐승이란 선하고 온화한 것들로서 애착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의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순수하고 선한 애착들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들에서 ‘자연적 선’과 ‘영적 선’ 간의 구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선과 악 모두에 대한 경향성을 상속받는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의 우리는 악에 대한 경향성이 우세한 가운데 삶을 영위해 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선한 경향성조차도 사실은 자아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경향성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거듭남을 향한 디딤들로 이 경향성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것들은 초기에 순수한 선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이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연적 선한 의도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북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여섯째 날이라는 상태에서도 “사랑이 우위를 점령할 때까지 싸움은 지속되게 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해야 한다. 즉 이 세상에 사는 한 악을 극복하는 일과 주님으로부터 새 지식을 얻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 질문 정리 (Suggested Questions on the Lesson)

- 1)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 2) 왜 이 책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이 책의 첫 11장까지와 나머지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5)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6) 창세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무엇인가?
- 8) 몇 일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 9) 날이란 말은 우리의 24시간을 뜻하는가?
- 10)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1) 해와 달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4)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5)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 16)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17) 태초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가?
- 18)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 20) 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21) “정복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성경 2)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3) 순수한 상징
- 4) 구약과 신약성서 5) 모세 오경 6) 시작 7) 한 처음에
- 8) 6 9) 아니요 10) 해와 달 그리고 별 11) 하느님에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12) 고기와 새
- 13) 동물 14) 인간 15) 하느님의 모습
- 16)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17) 아니요 18) 하느님이 쉬셨다
- 19)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 20) 지성과 생각 그리고 애착 21) 조절하라

## 2

## 뱀

### 머리말

1권과 2권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을 상기하면서 본과를 시작한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심정 상태가 에덴의 동산이며 인간이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산의 두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본다.

### 성서본문: 창세기 제 3장

3장: 1.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3.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8.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따 먹지 말라고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13.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14.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17.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찌기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18.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19.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21.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22.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하시고 23.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 교리 요약

- \* 우리의 중심 원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자아를 신뢰함이라는 두 가지로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
- \* 현상(외관 혹은 가상)에 관한 교리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신 서술과 연결된다.

### 상용 연구

나무 = 일반 원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함을 중심으로 하는 원리  
 뱀 = 감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들 = 진정한 선함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

## 해설

뱀이란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상징이다. 감각적이라는 말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가진 오감인 시각, 촉각, 청각, 미각 그리고 후각의 육체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봄은 우리가 흔히 오감을 단지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치부하나 사실 오감은 우리의 진정한 몸인 영체에도 존재하여 정신적인 면에서도 오감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것들이 아닌 자연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접촉하여서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봄은 이를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부르며, 이는 뱀에 의해 상징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우리의 영체의 일부분에도 속하는 이러한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서 더 높은 영역들의 밑에서 받쳐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주님께서 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뱀은 두 가지의 상응, 즉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모두를 지닌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0:16). 이는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 오게 되는 모든 지식을 이용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식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결코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또 한 가지 뱀과 연결되는 성경의 사건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욕망과 불순종으로 뱀들에 의해 재앙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에 모세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 본 이는 낮게 된다고 말했다. 구리 뱀은 감각적인 것들을 선한 용도로 바꾸는 것을 상징한다. 이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구리 뱀 자체가 예배의 대상물이 되었을 때 히즈키야 왕은 그것을 파괴해 버렸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구리 뱀을 우상화하여 주님을 예배함으로부터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선함이 외부적인

선한 일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서 주님에 관해 더 배우거나 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인간 속성을 구리 뱀이 높이 들려야 함과 견주어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뱀은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미묘한(subtle)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우리의 감각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느낌들을 가져다 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호소한다. 이것들이 가져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쁜 것들이다. 자연의 아름다움, 좋은 음악, 향긋한 냄새, 어루만져 느껴지는 은은한 감촉 등이 그 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의존하려고 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감각이 확인해 주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쉽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지식이나 힘을 찾는 대신 자신에게서 그것들을 찾으려드는 쪽으로 쉽게 기울게 된다.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며, 그 첫 유혹은 여인이라는 우리의 애착을 유혹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애착을 통하여 뱀은 남자로 상징되는 우리 속의 지적인 마음까지 유혹한다. 즉, 감각에서 오는 쾌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호소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쾌락이 올 때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그 쾌락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추켜들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쾌락을 금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를 거절하거나 어떤 악이 우리의 쾌락에 대한 탐닉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에서의 뱀은 먼저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의심이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밝혀 주신 것에 의거하여 추론하거나 판단하려함을 못하게 하는 유혹이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천국의 신비」 제 196항에서 “고대 시대 때에는 밝혀주신 것보다 감각적인 것들에 더 신뢰를 둔 ‘뱀’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서는 더욱 나빠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들이 보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식들로 자신들이 믿지 않는 회의심을 스스로 확증하려고 하여 소경보다 더 심한 맹목적인 자기신뢰를 자신 안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감각적인 것을 삶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주님에 관한 지식이나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들만이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통찰력을 잃게 된다. 고대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아 자연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대신 자연으로부터 받아 하느님을 추론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감각으로 확증할 수 없는 것을 믿기를 거절했던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대인들은 천적인 사람이 가졌던 진리에 대한 즉각적인 지각 능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 곧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지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제 7절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는 구절이 뜻하는 바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상응이 소개되고 있다. 즉, 무화과나무로 이는 “자연적인 선함”을 상징한다.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선함이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수준인 친절함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심각한 과오를 행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선한 행위”를 상기시켜 그 과오를 덮어씌워서 자위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선함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알몸을 덮으려고 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상징된다. 겉옷이란 진리에 상응되고, 벌거벗음이란 진리의 결핍을 말한다. 이 시점에서 상기되는 성경의 사건은 히즈키야 왕의 병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으로 치료된 것과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이다. 이 사건들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삶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그렇다하더라도 자연적인 친절함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수용하는데 부족했음에 대한 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친절함이나 선한 일은 독선이나 위선이 될 뿐 순수한 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14-18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는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떨어진 벌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상(외관, 겉보기, 가상)”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한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그분은 결코 벌하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에서 성내시고 시기하시며 복수하시고 저주하시며 벌하시는 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려면 완전이란 글자가 뜻하는 바대로 성냄이나 복수 또는 저주와 같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주님께서 저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있어서 인간을 수단으로 쓰셔야 했던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언어와 사고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종종 성경 속에서 외관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진리는 자기를 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에 대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자녀가 그릇된 길을 고집할 때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과 노력은 그 자녀가 느끼기에는 부모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고 여기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벌은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가 행한 악 속에서 이미 존재한다.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인간을 인도해버릴 때 그 감각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뱀이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한다고 저주받은 것 역시 주님께서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선택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에서 멀어져 버린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은 지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것과는 멀어져 버린 지상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밝혀주신 진리 대신 우리의 감각들이 보고 느낀 것에 신뢰를 두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졌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자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 의지 속의 애착이 주님을 중심으로 삼았던 태초 사람의 상태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의지를 통해서 직접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애착이 세상과 자아를 중심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는 악과 벌이라는 쓰라린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나 선도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말씀 속에서 아이들의 출생은 좋은 측면에서 언제나 선과 진리의 출생을 상징한다. 그리고 남자에게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라고 말해졌다. 자아로 뿔뿔 뭉친 사람의 마음은 그를 속 태우는 거짓 사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은 그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어려움을 발견하는 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낫알을 얻어먹으리라”하고 말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는 동산 밖으로 추방되고, 불칼과 더불어 있는 거룩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동산 입구에 설치되었다. 거룩들이란 말씀 전체를 통해 보호하시는 신성한 섭리를 상징한다. 본문에서의 거룩들이란 인간이 인간의 속성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을 모독함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섭리를 뜻한다. 성경에 있는 칼이란 거짓 혹은 진리를 무기로써 사용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아는 진리에 따라 살기를 끝까지 거절할 때 진리라고 한 그 신앙은 그의 고집스런 불순종의 상태로 더 진전되지 않도록 결국 그로부터 거취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성경 첫 장 첫 절을 기억하는가?
- 2) 우리 속의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 3) 영적 의미에서 창세기 제 1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 4)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 5)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6) 지상에서 발달된 첫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7) 첫 교회의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8) 제 1장이 끝난 뒤 첫 남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9) 어떤 특별한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가?
- 10)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생명나무는 이야기 처음에 동산 어디에 있었는가?
- 12) 첫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 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뱀은 무엇인가?
- 15)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6) 이브와 아담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17) 그 뒤 그들은 왜 부끄러워했는가?
- 18) 그들은 그들의 알몸을 어떻게 가렸는가?
- 19) 불순종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20) 동산은 어떻게 보호 되었는가?
- 21) 주님의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한 처음에... 2)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3) 거듭나는 단계

- 4)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 5) “땅”을 지배하라 6) 태고 교회  
 7) 에덴 8) 아담과 이브 9)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10)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원리 11) 중앙  
 1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13)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14)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15) 절대로 죽지 않는다.  
 16) 열매를 먹었다 7)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18) 무화과나무 잎  
 19) 동산에서 추방됨 20) 거룩들 21) 제 15절 참조

### 3

## 무 지 개

#### 머리말

뱀의 유혹에 관한 내용은 태고 교회의 타락에 관한 내용과 직결된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타락의 결말인 파멸로부터 남겨져야 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성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9장 1-17절

9장: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낚아, 온 땅에 가득히 붙어나거라. 2.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5.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양갓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양갓음을 하리라. 6.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7. 너희는 많이 불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9.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10.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11.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12.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13.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 나는 너 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17.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 교리 요점

- \*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 \* 재구성과 거듭남의 교리
- \* 역사의 기초로서 이어지는 주님의 처방에 관한 생각들
- \* 고대 말씀

### 상응 연구

40 = 시험

홍수 = 삶을 파괴하는 거짓들

무지개 = 우리 속에 담긴 말씀에서 받은 진리들이 우리를 계발시키기 위해  
주님에 의해 사용됨

### 해설

역사에 관련된 새교회의 가르침은 이전에 어둡고 불확실했던 영역을 밝혀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탐조등과도 같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과거 시대의 유물로부터 또는 인간이 만든 기록을 집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근원은 단편적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한 역사는 인간의 성취에 대한 과정 곧 인간이 주위 환경을 점차 정복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인간이 인간을 정복하고 부리는 것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더욱이 종교적인 면에서 서양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고 발달시킨 개념의 역사로서 정치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을 가졌을 뿐 하느님의 자리는 어느 부분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계시가 모든 역사를 규율하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스웨덴붉은 모든 시대 속에 있는 교회는 그 사회를 몸체라고 할 때 그 몸체 속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했고 이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생각과 생명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스웨덴붉이 밝히는 고대인의 특성은 고고학적인 연구로 이뤄진 고대에 대한 학설들과는 매우 다르나 신화에 나오는 금시대와 은시대의 이야기들과는 상당히 가깝게 여겨진다. 본문은 홍수의 시대로서 태고교회에서 고대교회로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천국의 신비」 605항에서는 지금 취급되는 주제가 노아로 불리는 새교회의 형성으로 묘사되고, 그 교회의 형성이 갖가지 종류의 살아있는 것이 받아들여진 방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새교회가 부상되기 전 그 교회의 사람들은 많은 시험으로부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바, 이는 방주가 홍수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요 홍수가 오래 지체함 역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결국 그가 진정한 영적 인간이 되어 자유로워짐이 물이 빠지기 시작함과 이에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제거됨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고대 교회의 거듭나는 사람의 상태가 기술되어 있고, 이는 새 언약 곧 무지개의 “표시”로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이 영원한 계약임을 주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록 고대 교회가 타락하고 멸망하여서 그들의 지식이 소멸되었다할지라도 거듭나는 수단으로서 인간속의 특성이 되는 무지개의 언약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상위의 인류는 태고교회인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설사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주님께 극도로 신실하여 천적인 등차로의 진보가 있었다고 추측 될지라도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홍수 이후 태고교회의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 교회의 지옥의 문도 닫혀져 있었다. 이후 이어지는 교회들은 그들의 천적인 천국을 갖기는 했지만 무지개의

징표로 기술된 과정을 뛰어넘는 도달은 불가능했다. 우리들 각자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나 진리를 배워야 하며 천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1043항에서 구름이란 우리 지성이 우리속의 자연적인 의지 속에 있는 악의 결과로 있어지는 희미함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온 진리를 자신의 지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주님께에서 오는 빛이 그 진리를 비추어 빛나는 바, 태양 광선이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빗방울을 굴절반사 할 때의 모습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성 속의 진리가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그 배경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지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그 속에 폭 빠져 주님이 없는 듯 여길지 모르나 주님은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시험 속에 있는 우리와 현존하심을 의미해 준다. 또한 무지개는 우리가 진리에 신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결국 우리로부터 시험을 제거해 주시며 정결한 심정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갖는 우리의 의지가 악하여서 태고 교회 인들이 가졌던 지각으로 직접 진리를 볼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지성 안에 받아들인 말씀의 글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진리들이 투영될 뿐이다. 이리하여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에게 새 의지를 주시게 된다. 이런 단계가 바로 홍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무지개는 인간의 “천적인” 상태와 구별되는 “영적인” 상태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상응적인 표시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42항에서 “영적인 천사들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된 천사들은 저 세상 삶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마치 머리 주위에 무지개를 가진 듯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무지개의 특성은 각기 다른데, 이는 각 천사가 진리를 자기 마음에 허용했던 방법에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지개의 모든 색깔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태양의 흰 광선에서 비롯된다. 우리 지성의 특수한 어떤 항목은 마음속에서 반사되어 색깔을 결정하거나 마음속의 완고한 거짓들로 인해 아예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독단적인 주장 속에서 주님께 의해 거듭난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 났을 때 계시를 즉시 받지는 않지만 말씀이나 말씀에서 온 설교 등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심어진 것만을 받게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속의 거짓이라는 구름이 가능한 한 없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주님의 진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깔로 빛나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적 선행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지개가 아예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늘 소망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진리에 대한 깨우침도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질문 정리

- 1) 지상의 첫 교회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 4) 선한 나머지의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5) 홍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 6)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7)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8) 그 약속의 표시는 무엇이었는가?
- 9)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10)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11) 물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2)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3)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태고 교회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14)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 15) 왜 무지개가 노아와 만든 새 언약의 표시가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에덴 2) 태고교회 3) 인간의 불순종 4) 홍수
- 5) 거의 일년(참조 창세기 7:11,8:13) 6) 체단을 쌓다 7) 더 이상 홍수는 없다
- 8) 무지개 9)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10) 폭풍이 끝난 직후

- 11) 진리 12) 지성 안의 지식들 13) 지각 14) 양심  
15) 새로운 상태를 그려주려고 - 빛이 기억 속에 든 진리를 비춘다

## 4

#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 머리말

태고교회와 고대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선하여서 남겨진 노아와 아브람의 부르심을 재조명해본다. 그리고 본문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6장

16장: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뜻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3.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5. 그러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7. 아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었다.  
 8. 그 천사가 “사래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9. 아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10.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11. 아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 울부짖음을 아훼께서 들어 주셨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뵈다니!”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14.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팔십 육 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 교리 요점

- \*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
- \* 우상의 기원
- \* 겸손과 순종 - 영적 발전의 기초

### 상응 연구

가나안 땅 =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상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평면  
 아시리아 = 생각하고 추론하는 평면  
 이집트 = 삶의 가장 바깥 평면, 기억적인 지식  
 광야 = 혼돈되고 정착되지 않은 심정상태

### 해설

노아는 홍수 이후 지상에 건설된 고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게 된 두 번째 교회이며, 유대 교회는 세 번째 교회에 해당된다. 스웨덴본은 노아의 세 아들이 고대교회의 각기 다른 예배와 교리의 근원들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셈은 진정한 내적 예배를, 함은 부패된 내적 예배를 그리고 야벳은 내적인 것과 상응되는 외적인 예배를 상징한다(「천국의 신비」 1146). 그리고 창세기 제 10장에 있는 계보의 내적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예배들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고대교회의 진정한 모형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게 파생되었는가를 설명한다. 제 10장을 통해 셈의 후손이 주님과 인류를 연결하는 중심부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보에서 두 번째 고대 교회가 발달되었고, 이를 성서에서는 에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천국의 신비」 1343항에서는 이 교회에 관하여 “에벨이 하나의 국가 곧 에벨을 조상으로 하는 히브리 국가로 불렸다는 것과 그로 인해 넓은 측면에서 두 번째 고대 교회의 예배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그들 역사가 말하는 것들로 명확해진다.”라고 설명한다. 이 국가로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예배를 가진 자들은 모두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그들의 예배는 한참 후에 있게 되는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졌다.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회복된 예배의 주된 특성은 자신들의 하느님을 유일신 ‘여호와’라고 부르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태고교회는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여호와라고 불렀음을 창세기 첫 혹은 그 밖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수 후의 교회인 고대 교회 역시 주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히 내적인 예배를 가졌던 자들이 10장 21절에서 ‘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외적인 예배 속에 있던 다른 이들 역시 처음에는 여호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적인 예배가 점차 외적인 예배로 되어가고 외향적으로 더욱 치닫게 되면서 외적인 예배는 차차 우상숭배가 되어갔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하느님을 숭배했는데, 히브리 국가만이 여호와란 이름을 보유해 왔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히브리 국가를 구별되게 해 주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 역시 외적인 예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정착해 버린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느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잊어버렸고 모세 역시 그러했다. 이리하여 이 자손들에 대한 주님의 최우선적인 훈육은 여호와가 히브리인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사야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이심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천국의 신비」 제 1360항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가 되어 버린 세 번째 고대 교회였고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은 우상화된 예배가 끝나고 (AC1375) 아브람을 통한 표징뿐인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1403항에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시점(12장 1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에벨이 언급되는 부분까지의 역사는 사실이 아닌 신화적인 것으로서, 이것들은 내적인 의미에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실재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천적인 교회인 태고교회는 모든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것, 인간의 신체에 속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상응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즉,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것들과 상응하는 주님의 왕국에 대한 어떤 것들 곧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보거나 납득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상응하는 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되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단지 내적인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도구로서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된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수집한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홍수 후의 고대 교회에 있게 되는 고대 말씀이다.

고대 교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언어로 쓰인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교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 내적인 의미를 배웠고, 그것들로부터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상응의 지식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의미들을 알지 못하게 되자 지상의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거룩한 듯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적인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들을 의미도 모른 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대 교회 다음에 오는 유대 교회에서는 그 내적인 의미를 배제한 상징적인 표현들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스웨덴북은 이것을 표현적인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아브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뒤에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스웨덴북은 아브람부터 있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들 또는 표현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내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상징의 의미가 중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과 성향에 상관없이 왕이라는 직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의 왕권적인 기능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성직자들은 그분의 성직자적인 기능을 표현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는 열조들의 이야기는 열조들의 역사성 안에 담긴 속뜻으로

보면 표현적인 교회의 발달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속뜻은 우리 각자의 영적 발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유아시기부터 아동기 초기까지의 영적 발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순진하고 신뢰함으로 가득차서 순종적이던 시기로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 보려고 시도하는 때로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스웨덴본은 본문의 속뜻을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외부에 속하는 기억적인 지식에 대한 애착 안으로 내적 인간이 유입되어 잉태되는 것, 즉 첫 합리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내적인 인간이 아브람으로, 이집트 출신의 하녀 하갈은 외부에 해당되는 기억적 지식에 대한 애착을 그리고 이 둘에서 파생되는 합리성이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요약한다. 하갈이란 이름의 뜻은 “낮선 자” 또는 “체류자”인데, 하갈의 이름이 가진 뜻만 보아도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는 초기의 사고들로부터 오는 결론들이 임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초기의 사고들은 전적으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지식에만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설익은 이성엔 보이는 것만을 토대로 추론한다. 따라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연장자들의 충고와 그에 대해서 분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 슬기로운 자들이 갖는 사고(思考)의 토대는 아주 깊은 진리들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 시절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은 하갈이 자신의 안주인을 업신여기고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여 하갈이 주인 곁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에 담겨 있다.

하갈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천사를 만났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지식을 사랑하는데 있으면 주님의 섭리 하에 말씀에 관한 외부적인 지식이 언제나 공급되어진다는 것이다. 말씀속의 외부적인 지식은 좋은 면에서 우리를 견책하고 충고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된다. 그래서 하갈은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안주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비록 하갈의 아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되지 못했다. 우리의 첫 자연적인 추론 역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항목이어서 우리 삶의 어느 부분 특별히 세상적인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측면을 많이 담당하여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자연적인 추론이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추론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다.

## 질문 정리

1) 세 번째 교회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가나안 땅의 어느 방향에서 정착했는가?
- 3)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아브람이 원한 것 중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5) 사래는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가?
- 6)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 7) 그 여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8) 왜 하갈은 안주인을 피해 도망갔는가?
- 9) 그녀는 어디로 갔으며, 주님의 천사는 어디서 그녀를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렀는가?
- 11) 천사는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2)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남쪽 3) 사래 4) 아들
- 5)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 6) 이집트 7) 안주인을 업신여겼다
- 8) 박대 받았기 때문 9) 광야, 샘터 10) 되돌아가 순종하라
- 11)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 이스마엘

## 5

### 이삭과 리브가

#### 머리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둔

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사악이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도 알아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4장

24장: 1.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2.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심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3.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4.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고 하여라.” 5.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 가도 됩니까?” 6.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7.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 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8. 신부감이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가지만은 말라.” 9.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10.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 갔다. 11.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12.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심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13.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심복 이사악의 아내감으로 정해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15.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16.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17.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 가서 그를 반기며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청했다.

18.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 주었다. 19.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20. 그리고 병에 남은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길으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22.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 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 주고 다시 십 세겔 가는 금팔찌 두 개를 팔목에 끼워 주고는, 23.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 댁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24. 리브가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하고 대답하고 나서 25.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만한 방도 있습니다.” 26.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27.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고나” 하며 찬양하였다. 28. 아가씨는 뛰어 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 나왔다. 30.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32.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 왔다. 33.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34.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35.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36. 안주인 사라는 늘그막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7.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38.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 오너라.’

39.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었더니  
40.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 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42.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42.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44.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45.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으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46.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47. 저는 리브가에게 뉘 덤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고리를 걸어 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덤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 내게 하셨습니다. 49.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길을 찾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51.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53.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54.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 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하고 듣지 않았다.  
 58.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 봅시다.” 58.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하겠습니다.”  
 59. 그러자 그들은 누이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역조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 때 이사악은 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 곳은 네겟땅이었다. 63. 저녁때가 되어 이사악은 들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사악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사악에게 보고 하였다. 67. 이사악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 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사악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 교리 요점

- \*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과 보다 낮은 합리적인 능력
- \* 결혼에 관한 교리
- \* 생명이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함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 상응 연구

아들 = 진리들  
 딸들 = 선들  
 남편 = 선

아내 = 진리에 대한 애착  
하인 = 외적인 일에 대한 유용한 이해성  
낙타 = 넓은 의미에서의 외적 지식들  
샘 = 말씀의 글자

## 해설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의 발달이 시작됨을 표현한다. 이 능력이란 진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관에 기초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데 곧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에 두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으며 이스마엘은 열네 살이었다. 이스마엘은 아기인 이삭을 조롱한 이유로 어머니 하갈과 더불어 광야로 쫓겨났고, 거기서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른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알려주신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성경을 읽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적힌 글자대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한 것이 맞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주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겉으로 들어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려는 쪽으로 향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제 23장에서는 사라가 백이십칠 세에 죽는 것과 그녀의 매장을 위해 아브라함이 헷 사람인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동굴을 사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역시 깊은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막벨라 동굴이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사건이 이삭의 결혼 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삭의 결혼 전에 사라의 죽음과 매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곧 유아기 시절은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천적 평면과 연결되어 있는 때이다. 다시 말해서, 천적인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때이다. 이러한 단계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단계는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단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단계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과 두뇌가 지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합리적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으로 표현되는 단계이다. 이삭의 단계는 아브라함의 단계와는 다른 새로운 흥미와 애착들을 가진 새로운 상태여서 한번 발달된 뒤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 같은 애착이나 생각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것은 유아는 사랑만으로도 인도될 수 있으나 그 보다 큰 아이들은 논리성이 있어야 인도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6세 이상의 아이들을 교육 시킬 때 “왜”라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나이에 따라 각자 그들의 상태에 맞는 진리를 사랑하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삭이 어른이 되자 오래된 애착을 상징하는 어머니인 사라는 죽고 새로운 애착을 상징하는 아내로 하여금 그의 어머니가 삶 속에 차지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본문에서 이삭이 아내를 찾아 나서서 발견하는 모든 방법을 상응으로 읽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인도 하에 있어질 우리 삶 속의 진정한 합리성이 건설되는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속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심정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상징하고, 그의 모든 집안일을 돌보던 늙은 심복은 자연적인 마음을 상징한다. 만약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 충성스런 하인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분의 뜻에 맞게 규율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가나안의 타락한 원주민들 사이에서 찾지 말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 창세기 6장 첫 절에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인해 거인족이 등장했고, 결국은 모두를 파괴해 버리는 종말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이기적이고 자연적인 애착과 하나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지지하거나 변명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결국 멸망 곧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은 이와 비슷한 악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즉, 우리의 새로운 합리적인 마음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구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자질이 이기적인 삶과 생각 속에 남아 있으려는 우리의 이기심을 지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기 혈연 곧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부터 아내를 구해야 하는 바, 그 아내란 주님에 관하여 배우려는 애착과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애착)을 상징한다.

이에 대한 실례로 성경을 공부하는 옳은 방법과 그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들만을 찾으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되 단지 자신이 선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려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던지 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느끼거나 자신 속의 악을 지적해 주는 명령이나 계명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말씀에 대한 우리속의 합리적인 이해성이 “가나안족의 딸”들이 이기적인 애착과 “결혼”하는 것이 되고 만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되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내속의 어떤 것 곧 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와 발견된 결점을 고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연 중에서 이사야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추구하는 우리속의 마음은 자연적인 마음이다. 그 마음은 일상 업무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는 부분으로 수집된 지식을 질서 있게 간직하는 바, 그것이 진정한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된다. 또한 그 마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워 둔 주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모든 것 -본문에서의 열 마리의 낙타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란으로 표현된 교리에 관한 첫 이해성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준다. 거기서 이 하란은 샘터에 있는 리브가를 발견하고 그녀를 이삭의 신붓감으로 즉시 인식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물을 길어 주었기 때문이다. 샘은 말씀의 글자를 그리고 샘물은 말씀속의 진리를 뜻한다. 신성한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애착)만이 말씀 안에 쌓여 있는 주님에 관한 지식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적인 애착)은 주님에 관한 지식이 죽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한 가지 교훈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즉, 리브가가 며느리 감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녀가 이삭에게 데려와져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삭이 하란으로 장가들어 갔다는 구절은 성경의 어디에도 없다. 하란은 거룩한 땅에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한 지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란 지역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보려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능력이 발달된 뒤에 주님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상태로 되돌아감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상태 곧 맹목적인 믿음(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을 뜻하므로 믿음 속의 진리를 이해하려는 기대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은 모든 것에 우리의 두뇌를 사용하되, 종교에 관한 문제에 가장 먼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다. 우리가 보유했던 것을 잃어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의 무지한 상태 곧 무지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속성인 겸손과 온유 그리고 신뢰로서 주님 앞에 “순진”이라는 속성을 다시 가져야 한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의 순진” 대신 “지혜의 순진”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데려와져야 했던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리브가)이 우리 삶의 합리적인 평면(이삭)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둘이 하나 됨이 주님의 질서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벗어나 성장했을 때 때로 방황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들을 더 이상 그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독자적인 자신의 추론력으로도 성서 속의 진리들을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속의 참 진리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듯 여겨져 우울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성서에 대한 합리적인 기초를 알게 됨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론력이 발달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믿음을 잃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합리적인 능력에 맞는 성경이나 주님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교회인들은 이러한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새교회만이 가능한 일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과거 어린 시절의 상태에 간직했던 믿음과 신뢰 그리고 결코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분향을 그리워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태를 찾기 위해 여러 교회에 참석하며 그들의 합리성이 용납할 수 있는 교리를 찾아 헤매게 된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새교회인들에게 주님이 내리시는 도전장인바,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외치며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 질문 정리

- 1)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디 출신인가?
- 3) 왜 그는 거룩한 땅에 가게 되었는가?
- 4) 그는 어디서 정착했는가?
- 5)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인가?
- 6) 하갈은 누구인가?
- 7) 아브라함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8) 이사악은 누구의 아들인가?
- 9)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는가?
- 10) 왜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 11)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 12) 보낸 곳은 어디인가?
- 13) 누가 그곳에 정착했었는가?
- 14) 아브라함의 심복은 어디서 멈췄는가?
- 15)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 16) 누가 그 징조를 성취해 주었는가?
- 17) 리브가는 누구의 손녀인가?
- 18) 왜 그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심복과 떠나도록 했는가?
- 19) 이사악은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가?
- 20) 이사악은 그녀에게 만족했는가?
- 21) 이스마엘과 이사악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22) 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우르 3) 하느님이 부르셔서 4) 헤브론 5) 사라 6) 사라의 하녀
- 7) 이스마엘 8) 사라와 아브라함 9) 이사악을 놀렸다 10) 우상 숭배자여서
- 11) 심복 12) 하란 13) 아브라함의 형제 14) 샘터에서 15) 물을 길어 올려주는 여인
- 16) 리브가 17) 나홀 18) 그녀를 보내는 것이 하느님이 뜻이라고 믿어서
- 19) 들에서 20) 만족했다 21) 첫 번째와 두 번째 합리성 22) 말씀

## 6

###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 머리말

야곱의 어린 시절과 하란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야곱의 꿈을 간략히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2.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엮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3.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 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 자리에 덮어 두는 것이었다. 4.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5.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말고요.” 6.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7.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 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 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9.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11.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12.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13.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14.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16.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18.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칠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19.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20.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칠 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21.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2.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24. 이 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25.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 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럴 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26.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하며 부탁하였다. 27. “초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주어야 하네.” 28.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칠 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31.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32.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33.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5장: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갈, 즈블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 교리 요점

- \* 삶의 세 평면은 의지와 사고, 행동평면 혹은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평면이다.
- \* 이러한 평면들은 자연적인 평면에서 천적인 평면으로 발달되어 간다.
- \* 자연적인 평면은 겉과 속을 지니고 있다.
- \* 행동속의 동기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선할 수 없다.

### 상응 연구

- 아브라함 = 천적 또는 의지평면에서의 선택
- 이삭 = 영적 또는 사고평면에서의 선택
- 야곱 = 자연적 또는 행동평면에서의 선택
- 레아 = 외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 라헬 = 내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열 두 아들 = 우리 삶에서 발달될 수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 해설

야곱에 대한 반응이 뚜렷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바깥 삶을 선한 측면에서 성취하고 그렇게 성취된 외적인 선이 보다 순수한 선으로 발달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즉, 선을 행하는 우리의 동기가 변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는 이웃에게 인정받는 눈에 보이는 선을 행함에서 주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려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야곱은 우리가 부모의 간섭을 떠나 독립되는 삶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 야곱으로 표현되는 시기는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유아시절의 상태인 단순함과 신뢰성을 지나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자화자찬 혹은 자만심의 상태를 거쳐서 이삭이라는 진정한 합리성이 우리의 집 곧 우리 인격의 가장의 지위를 이어받은 후 있어진다. 이삭의 시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나 추론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올바른 능력이 적당히 발달되어 그것이 우리의 바깥 삶에도 직접 응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새 진리는 이삭의 결혼의 경우와 같이 세상적 혹은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야곱의 아내도 이삭의 경우와 같이 하란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삭의 아내와 같이 야곱의 아내들도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할 근원 곧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사모함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독립해서 집을 떠나는 자녀들의 마음에 간직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모들은 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 확실한 보수가 보장되는 것에 비중을 두기보다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바람에서 먼저 추구되어야 함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이삭은 하란으로 가지 않았으나 야곱은 스스로 하란에 가서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얻어야 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른 시절에 발달되는 보다 높은 합리성은 거룩한 땅 곧 영적인 수준을 떠나도록 허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 의해 이삭에게 데려와졌다. 그러나 야곱은 거룩한 땅에서 밀려나

듯이 떠난 후 하란에서 아내들을 맞았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종교를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결심할 때 내부와 외부 모든 측면의 진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브가와 라헬에게서도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리브가는 집에서 쓸 물을 길어가기 위해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갔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구하되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획득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라헬은 우물가로 가되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간 목자였다. 나홀의 가족은 데라와 아브람과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으나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다. 하란에 멈춘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단순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선함이나 순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양떼란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서 진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본문 29장을 “이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야곱은 주님의 자연적 속성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어떻게 진리의 선이 ‘라반’이라는 선 곧 신성한 근원에서 온 선과 결합되는지를 표현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라헬’이라는 내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요약한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신비」 3793항에서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자연적 속성을 그리고 라헬은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진리가 선과 결합해야 하므로 애착을 수단으로 일이 진행된다. 진리에 대한 애착이란 라헬로 표현된 선과 짝짓고 싶어 하는 애착이다. 자연적 속성 안에서도 합리성 안에서와 같이 내면과 외면 두 가지가 있다. 라헬은 내면의 진리에 대한 애착이고, 레아는 외면의 진리에 대한 애착이다.”라고 말한다.

야곱의 결혼과 그의 아들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외적 선한 삶의 질서적 발달을 다루고, 그 발달이 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내적인 것도 가져야만 함을 말해준다. 야곱은 라헬을 먼저 보고 그녀에게 반했다. 내적인 진리는 우리의 이상향으로 그것을 꼭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참을성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실망이나 지체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또한 인지상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6335항에서는 열 두 아들의 상응에 대해서 “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이라고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 6448항에서 “그들을 통해서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가능한 교회의 모든 상태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충한다. 열 두 아들의 개인적인 상응은 말씀속의 모든 상응처럼 각자의 상응성이 말씀이 언급되는 주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이 다양성에 관한 것은 「천국의 신비」 제 3862항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제 6335항에서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 간략한 상응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믿음

시므온- 의지안의 믿음

레위- 선행

유다- 천적 교회 혹은 신성한 천적 측면에서의 주님

즈불룬- 선과 진리가 동거함

이싸갈- 일로부터의 보상

단- 진리로부터 삶의 선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선으로부터 삶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가드- 진리로부터의 일은 하나 선으로부터의 일은 여전히 못하는 사람

아셀- 애착으로부터의 축복

납달리- 시험과 시험후의 상태

요셉- 영적인 교회 혹은 신성한 영적 측면에서의 주님

베냐민- 영적 교회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요셉은 하란에서 출생한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은 야곱이 거룩한 땅에 귀환한 후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생했다. 베냐민의 출생과 동시에 라헬은 죽었고, 그녀는 그곳 근처에 묻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열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동굴에 안장된 여자가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레아였다는 점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질적인 진정한 배우자를 레아로 관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질문 정리

- 1) 야곱은 어떻게 에사오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 5)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야곱은 어느 딸을 사랑했는가?

- 7)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딸은 누구인가?
- 8)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 9) 그의 아들은 몇 명인가?
- 10)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11) 그가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인가?
- 12) 베냐민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 13)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하란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레아와 라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2) 에서의 위협 3) 하란
- 4) 라반 5) 레아와 라헬 6) 라헬 7) 레아 8) 20년 9) 열 둘
- 10) 요셉과 베냐민 11) 요셉 12) 베들레헴 근처 13) 의지와 생각과 행동
- 14) 말씀
- 15) 진리에 대한 외면의 애착과 내면의 애착
- 16) 선과 진리의 모든 국면(aspect)들

## 7

###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 머리말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친숙한 말씀이다. 줄거리의 앞뒤를 질문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본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41장

41장: 1. 그로부터 세월이 이 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2.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고 있었다. 3.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4. 이내 그 살이 찌고 잘 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5.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6. 그런데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7. 더우기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8.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9. 그 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합니다. 10.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우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11.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14.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13.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풀다면서?”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17.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18.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는 것이었다. 19. 이어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20.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는 것이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 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 22.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즐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돌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23. 그러나 곧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24.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5.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26.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27.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암소나 셋바람에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8.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30.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31.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32.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3. 그러나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오분의 일씩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십시오. 35.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에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37.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39.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40. 그러나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41.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42.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 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3.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렀거라”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44.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45. 파라오는 요셉에게 시브냐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냐트를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47.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48. 이렇게 에집트 땅에서 칠 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에 갈무리해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49.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50.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냐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51.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하면서 요셉은 만아들의 이름을 므나쎄라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53. 이집트 땅에서 칠 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댔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 갔다. 57.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물려들었다.

### 교리 요점

- \* 기억 안에 들어 있는 지식의 본성
- \* 영적 사항이 기억 속에 든 지식의 통치자이다.

## 상응 연구

요셉 =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기근 = 지식의 결핍이 깊어지는 때

## 해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면서도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교훈들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속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준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 경향성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며, 마침내 그것들을 아예 마음 한 구석에 감금해 버린다. 그런 후 세상에서 성인으로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각종 쾌락들과 활동들에 흠뻑 젖어서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어린 시절에 비추던 영적 교훈이나 교회 혹은 자신의 종교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요셉이 아직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의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단지 우리의 마음 표면 밑바닥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인식하고 그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요셉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올라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커다란 영적 시련을 이겨내도록 준비해준다.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어느 한 시기에만 응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진보를 해나가려면,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거듭하여 말씀 속의 이야기들이 표현하는 곳을 주기적으로 거쳐 가야만 한다. 영적 성공의 모습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땅으로 귀환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귀환과 더불어 자아만족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우리가 자신이 행한 선함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잊거나 자신은 더 이상 영적 궁핍에 놓이지 않을 것이므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때이다.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었거나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기만족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문을 닫는 때면, 우리속의 요셉은 언제든지 이집트로 팔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는 계속되는 기근을 예방하거나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견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심을 가르쳐준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집트란 우리 기억속의 지식을 그려준다. 이 기억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 온 모든 것들, 즉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과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의 구절들이 연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까지 모두 수집되어 있다. 우리가 영적 결핍으로 인해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때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평면이다. 이 기억속의 지식 중 우두머리는 이집트의 왕(파라오)이다. 파라오는 자연적인 지식들을 다스리는 원리를 상징한다. 이 원리가 사실상 기억속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바, 주님은 이를 제일 먼저 계발해 주신다. 그래서 파라오는 다가올 고난을 예시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술을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파라오 앞에 서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백성들의 구원을 설비하시는 것이며, 요셉으로 하여금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과 그의 경험들이 거듭나는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스웨덴봄의 「천국의 신비」 제 4286항이다. 이 항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은 자연적 속성 안에 담긴 천적 근본을 지닌 영적 인간을 의미하는 바, 이스라엘은 자연적 속성을 상징한다. 천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영적 인간 자체는 합리성인 바, 요셉의 다른 점이 아래 글에서 구분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아래 글은 이스라엘이 자연적 속성 안에 존재하는 천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영적 인간이고 요셉이 천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영적 인간 자체 곧 합리성이라고 말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사랑과 선행에 속한 모든 선은 천적이라고 불리고, 믿음과 총명에서 파생되는 모든 진리는 영적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서술이 베냐민의 출생을 다루는 「천국의 신비」 제 4585항이다. 즉, “내적인 인간 또는 외적인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이해성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위의 두 인간이 하나로 작용하나 어찌됐든 위의 두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연적 속성이 외적 인간의 구성 요소이고 합리성이 내적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것 그리고 영적 혹은 천적이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천국의 신비」 제 534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선과 접합된 진리들이 자연적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음과 그렇게 저장된 진리들이 차후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사용되도록 저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칠 년 동안의 흉년’이란 진리들이 아주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곡식을 도시마다 저장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진리들이 선과 접합되어 인간 속에 저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칠 년간의 기근’ 또는 ‘기근동안에는 그전에 모아들인 것으로 지탱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선과 접합된 진리를 통해서 거듭남을 의미한다. 선에 접합된 많은 진리들에 적절한 용어는 아껴두신 것들일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 고통당하는 정도만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아껴두신 것들을 사용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아껴두신 선에 접합된 진리들이 공급되는 정도만큼 그것들을 끌어내셔서 우리의 자연적 속성 안으로 되돌려 보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 속한 것과 속에 속한 것이 상응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상응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본문에서 ‘칠 년 흉년’이 의미하는 상태로 인한 결과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 안에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과 같다. 오늘날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즐기도록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산이다. 그 이유는 영적인 삶을 이루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받아들여지거나 들어오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적인 삶을 이룰 수 없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리속의 진리가 생활 속의 선과 결합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만 인간은 영적 생명을 지니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시종장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 3) 왜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는가?
- 4) 파라오의 두 꿈은 무엇인가?

- 5)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6) 요셉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충고했는가?
- 7) 파라오는 그 충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 8) 파라오는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가?
- 9) 파라오는 요셉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도록 했는가?
- 10)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11) 요셉은 어떻게 기근을 준비했는가?
- 12)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5)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2) 꿈을 해석해 주었다
- 3)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 4)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  
잘 여문 이삭 일곱-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
- 5)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 6)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양식을 저장하라
- 7) 요셉 8) 전 국토의 통치자 9) 아세넛 10) 므나쎄와 에브라임
- 11) 전 국토에 양식을 저장했다 12)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
- 13) 기억속에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 14) 새 진리를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바쁘다는 식
- 15) 영적인 원리의 지배하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놓아 둬

# 열 가지 재앙

## 머리말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본문 전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두면 공부하는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어려운 광야 생활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7-10장

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6.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 아론은 팔십 삼 세였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려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 들였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12.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15.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18.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 야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그릇이나 돌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20.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 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21.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23.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 갔다. 24.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25.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칠 일이 지났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7.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28.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 지어 올라 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 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 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술과 떡 반죽 그릇에도 뛰어 들리라. 29.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 오르리라.’”

8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 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3.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5.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

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6.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9.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 갔다. 10.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11.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 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애를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인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애 천지가 되리라. 18.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애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19.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20.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술한 등애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애 등쌀에 썩밭이 되었다. 21.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할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4.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라”하고 허락을 내렸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애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 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번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6.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27.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등애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3. 야훼의 손에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5.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6.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솥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9.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끓아 터지게 되리라.” 10. 그들은 가마솥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모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끓아 터지게 되었다. 11.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마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12.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4.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16.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18.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역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 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였으나 21.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여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졌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24.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25.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옳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28. 그러나 야훼께 기도해 다오. 하느님께서 발하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건디어 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 드리리라. 30.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판났으나, 32.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펄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33.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34.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35.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10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2.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5.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갇아 먹으리라. 6.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도 데려 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10.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 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팔려 보낼 성싶으나?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 버리리라.” 13.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샷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샷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 전역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귀와 나무 열매를 먹어 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17. 한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18.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19.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바다에 쓸어 넣었다. 20.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싸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들어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팔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25.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6.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27.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얼썌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목적에 대한 초점을 잃을 때 사건이 발생된다.
- \*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높은 본성을 점진적으로 파괴시킨다.
- \* 악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 상응 연구

파라오 = 좋은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세상 삶의 원리  
 나쁜 측면에서 볼 때 세상욕의 원리  
 이스라엘의 후손 = 우리의 영적 가능성들

### 해설

상응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씩 열거되는 본문에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접하게 한다. 예를 들어, 주님은 모세에게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삼일간의 광야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한 것은 주님이 파라오의 심정을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마치 주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다섯째 재앙에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말해졌는데, 이후에 있는 우박의 재앙에서 주님을 두려워한 이집트인들이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수행한 기적중의 일부를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을 통해 상응에 대해서 밝히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고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물질주의적 삶의 철학에서 부수되는 특별한 악들과 그 악들의 파괴적인 결과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줌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는 먼저 신성한 진리가 글자를 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말씀의 이야기들이 형상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나오는 속임수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주님은 어떤 과업에 말씀을 주신에 있어서 받는 사람이 가진 그릇을 통해서 형상화 시키셨다는 것이다. 모세 속에 있던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살짝 비틀도록 유도했는데, 이런 모습이 후에는 완전히 다른 형상 곧 그의 자만심을 부추겨 올려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 결국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질책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위해 글자적인 이야기에서 위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라오의 완고한 저항이 하느님께서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허용하셨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어긋나면 벌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자주 바꿀 것임도 주님에 의해 예견되었다고 기술되고 있으나, 이 역시 파라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다.

앞서 우리는 이집트의 통치자로 요셉을 내세운 파라오가 거듭나는 마음의 자연적인 수준을 지배하는 원리를 표현함을 배웠다. 스웨덴북은 이 원리를 “새로운 자연적 속성”이라고 부른다. 최근 성경 원문 연구에 의하면 위의 파라오는 “목자 왕들”이라는 계보에 속한 파라오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파라오들은 다른 계보에 속한 왕들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자연적인 수준을 표현한다. 이 수준의 마음은 이스라엘 후손들로 표현되는 우리 속의 영적인 특질들이 자유로워지려는 어떤 노력에도 완강하게 고집 부린다. 위와 같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는 진리가

밝혀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을 말한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이후 열 개의 재앙이 이집트를 차츰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재앙들은 주님의 신성한 능력이 어떤 의미도 없이 무작정 그 힘을 과시함으로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속박을 풀어줘야 하는 것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파라오란 우리 속에서 자연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을 발밑에 두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저항과 같다. 어떤 이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진정한 질서가 거꾸로 되어 버려서 그의 의지와 이해성 속으로 흐르는 주님께에서 나온 힘은 파괴로 변하고 만다. 그리고 그 파괴란 그 사람 속에 든 선과 진리에 대한 파괴인 것이다. 이 파괴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 정도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파괴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모두 파괴된다. 스웨덴북은 우리에게 해독을 주는 모든 것은 우리 속에 든 악을 통해 생겨난다고 말한다.

이집트의 재앙들은 실재했던 것들로서, 주님으로부터의 벌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비는 물질을 통해 자아를 만족시키며 자신의 생각과 애착을 자연계에 집중시키는 영혼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처음의 두 재앙들은 재연해 보일 수 있었으나 그들이 더 이상은 재연하지 못했고 그들의 재주가 부족함을 깨닫자마자 모세가 신성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출애굽기 8:18-19). 스웨덴북은 동방국가들에 있었던 마술과 그에 관한 지식은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진 전통 속에 있었던 상응에 관한 지식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과 파라오가 어떤 계획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것처럼 재앙들이 진행된 것을 이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우리가 과식으로 인해서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의 해로움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감당해 내야 할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과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새교회는 어느 누구도 별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거듭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우리에게 오는 벌이란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인과일 뿐이다. 그래서 본문의 재앙들은 물질주의를 고집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정의 황폐함이 심화되어 가는 모습인 것이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다.

이집트의 열 재앙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북의 저서 「천국의 신비」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천국의 신비」를 읽으면서 하나의 재앙과 그에 따르는 재앙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첫 재앙은 진리의 왜곡 곧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추기는 쪽으로 성경의 진리를 비꼬거나 사용할 때 있게 되는 모습이다. 이후의 단계는 이렇게 거짓화된 진리에서 어떤 즐거움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는 개구리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각 재앙의 간단한 의미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열 재앙의 간단한 의미

1. 물이 피로 변함 - 진리가 거짓화됨
2. 개구리가 기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다 - 마음이 거짓 논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참
3.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다 - 감각적인 바램이 지상적인 쾌락을 기대함으로 인해 흥분됨
4. 이집트의 온 땅이 등애로 썩대밭이 되다 - 온갖 거짓 생각으로 마음이 짝 차다
5.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다 - 모든 자연적인 선이 점차 파괴되다
6. 피부병이 전국에 번지다 - 속에 든 악이 생활 부분에서도 드러나다
7. 우박과 번개가 모든 작물을 파괴하다
  - 악으로부터 온 거짓들이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저장된 교회의 진리를 파괴함
8. 메뚜기가 남은 작물을 다 먹어 치우다
  - 밖으로 나타난 거짓들이 남아있는 모든 작물을 파괴함
9. 어둠이 온 땅을 삼 일간 뒤덮다 - 마음이 순수한 진리를 전혀 볼 수 없게 됨
10. 온 땅의 모든 첫배 새끼가 죽다 - 선행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저주

###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 2) 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두려워했는가?
- 3)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4)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들어 세우셨는가?
- 5)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6) 어떤 이적을 행해서 모세가 권능을 가졌음을 입증해 보게 했는가?
- 7)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
- 8) 모세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났는가?
- 11)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3)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14) 마술사들은 어떤 재앙을 흉내 내었는가?
- 15) 이집트는 우리 삶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이집트에 억류된 이스라엘 후손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열 재앙은 넓은 측면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이집트에 머물렀다 2)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3)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 4) 모세 5) 이집트에 재앙을 6) 지팡이가 뱀으로 7) 아론
- 8) 백성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9) 재앙으로 위협 10) 10 11) 물이 피로
- 12) 개구리 13) 첫배 새끼가 죽었다 14) 1-2번째 재앙 15) 세상적인 지식수준
- 16) 세상욕에 노예가 된 우리의 높은 본성
- 17) 세상적인 인격을 고집함으로 퇴보되는 연속적인 단계들

## 9

### 메추라기와 만나

## 머리말

본장에서 상기해 둘 사항은 과월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월절이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의 주님의 생애와도 깊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문 전의 이야기들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긴 여행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었던 과정도 기억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6장

16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썩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3.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4.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5. 여섯째 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차려 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이는 것의 곱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나?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 주어라.” 13.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

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힌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16.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19.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 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22.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이틀 분을 거두어 들었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23.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굵고 싶은 대로 굵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24.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26. 옛세 동안은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지마는 이레째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27.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들이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2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29.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30.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34.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 교리 요점

- \* 재구성이란 무엇인가?
- \* 거둬나지 못한 삶을 재구성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곤란은 무엇인가?
- \*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상응 연구

메추라기 = 선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만족  
만나 = 영적인 선 또는 진리의 선 - 선함에서 오는 순수한 행복

### 해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여행은 우리의 재구성의 시기를 그린다. 이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일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주님께 대한 순종은 여전히 자아로 가득 차 있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한 몫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집트인들의 속박을 깨야함과 즉시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도록 했다. 이 결심과 그들의 해방을 상기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 당시 기념한 과월절은 그 후에도 해마다 기념하도록 명령되었다. 이와 유사한 기념식은 주님이 지상에서 그분의 마지막 과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하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뤄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와 표적”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

기를 간구한다. 이집트를 떠나기로 한 그들의 결심이란 거듭나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이 빠르던 늦던 간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정이란 세상적인 욕심과 제멋대로의 삶을 등 뒤로 하고 영적인 삶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단계지만, 이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의 거듭남이 서술된 스웨덴북의 창조 이야기를 회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요즈음의 모든 사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상태는 첫 날(상태)이다. 그 나머지 중 일부는 둘째 날에, 또 일부는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 날(상태)에 해당된다. 그리고 극히 드문 수가 여섯째 날에 해당되며, 일곱째 날의 상태에 들어가는 이는 거의 드물다.” 거듭남은 인생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우리에게도 가능한 천사의 속성을 향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성장의 과정동안 앞으로의 전진만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올바른 질서로 가져다 두려는 우리의 노력이 시종일관 붙어 다니는 시험과 실패 그리고 고난과 반역적인 성향을 묘사한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한 후에도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에 따라 후퇴와 패배 또한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변화하는 심정상태에 주님의 섭리가 작용되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지지하시는가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가 전진하는 길을 따라 승리와 쉬는 때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경이로운 방법들에 관한 묘사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본문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변화 없는 현존하심과 섭리하심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이집트에 남겨둔 외적 즐거움을 갈망하고 과거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이집트에서의 노예 신세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열망하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양식을 보내셨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 제 8426-2항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상응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저녁때가 이전 상태의 끝을 명시하는 이유는 저 세상에서의 상태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의 하루 일정 곧 아침, 정오, 황혼 또는 저녁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계에서도 항구적인 상태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런 변화를 그곳의 모든 이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영인들은 질서에 따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 영계나 이 세상에서는 매일의 하루하루와 매해가 되돌아오지만 그날과 그 해는 결코 이전의 날과

해와 같지 않고 다양해진다. 모든 상태의 시작은 지상에서 있는 아침에 상응되므로 말씀에서도 아침이란 단어는 어떤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태의 끝은 저녁에 상응되므로 말씀에서 저녁은 상태의 끝을 의미하여 기술된다. 따라서 각 상태가 아침이라는 것은 그들이 사랑 속에 있음을 뜻하고, 정오라고 함은 그들이 빛 가운데 혹은 진리 가운데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녁일 때 진리의 측면은 흐릿하나 자연적인 사랑의 기쁨 안에 있게 된다. 이 기쁨은 저녁때에 받게 된 메추라기로 의미되고, 선은 매일 아침 받게 된 만나로 의미된다.”

본문에서 메추라기는 “자연적인 기쁨을 통과하면서 선해짐”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와 선함 속에서 이타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할 때 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감 곧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주위의 칭송을 듣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견지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본문의 메추라기와 민수기 11장 10-23절 그리고 31-34절의 메추라기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메추라기는 보내졌지만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추라기에 너무 게걸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지나치면 독선에 입맛을 다시게 되고, 그러한 기쁨 속에 오래 머무르면 안전해질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는 신성한 섭리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속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는가를 보여준다. 만나를 수집함에 따른 지침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부분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6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일요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 거둬들일 수는 없다. 즉,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고 각 날의 문제점은 전 날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려진 만나는 “처음 형성된 진리의 선”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제 8462항에서 주님의 새로운 선물인 “만나”는 다음과 같다. “ ‘만나’란 단어가 알려지지 않은 것에 깜짝 놀람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언어적인 구조에서 ‘무엇’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임으로부터 확연해진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빵이 만나라고 불린 까닭은 그것이 믿음의 진리를 통하여 낳은 선행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듭나기 전의 인간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78편 25절에서 불리는 천사들의 양식이 곧 실제의 만나임을 알 수 있다.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무엇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했는가?
- 3) 주님께서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그들이 썩 광야에 접어들자 어떤 불평을 늘어 놓았는가?
- 5) 주님께서서는 저녁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는가?
- 6)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7) 그들은 발견한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 8) 만나란 무엇을 뜻하는가?
- 9) 만나를 수집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 10) 만나를 수집하는 명령사항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1)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집했는가?
- 12)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 13) 주기도문에서 만나를 상기하게 해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 14)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족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메추라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만나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과일절 2) 구름(불)기둥 3) 물을 가르심 4) 고기가 없다고 5) 메추라기
- 6) 싸라기 같은 빵 7) 만나 8) 이게 무엇이나? 9) 매일 한 오멜씩
- 10) 더 수집한 만나는 썩었다 11)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수집함 12) 40년
- 1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4) 재구성
- 15) 선을 행함에서 오는 외적 만족
- 16)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에게서 오는 영적 선함

# 10

## 성 막

### 머리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나이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나이 지역에서 일 년에 관한 것과 그곳에서 이뤄진 것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과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응집시켜 주었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6장, 27장

26장: 1. 내가 살 성막은 피륙 열 폭을 들어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실과 자줏빛 양털과 붉은 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늬를 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2. 그 길이는 이십 팔 척, 너비는

사 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4. 나란히 이은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자긋빚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5. 한 쪽 끝에 붙은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6. 그리고 금으로 같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7.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열 한 폭이 되게 만들어라. 8. 그 열 한 폭은 길이가 삼십 척, 나비가 사 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남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여섯째 폭은 접어 올려라. 10.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그리고 놋쇠로 같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여분으로 남는 천막 반쪽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일 척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14. 또 주홍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1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16. 널빤지 길이는 십 척, 나비는 일척 반으로 하고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 성막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우고 19. 그 널빤지 스무 장을 세울 밀받침 마흔 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꽃을 밀받침 두 개를 만들어 놓아라. 20.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워라. 21. 그리고 은으로 밀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아. 22.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여섯 장을 만들어 세우고 23. 널빤지 두 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뒷면 두 귀통이에 겹세워라. 24.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두 장을 세워 두 귀통이를 벌려라. 25.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여덟 장에 밀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6. 아카시아나무로 널빤지들을 켈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 성막 다른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도 다섯 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빤지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켈 널빤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31. 자긋빚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름 모양의 무늬를 놓아 가며 휘장을 짜라 32.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33.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35. 휘장 앞에 젓상을 놓고 젓상 맞은편 성막 남쪽 가에 등잔대를 놓고 젓상을 북쪽 가에 놓아라.

36.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라.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밀받침 다섯 개는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1. 아카시아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오 척, 나비 오 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삼 척으로 하여라. 2. 제단 네 귀퉁이에는 빨 네 개가 돌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혀라. 3. 그을음받이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떨어진 모든 기구를 놋쇠로 만들어라. 4. 제단에 두를 놋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6.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혀라. 7.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9. 성막을 둘러 쌀 울은 남쪽 오른쪽에 길이 백 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백 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오십 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오십 척이다. 14. 그 정문 한 쪽 가에 밀받침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5. 다른 쪽 가에도 세 밀받침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6. 울의 정문에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천으로 이십 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8. 울의 길이는 백 척, 나비는 오십 척, 높이는 오 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쇠로 만든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9.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짙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1.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의 휘장 밖에 켜 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 교리 요약

- \* 질서적인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 모든 개개인은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이다.

### 상용 연구

성막 = 주님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여 살아감  
지성소 = 가장 깊은 심정  
성소 = 생각들  
성막울 = 바깥쪽 삶 곧 일상생활  
금 = 주님을 사랑함  
은 = 진리  
구리(놋쇠) = 자연적인 선함  
나무 = 물질적인 선

### 해설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시나이 산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러한 성경의 계명들은 선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잠시 재고해 보자. 만나가 내려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르다는 불평과 더불어 르비딤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은 모세가 그의 팔을 주님을 향해 계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있었고, 그의 충고로 모세는 백성들의 사소한 언쟁을 해결할 재판관들을 세웠다. 그들은 삼 개월의 여행 끝에 시나이에 도착하여 산 밑 평지에 진을 쳤으며, 모든 백성들은 계명이 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계명들은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계명들은 지상에 있게 된 교회의 시작부터 인류의 삶의 근본이 된 것으로서 인식되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계명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 것들로, 스웨덴 불에 따르면 고대 교회로부터 전수해 내려온 것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들이 시나이에서 다시 주어지되 많은 이적과 경이로움을 더하여 인상 깊은 방법으로 전해진 이유는 그 법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느님의 법임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본문에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법들이 영원한 거처를 가져야 함이 명시되고 있다. 계명 외에 다른 사항들도 시나이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예배에 대한 각종 규정들과 성직자들의 예복에 관한 것들, 성막과 그 안의 가구와 제기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집전되어야 할 예배에 관한 것 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에서 열한달 동안 체류했다. 그들은 그 시기동안 이전에 세상만을 섬기던 그들의 삶에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사항에 그분의 법이 닿는 진정한 질서로 조직화된 삶으로 재조직되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의 중심이며 상징이 되었다. 전 진영이 야영할 때면 언제든지 캠프들의 한 중앙에 성막이 설치되었고, 행군할 때에는 행군대열의 한 중앙으로 성막이 운반되어졌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모든 지파들은 각기 할당된 임무와 지정된 위치가 있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성막이 건립된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막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삶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뇨?”라고 주장한바 있다. 성막과 그곳에서의 각종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는 우리 삶이 건설해야 할 계획서이다. 우리의 삶에는 안쪽 삶과 바깥 삶이 있다. 바깥 삶을 다른 말로는 행동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생각은 행동 안에 있는데, 이는 행동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또한 그 생각 속에는 생각을 하게끔 자극한 바램 또는 욕구가 존재하여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 겹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것을 테니스를 예로 삼아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는 먼저 테니스를 잘 쳐야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습은 좋은 습관을 만들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에 익숙해지면 정말로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설사 우리에게 좋은 기교에 대한 정밀한 지식이나 많은 연습이 있었다하더라도, 우리를 밀어붙여주는 동기가 건전치 못하면 결국엔 실패로 이어지고 만다. 게다가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재주를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램으로 경기에 임하거나 승리하겠다는 바램이 공정한 경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강할 때 또는 상대가 이길 경우 상대의 우월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경기 자체를 부패하게 만든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은 순수한 동기로부터만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성막을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지성소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을 말한다. 주님의 계명은 그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의 모든 바램 중에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법이 “우리 심정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25장 22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두 거룩들 사이에서, 즉 그분의 보호하시는 섭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다. 이는 양심이라는 우리의 속죄관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러진다. 그래서 지성소의 모든 것은 금, 즉 순수한 사랑으로 이뤄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막 벽의 밀받침이 으르르 된 것은 순수한 사랑의 기반은 배워 순종할 진리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성소는 가끔 대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자신 속에 든 동기를 꿰뚫어 보기가 과히 쉽지 않지만 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의미한다. 비록 성직자들이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는 것을 돌보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은 공공장소는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성소는 지성소와 유사한데, 성소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더라도 그 생각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우리의 지성 안에는 분향단과 등잔 그리고 제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분향단이란 기도와 겸허한 태도를, 등잔이란 모든 우리의 밝음이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인식을 그리고 제상이란

모든 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모든 가구들의 재료가 금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생각들이 위의 의미들을 사랑해야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성막 뜯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바깥 삶(행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사용된 금속은 구리(놋쇠)이다. 즉, 행동 선상에 나타나는 선은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벽을 형성할 휘장을 서로 팽팽하게 연결시킬 고리는 은으로 만들도록 명령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바깥 삶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 줄 특별한 진리들을 말한다. 이 뜯에서 성직자들은 씻음과 제물을 바치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늘 씻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큰 제단이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과 그분의 나라를 더욱 넓히고자하는 바램에서 선을 행해야 함을 표현한다. 제물은 뭔가를 바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간혹 어떤 이들은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뭔가를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일이 있었다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있는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제물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를 “거룩하게 만듦”이다. 즉, 행동선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헌납되어야 하지만 스스로가 잘나서 행해진 것처럼 보이는 선함은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뤄주시는 선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성막의 다양한 면모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묘사해준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심정 안에 들어앉아 우리의 생각을 통해 행동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씻고 또 씻어 참된 진리 안에 하느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만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막을 가장 높은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완전하고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묘사한다. 이 삶이 바로 “산에서 보여준 규격”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슬기롭게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없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2)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외에 어떤 다른 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 3) 성막이란 최근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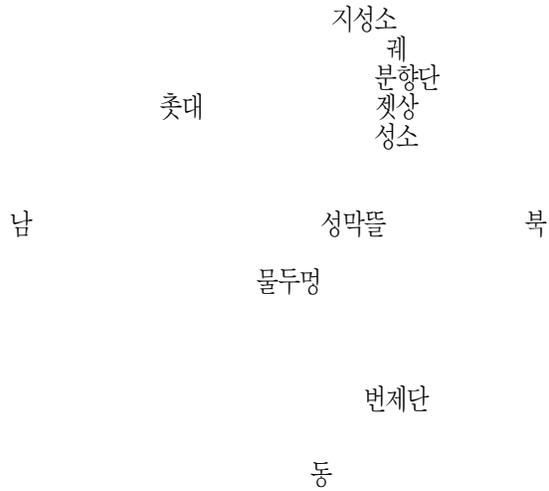
- 4)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 5) 성막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졌는가?
- 6) 성막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가?
- 7) 각 부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8)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9)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10) 성막 뜰의 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11) 성막 뜰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가?
- 12) 성막 건축에 쓰인 세 가지 금속은 무엇인가?
- 13) 각 금속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 14) 휘장은 무엇인가?
- 15)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가?
- 16) 성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막의 세 구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궤가 지성소에 있음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시나이산 2) 각종 규정이나 예배 방법 3) 천막 교회
- 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5) 동물 가죽 6) 3 7) 지성소, 성소, 성막을 8) 궤
- 9) 젖상, 분향단, 등잔 10) 커튼 11) 물두멍, 제단 12) 금, 은, 동
- 13) 금은 나무를 씌우는데, 은은 팽팽하게 하는데, 동은 받침으로
- 14) 내부 커튼 15) 유목민 16) 질서 있는 인간의 삶 또는 인격
- 17) 의지, 생각, 행동 18) 우리의 심정 속에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야 한다

#### 성막의 설계

서  
(큐빗)



# 11

##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 머리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도 망각하고 있었다. 본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 도전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 성 서 본 문: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6장: 1.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요, 할아버지는 크핫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2.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백 오십 명이 따라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5.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라. 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 향을 피워라. 그 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나? 10.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성직자직마저 요구하는가? 11.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13. “우리를 짓과 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 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두시오? 14. 당신은 우리를 짓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오? 우리는 못 가오.” 15. 모세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16.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오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17.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 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19.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20.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1.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22.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26.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27.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28.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딸린 식구들과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1.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 버렸다. 33.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34.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35.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이백 오십 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1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 성직자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쏟아 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3.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4. 성직자 엘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5.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는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6.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7.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 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8.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9.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 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12.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 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며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며 13.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14.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15. 염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 왔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매순간 우리를 떠 받쳐 주고 계신다.
- \*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판단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 \*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라는 격식을 차려서 존재되는 것도 아니다.
- \*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우리의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선행이란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 상응 연구

뿔뿔한 회중의 대표 = 첫째가는 진리나 개념  
 땅 = 자연적인 마음  
 향로 = 예배  
 향 = 기도  
 주님에게서 나온 불 = 이타적인 사랑

## 해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행은 거듭나고 있는 삶 중에서 재구성의 시기를 그린다. 이 시기는 계명의 순종이라는 원리로부터 온 질서 안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가져다 놓는 과정으로 오랜 세월이 요구된다. 이 시기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자아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거듭나는 영적 삶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선택하느냐하는 갈림길 중에서 하나를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함으로써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구성의 시기는 출발 초부터 불만족, 실망 혹은 반역 등에 의해 잠깐씩 멈춰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 재구성의 시작 전에 가졌던 낡고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바램과 추론들이 우리가 한 걸음씩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밑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들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바램과 추론들은 틈만 나면 밖에 얼굴을 드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반역적인 돌출은 중얼거리는 정도의 불평일 뿐이어서 주님의 자비스러운 섭리로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와 같은 반역은 우리 속에 든 자아사랑이나 자기 총명이 오랫동안 우리의 시선을 피해서 모의하여 온 사건의 극치로 쉽게 잠식되지 않는다.

본문의 주제인 반역은 일부 백성들이 코라를 지도자로 인정했을 때 오랫동안 속에서 끓던 증기가 터지듯이 드러난 것이다. 코라는 레위지파인데, 이 지파는 성막의 일을 돌보도록 주님께서 따로 떼어두신 지파이다. 그는 아론의 가문은 아니었고, 주님의 명에 따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었다. 성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성직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에 분개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엷으려고 했다. 코라라는 이름의 뜻은 “머리가 벗겨진”인데, 일반적으로 머리털은 행동선상에 있는 진리를 말한다. 코라 역시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특별히 임명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야망은 그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충동했다. 그리고 코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주님의 말씀을 끌어냈다. 제 3절에서 보이는 그의 논지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 6절과 같이 모세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에서 취해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누구든지 범하기 쉬운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말씀이 주님에 의해 영감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믿고자하는 것에 거스르는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읽지 않은 척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들이 서술되는 항목들만을 중요시 한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진정한 이유는 그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검증함으로써 우리속의 생각과 지침을 바꾸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을 뿌리 채 뽑아내기 위해서이다. 코라의 반역을 지지한 이백 오십 명의 회중 대표들이란 바로 위와 같이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것, 즉 말씀속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구절은 빼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구절만을 뽑아내는 것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행위를 “진리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진리의 왜곡에 따른 인과가 본문에서 250명에 대한 벌로 묘사되고 있다. 즉, “주님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는 것이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불이란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시작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참 생명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참 생명을 추구한다고 주님께 고백한 뒤 자아 사랑으로 바뀌 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구리로 된 향로란 행동적인 면에서의 예배를 상징한다. 그 안에 든 불이란 예배를 자극시켜주는 동기들이다. 향이란 지성 속에서 제공된 소원을 말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스스로가 선한 인간임을 가늠하면서 자신이 참석하는 예배가 자신의 구원과 관계되는 공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간청한다면, 우리는 코라나 회중 대표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들 모두 벌을 받아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이 들고 나왔던 향로들은 보존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비리 하나를 들고서 “교회에는 위선자가 더 많더라”라는 식의 변명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향로를 모아다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워”라는 구절의 의미를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행동적인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로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는 자신을 추켜들려는 태도가 있어서 안 될 것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자신을 헌납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라의 반역에 동참한 두 무리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르우벤지와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었다. 온은 본문 초입부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겔으로나마 모세에 순종하면서 반역의 집단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멸하는 장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째아들로서 믿음을 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해성에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영적 생명이 발달하는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르우벤은 우리가 진리를 무언가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지성이 신성한 진리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된 믿음이 지적으로 인정함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인정한 신성한 진리는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성막으로 출두하라는 모세의 요구에도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천막 문간에 서 있을 뿐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 속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나마 배운 소량의 진리도 일상생활에 응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음만의 교리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 관한 것을 배우며 그분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세상에 널려있는 우수한 사상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천국의 빛줄기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르게 된다. 그러면 결국 “땅이 입을 벌려” 모조리 삼켜 버려서 우리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오래 전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식구들과 더불어 당했던 것과 같다. 즉, 우리가 기껏 생산해낸 모든 애착과 생각과 행위들 그리고 자신이 자랑으로 여긴 모든 것이 자신과 더불어 지옥에 빠져 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살피지 않으면 세상욕과 이기심은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것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 반역에 가담한 또 다른 무리는 백성(회중)들이다. “백성”이란 날마다 있게 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다단과 아비람이 성막에 오는 대신 그들의 천막에 머물겠다고 고집하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 제 10130항에서 “건드림이란 교류와 교통 그리고 수납 등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건드린다. 때로 우리는 단순히 친목이 깊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말에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찬성해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에 빠지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상에 우리의 사고가 물들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들이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할 원리와 실제로 상반됨을 실감하는 때가 흔하다. 주님께서도 “네가 어떻게 듣는가에 유념해라”하고 경고해 두셨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으로부터 물러섰다. 많은 백성들이 반역에 이미 정신이 오염되어 있어서 반역의 지도자들에 대한 참혹한 교훈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죽게 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올려댄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의 잘못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알지만 자신 속에 있어왔던 충동이 자신의 잘못이 타인 때문이라고 돌려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 놓은 백성들을 내리친 재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를 거절하는 심정 상태에 대한 영적 결과를 상징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주님에 대한 불순종 내지 반역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흔적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은 아론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우자 멈춰졌다. 우리가 신실한 겸손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약함이나 악들을 기꺼이 그분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고 결심하고 진실로 그분의 처분을 구하면, 우리의 반역적인 것들의 결과는 다시 주님의 점검을 받게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했는가?
- 2) 코라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3) 레위지파의 직무는 무엇인가?
- 4) 아론의 직무는 무엇인가?
- 5) 코라는 왜 불만족했는가?
- 6) 코라 외에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가?
- 7) 이 두 사람은 어떤 지파소속인가?
- 8) 그들은 어디에 머물겠다고 고집했는가?
- 9)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 10) 코라를 지지한 어떤 다른 집단이 그와 더불어 성막에 왔는가?
- 11)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3) 계속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이 재앙은 어떻게 멈추었는가?
- 15) 다단과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6) 향로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코라와 그를 지지한 회중 대표들이 받은 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왜 향로는 파괴되지 않았는가?

#### 질문의 답

- 1) 코라 2) 레위 3) 성막과 예배를 돌봄 4) 대성직자 5) 아론을 시기함
- 6) 다단과 아비람 7) 르우벤 8) 그들의 천막 9) 땅이 삼켰다
- 10) 250명의 회중 대표 11) 불이 살랐다 12) 제단을 덮도록 만듬 13) 재앙
- 14)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15) “믿음만”의 결과 16) 예배
- 17) 자신이 원하는 쪽을 지지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킨 결과
- 18) 과실이 예배 때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이므로

#### 「보충 설명」

다음은 17장 11-15절의 깊은 의미에 대한 간략한 주석이다.

11절: 너의 예배를 실지로 만들라. 형식적인 예배로 인한 악을 제거하라.

12절: 위의 악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겉으로 만의 헌신은 그 안에 파괴가 있음을 알아라.

13절: 죽은 예배와 산 예배의 차이점을 명백히 구분하여라.  
이리하여 영적인 가치에 더 손실이 없게 하라.

14절: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에 따른 손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라.

15절: 그런 다음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라.

## 12

### 요르단강을 건너다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고리 역할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광야에서의 전투와 열 두 스파이(민수기 13-14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을 신뢰했고 모세에게 슬기로운 조언을 했음을 언급한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3, 4장

3장: 1.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뻘을 떠났다. 요르단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2.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3.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성직자들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4.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재계 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는 또 성직자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성직자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7.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8. 너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들 와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11.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12.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열 두 사람을 뽑아라. 13.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독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14.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성직자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15.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철이 되어 독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케를 멘 성직자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16.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갔다. 17. 야훼의 계약케를 멘 성직자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4장: 1.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 두 사람을 뽑고 3.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성직자들이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 날 밤 목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리라.” 4.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낸 열 두 사람을 불러 모으고 5. 일렀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의 궤 앞으로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 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한 개씩을 메어 나오니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7.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일러 주리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일러 주리라.” 8.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 내다가 그날 밤 목을 곳에 세워 두었다.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복판에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케를 멘 성직자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성직자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12. 르우벤과 가드와 므나세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섰다. 13. 무장한 그들 사만 명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14. 그 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궤를 메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리라.” 17. 여호수아가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18.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19.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가에 진을 친 것은 정월 십일이였다. 20.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22.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받을 적시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23.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바다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 주시지 않았느냐?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이다. 24.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옳은 길로 정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 \* 계명들은 우리의 지침서이며, 모든 어려운 결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 \* 주님을 신뢰함이 신앙의 시작이다.
- \* 의를 행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거듭나는 상태의 시작이다.

### 상용 연구

요르단 = 우리에게 천국적인 삶을 소개해 주는 진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에 장애물로서의 요르단 강 = 악에서 나온 거짓들  
 돌 = 기초가 되는 진리들

### 해설

본장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공부할 주된 부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세권의 책들이 레위기나 신명기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의 세권의 책들에 지면을 더 할애한 이유는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담겨진 가르침이 이미 그 책들 속에 있어서

전 성경을 보다 빠르게 탐구하기 위해 레위기와 신명기에 지면을 덜 할애했을 뿐이다. 레위기서 안에 있는 규정들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이나 행동 지침에 적용될 수 있는 속뜻을 담고 있다. 신명기서라는 이름은 법을 두 번째 주심이라는 뜻이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근처 그들의 마지막 야영지에 도착한 후 전달된 책으로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그의 지도하에 발생했던 모든 일들의 요약이기도 하다. 신명기서 1-4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한 이야기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연약함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주님께서 떠맡쳐 주시고자 이뤄주신 갖가지 경이로운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법과 규례들을 요약하면서 그 법에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명기 나머지 부분에는 이 법들이 레위인들에게 전달되고, 여호수아 이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해 특히 안전과 번영의 시기에 그들이 주님만 의존해야 함을 잊어버리도록 시험되는 때에도 성심껏 준수하겠노라고 소리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세의 리더십은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온전히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느낌과 생각들이 우리속의 주인이 되었던 상황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세상적인 동기들이나 거짓 사상들은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고 틈만 나면 속에서 자라 오르려고 고한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매일 즐기던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잊지 못해 자꾸 뒤돌아보곤 했다. 재구성되는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법을 마치 모시기 힘든 스승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법에 조금만이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속의 보다 높은 수준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자아 집착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름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는 훈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이뤄 놓은 모든 것 안으로 잠입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 모세로 표현된 순종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 곧 영적인 삶이라는 거룩한 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정작 그 땅의 경계선을 넘도록 해 주지는 못한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의 도움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는 리더십의 또 다른 형태인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되 그 법이 우리의 삶과 온전히 하나 되어 더 이상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임을 새로운 영으로 보게 되어 그것이 스스로를 인도함을 당연하게 여긴 후에 있게 되는 순종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 전반에 항상 사용되어 우리가 단순한 외적인 삶 곧 표면의 삶으로부터 내면의 삶인 순수한 영적 삶으로 건너가게 되고 주님의 진리에

자신의 생활을 억지로 꺾어 맞추던 과거와 달리 그 진리를 우리 내부의 동기나 생각들에 응용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악한 충동을 주는 우리 내부에 깊이 숨어있는 적들과 싸우게 된다는 말이다. 거룩한 땅의 정복은 거듭나는 우리의 시기를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정진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외부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전투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임무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처벌이 없는 법을 깨트리거나 무효화시키도 된다는 생각,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또는 말씀의 의미를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경우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라는 구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적극적이며 건설적이며 진보적인 삶이다.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전진만을 생각해야 하는 데, “나는 구원된 인격인데.” 혹은 “나는 성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웬만한 시험쯤은 문제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여기고 미리 만족에 취해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용기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형태인 진리를 대담하게 말하는 용기, 유혹에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 속의 악을 옹호하려는 변론 따위를 과감히 내던지고 공정하게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라는 식의 군중심리적인 유혹에 홀연히 대항하는 용기, 자신을 향한 빔발치는 듯한 비난에 당당히 자신을 내보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적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용기를 갖게 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이러한 용기가 자신 안에서 나온다고 억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힘을 얻을 데가 없다는 것과 우리의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승리임을 늘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거듭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임을 명심하고, 그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 철에 요르단에 도착했다. 즉, 거듭남의 시작은 우리가 광야 여행을 승리로 이끈 후 승리한 것들을 수확하는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중 하나가 버티고 있음을 발견했다. 요르단 강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미미한

부분까지 내려와 닿는 주님의 진리를 의미하며, 이는 천국적인 삶의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갖고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계명들의 준수가 바로 천국적인 삶의 경계선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에 진을 쳤을 때쯤 거룩한 땅은 그들과 싸울 준비가 완료된 적들로 가득 채워 있었다. 우리 속 깊은 곳인 거룩한 땅을 접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속의 이기심이며, 이기심의 군대인 자기본위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까지도 거짓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적은 우리 속에 늘 가득하다. 따라서 거룩한 땅으로 향하는 경로에 걸림들이 된 요르단 강이란 진리 대신 거짓을 표현한다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거짓을 좀 더 구체적을 표현하자면, 왜곡된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람하는 요르단 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궤의 권능이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안치된 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두 개의 돌판으로 이뤄진 계명이란 “심정에 새겨진 계명”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심정에 새겨진 계명이야말로 거듭나는 삶인 거룩한 땅의 진입을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정에 새겨진 계명이란 바른 삶을 사는 이유가 타인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전제 없이 스스로의 행동에서 올바른 삶을 확신하고 점검을 완료할 때를 의미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실로 가치 있는 동기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의 순종에 두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정과 지성에도 계명을 새겨둘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땅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심과 확신 그리고 보증이 되어 있는 때조차도 장차 여정 동안 우리를 일깨워 줄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틈만 있으면 뒤로 미끄러지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특별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러한 경향성은 강하게 그 두각을 드러낸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이에 관한 것을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즉, 우리에게 과거의 곤란했던 시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선한 해결책을 강구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르단 강 바닥에서 떼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기념비로 세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줄 어떤 것이다. 각자의 경험 속에 있는 기념비는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타인에게 우리의 삶을 증거 하는데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타인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 안에 든 주님의 계명임을 확인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가 배운 교리나 가르침을 실제로 삶에 응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간증하는 진리가 결코 거짓이 아님이 자동으로 증명될 것이다. 이제 4장 20-2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기념비를 세운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길갈과 연결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거룩한 땅 내에서의 첫 과월절을 지켰다. 이 절기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시는 권능을 엄숙하게 회상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어진 날이다. 그리고 길갈에서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 거둬들이는 상태에 진입한 사람은 영의 양식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그것이 생산되는지 알고 있다. 그 사람은 과거 만나가 처음 내려진 날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수군거렸던 재구성의 시기와는 달리 영적 자양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과거의 만나가 햇볕에 녹았듯이 대낮의 열기로 녹거나 썩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을 순수하게 하는데 전념하겠다는 표시인 할례식이 그곳에서 재개되었다. 길갈의 뜻은 “굴리다, 벗기다”인데, 5장 9절에서와 같이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집트의 수모가 벗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2) 누가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 받았는가?
- 3)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졌는가?
- 4)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지는 어디인가?
- 5) 그들은 한 해의 어느 철에 마지막 진영지에 도착했는가?
- 6) 거룩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
- 8) 여호수아는 강 한복판에 무엇을 세웠는가?
- 9) 거룩한 땅에서의 첫 진영지에 무엇을 세웠는가?
- 10)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 11)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12) 왜 그렇게 불렀는가?
- 13) 그곳에서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요르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6) 요르단강을 건너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느보산 2) 여호수아 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 4) 예리고성 반대쪽 5) 수확 철 6) 요르단강 7) 기적으로 8) 열 두 개의 돌
- 9) 열 두 개의 돌 10) 강을 건넌 기적을 회상하라 11) 길갈(굴림, 벗김)
- 12) 이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기 때문 13) 과월절, 할례식 14) 싸우는 진리
- 15) 영적인 삶을 소개하는 진리들
- 16) 의지를 바꾸기 시작한 뒤 영적인 삶을 진정으로 영위해 감

## 13

### 기브온 주민들

머리말

본과 이전에 강조되었던 사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적들로 가득 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리고의 함락과 아이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9장

9장: 1.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2.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4.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털너털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헌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5. 또 발에는 닳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9.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고

10.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산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11. 우리 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딱딱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13.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4.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15.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키랏여아림에 이르렀다. 18.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19.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20. 우리는 그들을 살려 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21.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 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자.” 온 회중은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22.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27. 그 날로부터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된 것이다.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신다.
- \* 말씀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 \* 우리의 순종은 곧 믿음의 척도이다.
- \* 우리는 실수로 인한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경험삼아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 상응 연구

- 빵 = 영적인 선
- 가족 포도주 부대 = 교리들
-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옷 입히고 있는 진리들

### 해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상숭배의 근원이 고대교회의 상응에 대한 지식이

약용되고 오용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후기 고대교회에 있던 우상숭배자들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우상 숭배를 모든 나라들에 퍼트렸던 것이다. 다신교도 이러한 고대교회의 우상숭배자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 있었던 나라들 역시 같은 근원을 가진다. 그들 중에는 가나안족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몇 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여서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말씀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가나안 지방의 경계선은 시돈에서 시작하여 그랄쪽으로 내려가다가 가자에 이르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쪽으로 라사에 이르렀다”라고 한다(창세기 10:9,19).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내적인 예배가 부패됨”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내적인 악들 그리고 우리 심정과 지성 안으로 주님께서 진입하시려는 것을 막는 악들을 표현한다. 이 가나안족과 더불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태고교회의 악한 잔류로서 자아 찬양에 쉽게 빠지는 경향성을 표현한다.

가나안족들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 땅에 처음 왔을 때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우리는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롯을 잡아간 왕들 그리고 그들을 아브라함이 격퇴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 부드럽고 순진한 상태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 유전된 악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첫 투쟁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의 적들을 여전히 휘어잡지 못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백 오십년 동안 그곳에 체류했다. 그들이 이집트에 체류하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늘어갔고 견고한 성을 지으면서 가나안 땅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긴 투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즐거리는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묘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부모에 의해 보살펴진다. 어린아이는 아직은 어려서 천국적인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르지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천국적인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다. 그 후 우리는 집을 떠나 학교라는 세상에 참여한 후 직업전선에 진출하면서 독립된 개인으로 발돋움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외적인 것들 혹은 바깥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동안의 우리의 전투는 오로지 외적인 평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땅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되돌아오게 되면, 즉 우리의 지성과 심정이 발달되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얼마 되지 않은 적들이 아닌 견고한 요새를 짓고 들어가 진을 치고 막강한 세력을 지닌 악들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적들을 부수는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얻은 승리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문 이후의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은 적들이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며 자신들과 혼합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들을 많이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라도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금방 세력을 이뤘 역습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의 하나 하나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우리속의 악을 대항하는데 있어야 할 우리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고거나 주님께 이제는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안일이 우리의 삶에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있어진 사건을 접하게 된다. 기브온 사람들이란 히위족이다. 창세기 10장 15-18절에 열거된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는 헷족과 히위족이 있다. 이 두 부족들은 고대교회에서 파생된 다른 가나안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 가깝게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밍과 막베라 동굴을 사들인 거래자 또한 헷족이다. 그리고 예사오는 헷족의 두 여자와 결혼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의 열왕시대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헷족의 언급을 보게 된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속임수를 썼을 때 헷족인 우리아가 다윗의 군대에 속한 군인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싸우다 전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히위족에 대한 언급을 창세기 34장에서 하물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라나와 결혼하고자하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녀를 위해 어떤 보수를 제공하는 데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스웨덴본은 헷족과 히위족이 고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상응에 대한 지식을 계속 흥미하여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바른 자들에 속했다고 말한다. 헷족은 한계가 있는 외적인 지식들을 상징하고, 히위족은 예배의식과 표현 안에 든 내부의 지식을 상징한다. 「천국의 신비」 제 3058항에서는 기브온 사람이란 진리를 계속 알고 싶어 하나 이는 것 이상 다른 목적 곧 지식을 배워 선용할 목적의식이 없는 이들, 즉 이는 것으로 끝나는 이들을 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은 표면상으로 보면 엄연한 거짓말이지만, 내면 상으로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다. 12절과 13절의 이야기를 내면적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먼 나라, 즉 고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은 그들이 출발할 당시에는 딱딱딱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대교회가 처음에 생산한 영적인 선이야 말로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 부대도 술(포도주)을 채울 때는 새것이었는데,”라는 말에서 포도주란 영적인 진리의 교리로, 이것 또한 히위족이 고대교회로 발달될 당시에는 새것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옷과 신”은 삶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사상과 이 사상의 실질적인 응용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처음에는 새것이어서 서로가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은 점차 말라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헤어지고 닳아졌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편이 낫다고 인정했으며, 그들과 싸우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될 것임도 알고 있었다.

이제 기브온의 상대방인 여호수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야기대로 보면 여호수이는 자신의 약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주님께 한마디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모습은 진리가 내면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50장 2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나에게 못할 것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못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조를 잘 아시며 우리가 흠인 것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섭리는 우리가 파괴하지 못하는 우리속의 유전된 악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용한 매개체가 되도록 해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의 법칙이 의미해주는 것은 우리속의 많은 것들이 그 자체로 보면 우리의 약함이며 우리속의 천사들에게는 이상한 것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약함과 이상한 것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서 그것들을 적당한 위치에 놓고 잘 부리게 되면 우리의 높은 목적을 섬기도록 하는데 꽤 유용하다. 우리 모두는 기브온 주민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자연적인 욕구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호기심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도우려 함에 있어서 최선의 수단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유용한 진리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의 제단을 위해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게 되었다. 나무와 물이 성막에서 사용된 곳은 성막 뜰 뿐이었다는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기 바란다.

## 질문 정리

1) 여호수이는 길가에 무엇을 세웠는가?

- 2) 길갈에서 이스라엘족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 3) 거기서 그들의 음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거룩한 땅 내의 적들 중 누가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원했는가?
- 5)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 6) 여호수아는 어떤 측면을 소홀히 했는가?
- 7)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 8)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조약을 파기했는가?
- 9)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가?
- 10) 이 이야기에서 약속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 11) 기브온 주민의 선조는 누구인가?
- 12) 그들은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그들의 ①헤어진 옷 ②말라서 바삭바삭해진 빵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기르도록 했음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열 두 개의 돌 2) 과일절 3) 만나가 중지됨 4) 기브온 사람들
- 5) 먼 나라에서 온 채웠다 6) 주님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 7)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8) no 9)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라
- 10) 약속을 성급히 하지 말라 11) 히위족(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온) 12) 지적 호기심
- 13) ①행동지침의 생각 ②영성(spirituality)
- 14)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인 실제적인 지식을 얻고자 지적 호기심을 사용함

## 14

### 판관 「입다」

## 머리말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정복과 각 지파별 할당부분을 언급한 후 판관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에서 강세를 얻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입다의 성급한 서약과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과 체결한 성급한 조약도 비교해 본다. 입다의 딸에 관련된 사건은 5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11장

11장: 1.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노미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하면서 그를 쫓아 내었다. 3.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돕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떼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4.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5.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6. 그에게 청했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7.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요?”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9.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재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 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단 말이지요?” 10.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11.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 곳은 미스바였다. 12.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 왔는가?” 13.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

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14.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15.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17. 에돔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19.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20.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21.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를 몰아내겠다는 말이냐? 24. 너는 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단 말이냐? 25. 모압 왕 시뵐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촌락,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촌락, 또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잡고 산지도 삼백 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27. 나는 너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 된 일이냐?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28.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은 입다에게서 온 전갈을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다. 29.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나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다. 30. 거기에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31.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 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 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33. 아로엘에서 민닛 어귀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뎀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35.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찌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쩔단 말이냐!” 36. 그러자 딸이 아뢰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37.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벋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 가 돌아 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38. 입다는 두 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두 달 동안 딸은 벋들과 함께 산에 들어 가 처녀로 죽는 것을 한하여 실컷 울었다. 39.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가지 관습이 생겼다. 40.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흥정할 수 없다.
- \* 말씀의 영적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때가 있다.
- \*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자신의 원하는 바와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함도 포함된다.
- \* 선행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한다.

### 상응 연구

판관 = 말씀에서 비롯된 특별한 용도를 가진 진리

길르앗 = 바깥 삶에 있는 선

## 해설

내적인 의미에서의 판관시대란 우리가 삶에서 외부적인 행동지침들을 바른 질서 안에 놓고 우리 속 깊은 곳의 시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장악하여 자신이 영적인 삶을 건설했다고 자부하게 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급한 자신감으로 인해 경계를 게을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의 영적인 삶의 실제와 생각에까지도 느슨해지고 만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타협은 단 한번이라도 예외를 두게 되면 아주 빠르게 우리를 과거에 투쟁했던 악들 속으로 미끄러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얼른 실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지과 별로 분할되어 각자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아래 정착한 후에 그들은 영토 내에 남아있던 적들과의 전투를 중단했다. 그들이 적들과 혼합되면서 적들의 세력은 더욱 강해진 반면 그들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다. 세월이 흐르자 적들은 하나씩 고개를 들었고, 그들은 과거 여호수아 지휘 하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썩여놓은 굴레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적들과 싸우기 위해 곳곳에 한명씩 필요에 따라 들어 세운 사람들이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삼손과 같은 판관들이다. 그래서 판관들이란 우리가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실감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든 말씀 가운데서 들어내서 세우시는 특별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특별한 진리들은 우리가 당면한 시험에 들어맞는 진리들이다. 판관시대의 대부분의 적들과 판관들은 거룩한 땅 내에 있었으나, 본문에서의 경우는 요르단 건너지역에서 일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판관과 전투 역시 요르단 건너지역에서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시험이 우리의 외부적인 부분에 관한 것임과 이에 대처하는 진리 역시 말씀의 바깥쪽 곧 글자적인 의미에서 오는 간단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심을 의미한다. 암몬족들의 왕이 입다에게 보낸 전갈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아모리족에게서 이 지역을 빼앗았다(민수기 21:21-24 참조). 아모리족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악을 표현한다. 이 지역과 사막사이 곧 르우벤지파와 가드지파의 남동쪽과 동쪽 경계에 롯의 후손인 모압족과 암몬족이 살았었다(창세기 19장 참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 들렀다가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 후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롯은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 제 1549항에서 롯이 외적인 인간과 감각적인 것 속에 존재하는 외적인 인간의 쾌락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마음의 감각적인 평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위치에 있다. 성서에서 롯은 자신의 거주지로 요르단 계곡(평야)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는 그 선택으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의 높은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은 외부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쾌락에 쉽게 매혹되어 이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바른 질서로부터 쉽게 이탈되게 한다. 롯의 근친상간으로 얻어진 두 아들 곧 모압과 암몬은 감각적인 부분의 정상적인 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그것의 결과는 선과 진리의 간음질이었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468항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하게 나타나는 외적인 예배 안에만 있을 뿐 내적인 예배가 없는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과 진리들을 외적인 예배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꾸준히 배우기는 하지만, 내적인 예배에 속한 것은 거절하고 경멸하는 이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내적인 예배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길르앗을 공격하는 암몬족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길르앗이란 요르단 동쪽 지역 중 평야보다 산 쪽에 치중하여 주어진 이름인데, 이 산악지역에 나란히 해서 가드지과의 상속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뤄지고 있다. 야곱의 아들 가드란 좋은 측면에서는 생활의 선 또는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선한 행동지침과 진정한 교리에 기초한 생활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제 4117-3항에서는 “길르앗은 첫 번째 선으로서 이는 육체적 감각에 속한 선이다. 그 이유는 거듭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 선 또는 이로부터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명」 654-44항에는 길르앗이 다른 것들 사이에서 말씀의 글자에 있는 의미로 추론함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바깥쪽 삶에 관한 것 곧 그의 행동지침과 그의 즐거움 그리고 그의 예배 등 타인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측면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측면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굴복하기 쉽고, 특히 악과 타협하게 하는 시험에 더욱 약하다. 그래서 “진리의 간음질”을 표현하는 암몬이 적이 되어 이스라엘이 놀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시험은 그 형체가 다양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체험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본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본문에서 판관으로 세워진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적법적인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고 친형제들에게서도 버림받아 홀로 살아야 했다. 스웨덴북은 입다에 관하여 직접적인 해석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스웨덴북의 상응의 원리로 추측해 보면, 입다는 아마도 세상적인 표준이나 거짓에 접촉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얼마간의 단순한 진리들을 표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추론이라는 그물에 뒤엉킨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고, 세상적인 추론을 구원의 도구로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입다의 맹세는 암몬족을 짓부순 승리에 포함된 사항을 인정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지침이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시험과 싸워야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하지만 나쁜 탐욕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시험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입다는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 올 때 제 집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아홉째 번째로 바꿔 올리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 굉장한 장사인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의 서약을 수행해냈다. 우리는 암몬족 같은 악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제물들을 우리 심정속의 것들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와 유사한 교훈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말리셨으나 입다의 경우에는 말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입다의 딸이 자아 사랑을 지극히 아끼려는 마음을 상징하여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임을 암시해 준다.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번째 자체는 뭔가를 죽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있게 되는 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입다의 이야기가 글자적인 의미에서 보여주는 도덕적 측면의 교훈은 새교회의 주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석들에서는 중요한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 역시 새교회의 상응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입다가 분별없이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로 가장 명확한 교훈은 분별없이 성급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33-37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608항에서 “맹세란 내면이 아닌 외면상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한다. 약속은 심각한 것이어서 경솔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며, 경솔하게 깨트려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한 약속이 어리석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우리는 선택 상에 문제점을 갖게 된다. 여기서의 선택이란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의 악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만약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킴으로서 자신에게 곤란함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차후 있게 될지 모르는 곤란함을 대비하도록 해주는 교훈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위협이나 곤란함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우둔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약속을 깨트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을 깨뜨림으로서 상실하게 될 신용적 손실을 감수하고 이웃에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3) 본문의 판관은 누구인가?
- 4)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5)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6) 입다는 무엇을 서약했는가?
- 7)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올 때 처음 환영 나온 자는 누구인가?
- 8)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노력했는가?
- 9) 그녀는 어떤 요청을 했는가?
- 10) 이로 인해 어떤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가?
- 11)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된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백성들이 주님을 잊었다 2) 판관을 세워 주셨다 3) 입다 4) 요르단 건너편 5) 암몬
- 6) 자기를 환영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바침 7) 입다의 딸 8) 노력하지 않았다
- 9) 두 달간의 여유 10) 해마다 사흘씩 곡함 11) 필요성을 만날 특별한 진리
- 12)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라

#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때의 백성들과 판관시대 백성들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본문 이전의 내용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4장1-11절, 5장, 6장 1-16절

4장: 1.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에벤펠에 진을 쳤고 블레셋군은 아베크에 진을 쳤다. 2.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사천 명이나 되었다.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다.” 4.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룩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였다. 5.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6. 블레셋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7. 블레셋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8.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 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9.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 사나이답게 싸우자!” 10. 이리하여 블레셋군이 짓쳐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

으며 11.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5장:1. 불레셋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2. 불레셋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3.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웠다. 4.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 구르고 있었다. 5.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성직자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6.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 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7.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불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겼다. 9.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냐?”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11. 그래서 그들은 불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때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2.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 야훼의 궤가 불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지 칠개월이 지났다. 2. 불레셋 사람들은 성직자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죄제물을 엮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면죄제물로 무엇을 었어 보내야 합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 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다섯 개, 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불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5.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6.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멩에를 떼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젓먹이 송아지들은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8.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9.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11.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12.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 갔다. 불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 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13.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밭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14.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멩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 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 그 날 불레셋의 다섯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 교리 요약

- \*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 \* 말씀의 진리는 쌍날을 가진 검이므로, 선한 이는 보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파괴한다.
- \* 사랑과 선한 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 \* 우리는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상용 연구

- 블레셋 = 삶이 없는 지식
- 다곤 = 자기 총명에 빠진 자만
- 종기 = 표면에 나타난 내부의 불순함
- 쥐떼 = 작은 악들, 특히 감각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악들
- 암소들 = 유용한 활동을 사랑하는 마음
- 수레 = 어떤 것에 대한 일반적 사상이나 일반 원리

## 해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고 주님이 임명한 판관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도 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3장 20절의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이란 우리가 자아총명이라는 자만심을 깨트리고 주님의 방향과 보호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어린 시절 우리의 상태인 순진과 신뢰의 상태를 우리 속에서 일으켜주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무엘의 부름은 대성직자 엘리가 성막의 진정한 예배가 부패되는 상황을 소홀히 하여 초래된 저주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내린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판관시대를 통해서 발달되어 온 상태가 최 정점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고 궤가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으로 표현된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항에서 "블레셋 족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각종 규례와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상태였다. 즉, 그 때의 그들은 그 가르침에서 이탈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야훼께 돌아오려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다른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훼께 돌아와 오로지 그분만을 섬겨라."라며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궤안에 보관된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일치됨을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고 미신적인 믿음으로 케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그것의 권능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전세가 흐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음은 과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케의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명에 대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표현이다. 그들은 두 돌판을 지성소의 궤안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삶에서는 아주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블레셋이 상징하는 상태, 즉 생활에서 선이 분리됨을 허용하는 지식과 꼭 같은 것이다. 엘리와 그의 가문의 성직자직은 끝장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엘리가 주님에 관한 정규적인 예배를 계속 수행했으나 예배가 악용됨을 방지함과 더불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한편으로 세속적인 목적에 따라 행동하려는 자신과 이기적인 탐욕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못 본 척하는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법도가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존재하나 단지 기억 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여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지침과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다. 즉, 우리속의 "케"가 "블레셋 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케가 블레셋과 머물 수는 없다. 우리가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행동에 놓는다면, 계명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계명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찌그러진 그릇됨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종기와 쥐뎀의 재앙은 단지 백성들이 빠져버린 악이 드러나 보이는 것, 즉 감각적인 삶의 습관들의 면모가 밝혀지는 것이었다. 스웨덴붉은 이를 "교회속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소비해 버리는 악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블레셋이란 "믿음에 관한 지식이 있으나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지 않고 단지 기억 속에만 담고 있는 자들"을 표현한다. 종기와 쥐뎀의 재앙을 당하는 블레셋의 상태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알게 된 그분의 법도를 우리의 생활 곧 우리의 생각과 행동지침에 응용하려는 대신에 이기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편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우길 때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 블레셋의 신인 다곤은 몸뚱이는 물고기였고 머리와 손은 사람의 형상으로 된 우상이었다. 창세기 첫 부분을 상기해 보면, 물고기란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케의 출현으로 머리와 손이 부러져 나갔고 몸뚱이만 성한 채로 있는 다곤 신상이란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블레셋적인 사상이 계명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속에 든 계명이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속의 악들을 드러내 보여줄 때마다 계명에 대한 지식을 기억 속 곳곳에서 이리저리 치우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본문에서 블레셋 족장들이 케를 아스돗에서 갖으로 그리고 다시 에크론으로 옮기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계명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잠잠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케가 이동할 때마다 케의 권능은 자동적으로 발휘되어 우리 속에서 감춰진 죄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는데, 이는 그 지식의 제 위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자신에게 평화를 갖게 해준다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지속된다.

스웨덴북은 빼앗겼던 케가 다시 돌아옴에 대한 상응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진정한 기독교 종교」 203항과 「하느님의 섭리」 326-12항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설명 700항을 참고하도록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케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점쟁이들을 불러 케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의논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연상시켜 준다. 점쟁이들이 상응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상응지식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동방나라에도 존속했음을 의미한다. 케와 더불어 보내진 금중기와 금쥐란 케가 드러내준 악들을 단념함을 상징한다. 이것들은 면죄제물이라고 불리며,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행동지침의 동기로서 자아사랑 대신 주님과 이웃사랑을 놓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새 수레란 “새롭긴 하나 자연적인 수준의 교리”이다. 이는 「The Sower」라는 책에서 생활 속에 계명을 심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롭게 인정함을 뜻할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다. 명어를 메어 본 적 없이 젓먹이는 암소란 거짓으로 아직 불결해지지 않은 자연적인 애착을 말한다. 자연적인 애착이 그것의 기반인 자연계나 세상적인 것과 분리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송아지를 떼어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과 어미 소의 울음소리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칭찬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허전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즉, 교회에 봉사하되 그것을 통해 교회의 모범으로 채택되거나 칭찬받게 되는 기대감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팔뚝의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송아지를 떼어 우리 안에 가두고 그로 인해 울게 되는 어미 소의 울음으로 의미되는 것이다.

암소들은 케가 가진 신성한 권능이 중용하는 대로 벳세메스쪽으로 곧장 수레를 끌고 갔다. 벳세메스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이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케를 수레에서 들어내고 그 소와 수레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자신속의 악들을 인정하고 계명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속의 퀘는 그것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바, 우리의 자연적인 애착이나 생각의 자연적인 방법들은 주님을 모시는데 성별되어진다는 것이 위의 구절이 가진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퀘가 본래 있던 곳인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퀘는 이 성읍에서 저 성읍을 거쳐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퀘를 위해 지은 새 성막에 안치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심정상태를 악에 허용한 이후에는 초기에 가졌던 열정과 함께 있었던 계명에 대한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퀘의 인도하심에 스스로를 복종시켜 간다면, 퀘는 차츰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어 우리의 심정 속에 다시 새겨져 퀘의 권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응용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게 된다. 이것은 다윗 왕에 의해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막에 퀘가 안치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3)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냈는가?
- 4) 퀘를 성막에서 끌어낸 두 성직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5) 퀘는 어떻게 되었는가?
- 6) 퀘와 같이 있던 불레셋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났는가?
- 7) 불레셋 사람들은 결국 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8) 누가 불레셋 사람에게 퀘를 돌려보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9) 퀘는 어디에 실려 되돌려 보내졌는가?
- 10) 퀘와 더불어 무엇이 보내졌는가?
- 11) 퀘는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 12)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왜 불레셋은 퀘를 간직할 수 없었는가?
- 14) 새 수레와 어미소는 무엇을 그리는가?
- 15) 불레셋의 점쟁이는 퀘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어떻게 알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팔레스타인 3) 케를 전투지역에 가져다 놓기로 함
- 4) 죽었다 5) 빼앗겼다 6) 그들 신이 부서졌다 7) 케를 되돌려 보내자
- 8) 성직자와 점쟁이들 9) 새 수레 10) 다섯 개의 종기와 쥐 11) 벳세메스
- 12) 순종 없는 지식 13) 재앙이 계속 있으므로
- 14) 새로운 자세, 새롭게 된 애착 15) 상응지식으로

## 16

### 사울과 요나단

####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격과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신체적 강함과 용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차후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4장 1-46절

14장: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불레셋 초소로 가자”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 그 때 사울은 육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3. 실로에서 야훼의 성직자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툼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모셔 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4.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 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6.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7.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8.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9.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게 셋거라’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 가지 말고 10.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 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불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불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하면서 12.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 줄 게 있다”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하고는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짝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불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발을 반 이랑 갈아 찢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15.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16. 베타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불레셋군이 갈광질광하는 것을 보았다. 17.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내어라”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 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19. 사울이 성직자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불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성직자에게 “그만두어라”하고는 20.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21. 이제껏 불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

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22.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블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23. 이렇게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베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24. 그 날 이스라엘군이 하나 둘 모여 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25. 마침 거기 들에는 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26.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28.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29.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풀 한 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30.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블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그 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을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32.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 쩌 먹어 버렸다. 33.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 쩌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느님을 배반 하였구나”하면서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34. 그리고는 전군에게 흩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 쩌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블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성직자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고 제의하였다. 37. 사울은 하느님께 여쭙었다. “블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38.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 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0. 사울이 온 이스라엘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하고 대답하자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이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뭇뭇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을 풀려났다. 42.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하고 선언하였다. 45.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 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 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46. 사울은 블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블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 교리 요점

- \*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이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을 즐기는 우리의 안목을 좁게 하여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들을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왕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 \*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사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일구어낸다.

### 상응 연구

왕 =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  
요나단 = 경험에서 얻은 지식  
꿀 = 즐거움

## 해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블레셋은 이렇듯이 기가 꺾이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훼께서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손수 블레셋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전히 판관으로 있고 주님의 대변자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서워서 제각기 굴속에 피신하려 했음을 보게 된다. 제 13장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블레셋이 그 지역 전체를 장악했으나 이스라엘에는 전투를 위한 무기뿐만 아니라 대장장이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이와같은 경우는 성경의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인식되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글자 속에 든 내적인 의미로 읽는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체계적이며 꼭 짜인 섭리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이란 어린 시절 같은 순진과 신뢰를 가진 상태임을 공부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무엘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다른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사무엘이 고령이 되자 그는 아들들을 판관으로 세웠다. 하지만 그들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 대항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초기에 가졌던 종교적인 열정이 식음에 따라 마음의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판관시대의 초기에는 주님을 모시는데 열정적이었으나 그 열정이 식어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고통 받게 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로 영적인 위협에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시며 보호자로 삼아야 함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첫 상태중 하나인 진실한 겸손과 단순한 순종으로, 성경에서는 사무엘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가 그나마 가진 자신의 조그만 영적인 기반마저 잃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기반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두지휘할 진로로서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특수한 것을 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직면하여 있게 되는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풍부하고 튼튼하게 해 줄 어떤 체계화 된 진리를 원한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평화스런 예언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대신에 전쟁을 지휘할 왕을 원한다는 것이다.

사무엘에 이어 등장하는 세 왕들이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한 단계씩 높이 이해해가는 개념들을 표현한다. 사울은 그의 용모(체격)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선택되어졌다. 주님께서 사울을 첫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만이 백성들의 수준에 가장 알맞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이나 상태에 따라 그분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심은 이미 설명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만큼의 진리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사울은 용감하고 신실했으며 초기에는 겸손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심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초기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자기 과신에 취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심을 저버린 대가로 쓴 경험을 맛보게 된다.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처음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 그가 승리한 적은 암몬족인데, 이들은 관관 입다 시절에도 이스라엘이 무찌른 바 있다. 하지만 사울은 승리하자마자 자신감에 도취되어 사무엘을 통해 떨어지는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은 다시 강성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블레셋의 새로운 공격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무엘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사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개념은 매우 피상적이고 성급하다. 이 개념은 눈에 보이는 외관으로만 판단하는 자연적인 이해성에 기초하여 고집이 세며 외골수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어릴 적에 받은 가르침을 확증하게 해주어 주님의 권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경험의 발달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적의 세력을 보고도 전혀 낙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적의 수가 주님께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말씀 속에서도 흥미를 끌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가 아버지 사울과 더불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 의문의 답은 내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사울의 계보는 진리에 대한 자연적 수준의 이해력을 뜻하므로,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고자 하면 영적인 수준의 이해력에 반드시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새 인물로 왕위가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요인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군들이 블레셋 진영에 눌러 동굴에 숨거나 슬슬 내빼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권능을 무조건 신뢰했기 때문이다. 제 13장을 보면, 그는 전 군대의 삼분의 일을 지휘하고 있었고 대담하게 블레셋의 수비대 중 하나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무기 당번만 데리고 블레셋의 적의 진영에 침투하여 적을 공격한다. 이 공격의 초반부분의 내용인 제 4절로부터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길목의 양쪽에 큰 돌 벽들이 버티고 있어 서로 공격하려면 그 돌 벽을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야만 공격이 가능한 지형이었고 그 돌 벽들 사이에 길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군의 군대가 가까이 포진하여 있으면서도 접전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가까이 볼 수 있어도 쉽게 건너지 못하는 이 길목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한다.”라는 구절 중 큰 구렁텅이가 놓인 모습을 연상하도록 해준다. “구렁텅이”와 “길목”은 의미상에서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요나단이 기어 내려가고 다시 기어오른 두 바위에서, 기어서 내려간 바위는 자기 과신이라는 바위이고, 기어서 올라간 바위는 주님을 신뢰함이라는 바위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러한 큰 구렁텅이를 건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저 세상에 건널 수 없게 고정되어버린 구렁텅이 건너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수십 명을 때려눕혔던 것은 블레셋 전 진영에 무시무시한 공포가 감돌게 했다. 그리하여 블레셋 군은 혼란에 빠져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는 이수라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양상은 판관 기드온의 전투 때에도 있었다. 이 전투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이라는 우리속의 악을 조금만 공격하였다도 블레셋에 나타나는 그 효과는 대단하게 됨을 묘사한다. 우리는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기 총명을 지지하고 자만심을 부추기려 드는 우리의 논쟁이 실지로 보면 아주 허약한 것임을 인식하고 아주 조그마한 진리만 있더라도 그것이 즉시 혼란에 빠지는 허위여서 금방 녹아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은 아주 흥미롭다. 꿀이란 자연적인 종류에 속한 즐거움을 표현한다.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은 하라는 것보다 금지사항으로 가득 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본문에서 사울이 군인들에게 공격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수세기를 걸쳐 오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자연적인 즐거움을 모조리 포기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연적인 이해성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 내리는 태도가 사울이 보좌에 군림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요나단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즐거움에 대한 탐닉이라도 그것을 일종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꿀을 먹어 “눈이 번쩍 뜨인”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이 슬기롭지 못함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권능이 사울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에게 함께 있어 승리하였음을 눈으로 똑똑히 본 모든 부하들은 요나단을 두둔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형태는 결코 지나친 금욕생활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세상의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며 그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끝으로 이사야의 예언 7장 14-15절을 읽어보자.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가 나쁜 것(악)을 버리고 좋은 것(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양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초대 왕이였는가?
- 2)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 3) 그는 어떤 적과 처음 싸워 승리했는가?
- 4) 사울의 약점은 무엇인가?
- 5) 어떤 적이 그를 괴롭혔는가?
- 6)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달랐는가?
- 8)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9) 왜 요나단은 둘이서도 적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 10) 어떤 곳에서 그들은 적과 접전했는가?

- 11) 요나단은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2) 요나단의 습격이 승리하자 불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사울의 군대가 불레셋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 14)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 15)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16) 누가 요나단을 구했는가?
- 17) 성경에서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요나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불레셋 진영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은 무엇을 그려 주는가?

#### 질문의 답

- 1) 사울 2)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여서 3) 암문족
- 4) 성급하고 불순종적이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5) 불레셋 6) 요나단
- 7) 주님을 신뢰했다 8) 불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9) 믿음 10) 가파른 바위
- 11)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말하면... 12) 공포에 휩싸였다 13)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 14) 꿀을 맛보았다 15) 죽이려 했다 16) 군인들 17) 통치하는 원리
- 18) 경험에서 온 지식 19) 자만심을 부추기는 논쟁들이 서로 다름

## 17

###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 머리말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강조되며, 다윗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 그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짜의 죄와 벌은 본문에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지만, 퀘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6장

6장: 1.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소집했다. 2. 다윗은 이 전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느님의 퀘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퀘는 거름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퀘였다.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퀘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우짜는 퀘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퀘 앞에서 인도했다. 5.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6.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퀘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7. 야훼 하느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느님의 퀘 옆에서 죽었다. 8.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베레스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 다윗은 그 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퀘를 모실 것인가”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퀘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 들이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벤테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11. 야훼의 퀘를 오벤테돔의 집에 모셔 둔 석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벤테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2. 오벤테돔의 집에 하느님의 퀘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퀘를 오벤테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 왔다. 13. 야훼의 퀘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진 황소를 잡아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퀘를 모시고 올라 왔다. 16. 야훼의 퀘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 올 때 다윗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 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17.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퀘를 모셔 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18.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9. 그리고 모여 든

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개, 마른 대추야자 한 뭉치, 건포도떡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22.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리를 것이요.”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 교리 요점

- \* 잘못된줄 알고 저지른 행동은 죄이다.
- \* 우리에게 “자연적인 수준”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
- \*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며 인간의 바람에 맞춰서 해석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 \* 우리는 시험을 추론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 상응 연구

텐트 또는 성막 = 사랑으로 예배함  
이스라엘의 적들 =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

### 해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가 가진 다윗과의 우정은 역사에 길이 빛나는 우정의 표본으로 칭송되고 있다. 특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질투심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부터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숨통을 틈게 하기 위해 하프 연주를 했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승리했다.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군의 장군이 되어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자 백성들은 사울보다 그를 더 찬양했고, 이로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이 비롯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 주었고, 이 후 다윗은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윗역시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원리 또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다윗으로 상징되는 통치는 새롭고 더 깊은 방법으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가시적인 진리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이해한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중이었다. 반면에 다윗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이었다. 나귀란 자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추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양떼는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욱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후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은 이내 뒤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보다 깊은 차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경험한 후에도 여태껏 사용해 왔던 자연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생긴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서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왕국은 한 동안 둘로 나뉘어 서로 싸움을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이 죽은 후 발생한 왕국의 분열과도 유사하다.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은 다윗을 왕으로 하고 수도를 헤브론에 정했고, 북쪽 지역은 요르단 건너 지역까지 합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받들었다. 이스라엘 분단의 의미는 차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남쪽 지역이 우리의 내적인 삶의 영역 중 애착의 측면을, 북쪽 지역은 지적 측면을 그리고 요르단 건너 지역은 외적인 삶을 표현한다는 것은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찾아보는 일은 과히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란 우리가 진리를 이해했으나 그것이 처음으로 있어서 자연적 혹은 인간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으로서는 악과 거짓의 공격에 맞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달아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영적인 이해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란 우리의 심정이 오랜 시련과 체험에 의해 새 원리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새 원리가 아니면 안 됨을 확신함으로써 새 원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지가 생길 때를 말한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러는 세월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설사 우리가 새 원리를

채택하고 각종 응용을 거쳐 확증과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처음으로 자리했던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부터 발달된 생각이나 느낌들에서 비롯된 습관들까지 제거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에 법궤를 모셔야겠다고 결심했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항을 보면, 법궤가 여행하는 세 단계는 인간의 가장 외부적인 측면에서 가장 내부적인 측면으로 교회가 진보해 감을 그려준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진보는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법궤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적 혹은 인간적인 것은 행위의 선이며 영적인 것은 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이고 천적인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이다.

우짜가 느닷없이 죽는 사건은 참으로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짜의 행위가 지극히 인간적이며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왜 그가 죽어야만 했는가하고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우짜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짜의 집안은 대를 이어 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우짜 역시 궤를 운반하려 할 때의 규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옛날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짜가 궤에 대한 공경심과 궤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더 깊고 신실했다더라면 그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하더라도 주님의 법을 깨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의 행동은 자신에 신뢰를 두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아 온 그의 속마음의 표현이었고, 그러한 그의 마음 상태가 벌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우짜의 사건에 있는 더 깊은 교훈을 주목해야 한다. 법궤는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신성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고, 교회 역사 혹은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에 대한 풍부한 증거도 갖게 된다. 더욱이 말씀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싶거나 우리의 선한 애착들이 비틀거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 그 자체에 신성함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시험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우짜처럼 주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잡겠다는 시도, 즉 주님의 권능을 자신의 권능으로 대체하겠다는 시도는 주님의 진리가 인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총명이 더 잘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믿어 보려는 마음으로, 이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 이유는 영적인 생명이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짜의 모습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을 묘사해 준다. 첫째는 말씀을 단지 인간이 만든 책으로 여기고 그러한 범주 안에서만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말씀을 인간적인 합리성과 논리의 틀에 넣어 두고 그 안에 맞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건너 뛰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성경 안에 주님의 신성이 거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며 무시하는 것이다. “우짜는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란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면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영적인 왕국을 상징한다. 따라서 예루살렘 내의 시온산은 교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 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지은 성막은 시온 산 위에 있었다. 다윗이 견고한 시온을 여부스족에게서 빼앗았다 함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을 굳건히 장악했던 이상들을 몰아냈음을 의미한다. 즉, 이와 같이 우리 속 깊은 곳의 적들을 몰아내는 것은 진리를 영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정복이 마무리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 건설 또한 완성되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팔을 뻗어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암몬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은 과거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준 여자였다.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딸의 몸값을 요구함으로써 다윗이 싸움에 참여하여 죽도록 자신의 딸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신해 있는 동안 사울은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다윗은 미갈을 되돌려 보내도록 요구했고, 이스보셋은 미갈을 당시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되돌려 보냈다(사무엘하 3:13-16). 미갈은 주님의 진리를 해석하기는 하지만 자기 과신에 중심한 자연적인 애착을 표현한다. 이 애착은 쉽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며 대중적일 것 같은 의견이라면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만한 점은 우리의 첫 이해성이 발달되는데 있어 좋은 요소를 표현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와 죽었지만 미갈은 생존하여 다윗에게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추론보다 자연적인 경향성이 극복해내기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이다. 사울의 딸임에 중점 한 미갈의 속성은 그녀가 다윗을 경멸하며 궤 앞에서 겸손했던 그를 조롱함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요나단은 죽어야만 했지만 어디까지나 선한 목적을 섬겼다. 반면에 미갈에게는 어떤 선도 없었다.

그리하여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가?
- 2) 누가 그 왕을 기름 부었는가?
- 3) 그는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가?
- 4) 누가 그 왕의 친한 친구였는가?
- 5)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도록 했는가?
- 6)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가?
- 7)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는가?
- 8) 다윗은 어떤 성읍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는가?
- 9) 그는 그곳에 무엇을 모시고자 했는가?
- 10) 케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 11) 왜 우짜에게 변이 발생했는가?
- 12) 누가 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었는가?
- 13) 그녀가 받은 벌은 무엇인가?
- 14) 다윗은 예루살렘 어느 산에 케를 모셨는가?
- 15) 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케를 예루살렘으로 모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우짜의 행위는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다윗 2) 사무엘 3) 아니다 4) 요나단
- 5)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6) 요나단 7)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8) 예루살렘 9) 케
- 10) 키랏여아림 11) 케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 12) 미갈 13) 아이를 낳지 못했다 14) 시온산
- 15)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함
- 16)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법을 놓는 것
- 17) 하느님의 진리의 권능을 의심함

## 18

### 성전 건축

#### 머리말

열왕기상 5장 17절(개역 5:3)에서 언급되는 성전을 짓고자하는 다윗의 바램과 주님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의 차이점도 재고해본다. 성전의 세부 사항은 제 2반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으므로 다른 반은 2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전체적인 특성과 건축 재료들 그리고 장식에 따른 각종 타입도 생각해 보자. 또한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띠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내용도 파악해 두자.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6장

6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시브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3.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 4.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5. 그는 또 전의 벽 들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돌렸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들을 꾸몄다. 6. 아래층은 나비가 다섯 척이고 가운데층은 여섯 척, 삼층은 일곱 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돌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7.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8.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9.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10.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다섯척으로서 송백나무 재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12.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13.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4.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15.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꼭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16. 또 이십 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17.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의 길이가 사십 척인데 18.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19. 밀실은 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20. 그 밀실은 길이 이십 척, 나비 이십 척, 높이 이십 척인데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어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22.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23.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십 척 되는 거룩을 둘 만들어 놓았다. 24.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섯 척이고 다른 날개도 다섯 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십 척이 되었다. 25. 다른 거룩도 십척이 되었다. 두 거룩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26. 한 거룩의

높이도 십 척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룹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룹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룹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28. 솔로몬은 거룹에 금을 입혔다. 29. 그는 전의 온 벽을 돌아 가며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돈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30.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31.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32.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돈을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룹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33.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34.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35. 그 위에다가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36.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37. 제사 년, 시브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38. 그리고 제십 일년 팔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

### 교리 요점

- \*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어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준비되는 재료들로 지어진다.
- \* 진정한 지혜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식별하여 올바른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능력이다.
- \*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은 그분을 섬기는데 고용될 수밖에 없다.

### 상응 연구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  
 솔로몬 = 사랑으로 진리에 순종함  
 시온산 = 천적인 교회

모리아산 = 영적인 교회

7 = 거룩함

## 해설

세 왕들 모두는 우리가 삶의 원리로 인정하여 받아들인 말씀 또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각 왕이 표현하는 진리가 분명한 등차가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사울 왕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성 또는 자연적인(인간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그래서 사울로 상징되는 이해성은 자연적인(인간적인) 수준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계보가 멀어져야 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이해성은 많은 영적인 결과들을 이루어 낸다.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계보에서 탄생하시는 것으로 예언 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주님에게서 “이해력이 있는 심정”을 선물로 받았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변화기에 요나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중간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띠로의 왕 히람이었다. 여기서 히람의 역할이란 우리의 실질적인 생각이나 활동에 관한 자연적인 평면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성을 삶의 통치자로서 성공적으로 승계 받은 후일지라도 영적인 이해성을 떠받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됨을 표현한다. 이러한 것들은 열왕기상 제 5장에서 솔로몬과 띠로의 왕 히람이 거래 계약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스웨덴북은 띠로와 시돈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히람은 교회밖에 있는 국가이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국가를 표현한다. 히람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친구로서 다윗이 궁전을 짓을 때와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을 짓을 때 협력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히람을 보자면, 우리가 선하지만 이방적인 상태 곧 우리가 획득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진리들을 이타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우리속의 이런저런 상태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습득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도와주는데, 먼저 체계 있는 영적 사고력을 발달시켜 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궁을 지을 때 히람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 다음으로 진정한 천국적인 인격 곧 우리속의 교회인 성전이 세워지는데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역량이 우리속의 교회를 짓는데 사용되면, 우리 마음의 바깥 영역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선으로 활력을 얻고 생명을 받아 살아있게 된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거래의 대가가 양식이었음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이만 섬과 짠 기름 이십 섬을 공급하였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특전을 다윗의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은 이에 대한 이유를 히람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내 부친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부친의 발밑에 밝히게 하시기까지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힌다. 천국적인 인격 곧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집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합리성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계발되었거나 시험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지어질 수 없다. 주님의 집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긴 후 갖게 되는 평화의 상태 안에서 은밀히 흐르는 그분의 영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우리의 선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거듭하여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악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방향을 바꿔 주님께로 열어두는 것뿐이다. 그래서 성전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지어졌고, 모든 재료들은 외곽지역에서 다듬어졌던 것이다.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을 만드는 재료인 다양한 선택과 진리들은 우리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이 세상에서의 삶 전반에 걸쳐서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된다. 즉,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스웨덴북은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된 이유에 관하여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그는 「하느님의 섭리」 제 245항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성전은 신성한 인간이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비해 솔로몬은 세상에 오신 후의 주님을 표현한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54-33항에는 “교회속의 모든 사람은 영성과 합리성 그리고 자연성을 가지는데, 이는 솔로몬이 지은 세 개의 궁과 같다. 그 중 하나는 하느님의 집 곧 성전인데, 이는 영성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의 수풀궁으로 합리성을 상징한다 (송백나무나 레바논은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은 자연성을 상징한다.”라는 흥미로운 서술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휴식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은 아름다운 형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영혼이 소유한 내적인 것인 교회에 관련 된 것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얻은 세상적인 것까지도 형체를 입는다는 것이다.

성전의 세부사항에 관한 상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관한 지식을 상기하여 성전과 성막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막은 천적인 교회를, 성전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은 영적인 발달 단계에서 보면 지적인 면이 조금 떨어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상태이다. 「천국과 지옥」 제 223항에는 “천적인 천국에 있는 교회는 나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천국의 교회는 돌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무가 선을 상징하고 돌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성막의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던 반면 성전의 벽은 돌로 되어 있었다. 본문 15절에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쪽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송백나무 널빤지로 벽을 붙인 모습은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오게 되는 선을 묘사해 준다. 이 벽에 거름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돌을새김으로 새겨 놓았는데, 이는 신성한 섭리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권능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축복에 관한 생각들을 표현한다. 금으로 입혔다 함은 진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다윗의 성막이 있었던 시온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본은 그의 저서에서 시온이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성막이 시온산에 건립되고 영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말씀 한 곳에서 동시에 언급되면 시온은 천적인 교회에 관한 것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에 관한 것을 상징함을 더불어 알아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사항은 본문에서의 성전 구조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성전이 파괴된 후 수년 동안의 환상으로 예제키엘에게 보여준 바로부터 성전의 이모저모를 보충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제키엘서 40-48장 참조). 본문에서 결여된 구조물에 관한 사항은 예제키엘서에서 설명되고 예제키엘서에서의 미비한 사항은 본문에서 보충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성전 구조를 알도록 해준다.

## 질문 정리

- 1) 다윗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 2) 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 3)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 4) 솔로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5) 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는가?
- 6) 솔로몬은 그 재료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가?
- 7) 성전 건축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 8)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 9)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10) 성전은 예루살렘 내의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 11) 왜 성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워졌는가?
- 12) 성전 건축은 몇 년이나 걸렸는가?
- 13)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15) 성전 건축 재료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미리 다듬어졌다고 함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질문의 답

- 1) 적을 정복함 2)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솔로몬 4) 평화 5) 히람
- 6) 곡식, 기름, 성읍들 7) 돌, 나무, 금 8) 전체적인 윤곽측면에서
- 9) 성전은 더 견고하고 항구적이다 10) 모리아산
- 11) 원산지에서 돌을 깎고 다듬었기 때문 12) 칠 년
- 13) 사울 - 의무감에서 진리를 순종함  
다윗 - 존경심에서 진리를 순종함  
솔로몬 - 사랑함에서 진리를 순종함
- 14) 시험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인격의 형체가 이뤄진다
- 15) 바깥 삶 곧 일상생활 중에 있는 올바른 행동으로 인격이 형성된다

# 19

## 엘리아의 겹옷

### 머리말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대신 베텔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를 대체시킨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선교활동과 분단된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장

2장: 1. 야훼께서 엘리아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 가실 때가 되어 엘리아가 길갈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2.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 있게.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

다”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3. 베델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5.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7. 예언자 수련생 오십 명이 뒤를 따라 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보고 있었다. 8. 엘리야가 걸옷을 벗어 말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 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말해 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뿔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11. 그들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걸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 와 요르단강가에 서서 14. 엘리야의 걸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아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15.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아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6.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이 오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17. 그들이 계속 올라 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 하였다. 그리하여 오십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18.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 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21.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23.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아 꺼져라. 대머리아 꺼져라”하며 놀려 대었다. 24. 엘리사는 돌아 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였다. 25.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가르멜산을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 왔다.

### 교리 요점

- \*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 발휘된다.
- \*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 \* 말씀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할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미로 전해짐을 알게 되면, 말씀의 글자는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되며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상응 연구

예언자의 겹옷 = 말씀의 글자  
 소금 = 선을 위해 진리를 바랍

## 해설

평화로웠고 의기양양해 보였던 솔로몬의 통치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둘로 분열되는 비극은 너무 갑작스러워 의아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왕국을 그리 길게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외부의 요인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까닭을 찾는다면 탐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지닌 영화와 번영 혹은 그들의 큰 수도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해 그들의 자만심이 거세져서 주님께 반역하는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왕국이 분열된 진정한 원인은 통치의 말기에 보여준 솔로몬의 처신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서 발견된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많은 외국 출신의 아내들을 거느렸고 그녀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세워주었는데, 결국 그도 그들의 우상에 예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매우 근엄한 경고가 담겨있다. 솔로몬의 통치는 아주 좋은 측면으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표현한다. 최고의 상태란 사랑으로 진리에 순종하게 됨을 말한다. 그러나 최고의 상태는 그와 더불어 아주 깊은 시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제 완벽하여 어떤 잘못도 범할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자신이 아주 넓고 깊은 사랑을 지녔다며 교만해지는 시험이다. 이러한 착각은 자신 속의 선한 것 말고는 누구의 것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유도한다. 결국 악이 아주 매력적인 형태로 다가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덥석 끌어안고서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정에는 여전히 선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남아 있는데, 유다가 솔로몬의 계보에 따르고 성전에서의 정기적인 예배를 계속 지키는 모습이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성이다. 세상이 선한 행위라고 여기는 외적 친절함을 잘 베푸는 사람이 선한 인격자라고 동의한 우리의 이성은 더욱 깊은 배반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텔과 단에 세워 예루살렘으로 예배 보러 가는 백성을 유인했다는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이성 속에 통치하는 원리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더욱 사악해져만 갔다.

말씀은 위와 같은 상태에 대한 경고들로 가득하다. 우리의 의도가 선했다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정작 말씀을 받는 장소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삶의 세 평면 중 생각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쪽의 반역적인 이스라엘 왕국에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아와 엘리사가 보내진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5321-5항에서는 “엘리아와 엘리사는 말씀이란 측면에서 모두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설명된다. 스웨덴북의 저서에는 이 두 예언자가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사람의 상이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두 예언자들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엘리사에게 엘리아의 권능의 두 배가 더해졌다 함은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엘리아보다 주님의 현존이 더 드러나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 속에 든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으로 입증하면서 진보할 때 그 권능이 두 배가 됨을 의미한다.

앞서 우리는 겉옷이 외부적인 진리들을 상징함을 배웠다. 이는 우리의 언어가 생각의 옷이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겉옷은 언어와 비슷한 것이다. 밖에 드러나 있어 눈으로 확인되는 진리를 외부적인 진리라고 한다. 예언자의 겉옷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궁극에 있는 말씀(the Word in ultimates)”을 의미한다. 이것이 궁극이라고 말해지는 까닭은 이곳에서 말씀의 권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설명」 395-4항에는 엘리아의 겉옷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뒤의 인용문헌에도 그 일부를 게재하였다. 요르단 강은 우리를 교회로 입문하게 하는 첫 번째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둘둘 말아진 겉옷 곧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얻게 되는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강물을 가르도록 하는 권능을 갖게 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각되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요르단 강을 가르기는커녕 그 물에 휩쓸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거짓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천국의 신비」 제 4255-4항에서 요르단 강의 물을 가르다 함은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이와 비슷한 기적은 과거 여호수아 시절에 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 이유는 궤가 계명을 표현하고 계명이 말씀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엘리아는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걸쳐 주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아가 떨어트린 겉옷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엘리아로부터 엘리사에게 말씀을 표현함이 옮겨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영검의 두 뿔을 요구했다. 새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한 지식을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된 사람들은 엘리아로부터 엘리사로의 변천을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글자만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려 애썼던 이들이 상응에 관한

새교회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면, 본문의 엘리사의 경험은 그들에게 참으로 실재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엘리사에게는 그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면 그의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졌다. 엘리사는 먼저 자신과 엘리야 사이를 갈라놓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다. 즉, 엘리사의 눈은 천국에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보도록 열려졌다는 의미이다. 불수레란 말씀으로부터 온 사랑과 선행의 교리를 상징하고, 불말은 그 교리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의 교리를 상징한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된다. 즉, 우리가 말씀의 글자들 안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관한 변함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천국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될 때 말씀은 우리의 이성 속에서 회오리바람에 휩싸이듯 들려진다는 것이다. 글자 곧 엘리야의 겉옷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제 두 배의 권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엘리사의 경험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우리가 상응의 빛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과거 우리에게 희미하거나 의미 없이 여겨졌던 구절들까지도 빛을 발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 효력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에 담겨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이해성을 가질 때 그리고 특히 말씀의 권능을 인식할 때가 그러하다.

예리고의 샘물을 정하게 한 사건의 의미는 「천국의 신비」 제 9325-9항과 10항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요르단 강에 가까이 위치한 예리고란 말씀의 글자에 관한 외부적이고 자연적인 가르침을 상징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응용할 의사가 없다면, 그 진리는 쓰게 느껴져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새 그릇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며, 소금은 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을 의미한다.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샘이라 함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간속의 자연성을 표현한다. 이 자연성이 소금으로 인해, 즉 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의미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구절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19절에서 “물이 나빠서”가 그에 대한 예이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는 우리의 새로운 이해성과 더불어 오게 되는 추가된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된다. 우리가 배운 것을 응용하려는 바램을 갖는다면, 새 이해성으로 읽은 말씀의 때 구절들은 우리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위의 효과라는 단어에 대한 실례가 본문의 마지막 사건에서 발견된다. 예언자의 직무는 한마디로 악을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짜의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에서의 처벌 역시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부분 역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만을 토대로 이해하게 되면 말씀의 목적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우리는 엘리사가 말씀을 상징하고 그의 머리털이 말씀의 글자를 상징함을 인식할 때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엘리사를 놀리는 것은 말씀의 글자에 무슨 권능이 있겠는가라고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어린이란 언제나 시작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문단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들을 가볍게 대하려고 시작하는 위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가 생각 없이 말씀을 경시했다하더라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말씀을 장난말의 소재로 삼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건너뛰고 읽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처벌은 숲에서 나온 곰에 의해 찢겨 죽는 것이었다. 곰이란 말씀을 읽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 대해 가져야 할 존경심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발산되는 모든 것을 단지 인간적인 산물로서 귀결하는 논쟁이나 설득력 있는 추론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멸이다. 그 이유는 “말씀의 모든 권능과 신성함은 글자적인 의미에 집합되어 그곳을 근거지로 삼기 때문이다. 이 글자의 뜻 없이 말씀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기초 없는 집과 같이 바람에 흔들려 무너져서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는가?
- 4)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진 두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엘리야의 직무가 끝나자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는가?
- 6)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 7)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8)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9)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엘리사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 11) 어린이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놀렸는가?

- 12) 그 말이 그토록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린이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 14) 분단된 왕국의 두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예언자의 겹옷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엘리야와 엘리사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둘로 나뉘었다 2) 이스라엘, 유다 3) 유다 4) 엘리야, 엘리사 5) 두 배의 영검 6) 만일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가능하다 7) 불말과 불수레 8) 그의 겹옷 9) 겹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보고 10) 물을 정하게 했다 11) 대머리라고 12) 불손함의 표시 13) 곰이 찢어 죽었다 14) 지성, 심정 15) 말씀의 글자 16) 엘리야 - 순종함에서 말씀을 공부함  
엘리사 - 내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말씀을 공부함

## 20

### 요 시 아 왕

#### 머리말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사악한 왕들이 유다왕국에 잇달아 출현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되고 우상이 범람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꾀한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게 유다왕국까지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3장까지 읽어두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서본문: 열왕기하 22장

22장: 1. 요시아는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시갓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여디다라 하였다. 2.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3. 요시아 제십 팔 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4. “대성직자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 내어 5. 야훼의 전 공사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7.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 8. 대성직자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9.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쏟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성직자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11.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12. 그리고는 대성직자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공보대신 사반과 시중 아시아에게 명하였다. 13. “이번에 찾아 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쭙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14. 대성직자 힐키야와 아히감, 악볼, 사반, 아시아는 여예언자 홀다를 찾아 갔다. 홀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십시오. 16.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 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17.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8.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아훤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 들었다. 19. 이곳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 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20.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장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와 이 말을 어전에 아뢰었다.

### 교리 요점

- \*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생존해 있기 위해서는 이해성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
- \* 우리가 세상적인 사상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오도록 방지하면,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속을 서서히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 \*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 \* 우리가 우리 속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고쳐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상응 연구

아시리아(나쁜 의미에서) = 거짓 추론

### 해설

앞서 우리는 히즈키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그가 선왕이었다는 것, 그의 병과 치료, 예언자 이사야와의 대화 그리고 바빌론 사절단에게 왕국의 보물을 보여주는 우쭐댐으로 드러났던 그의 약점 등에 관한 것이다. 므나쎄와 아몬은 히즈키야의 아들과 손자였지만 악한 왕들이 되어서 바알의 우상과 제단을 다시 세웠고 성전 내에까지도 우상을 세웠다. 아몬은 2년 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의 집에서 그의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

요시아는 겨우 여덟 살 때 왕위에 올랐다. 역대기하서 34장 33절에는 “왕위에 오른 지 팔 년째 되던 해 아직 나이 어린 몸으로 그는 태조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여 십 이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치워 없애 버리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가 통치 십팔 년째에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이다. 요시아 왕 외의 선한 왕들도 성전을 깨끗이 하고 보수했지만, 우상숭배가 다시 일어설 때 성전은 이내 오염되고 황폐해지고 말았다. 성전이란 우리 삶의 질에 대한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심정과 이해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되어지는 진정한 천국적인 인격 곧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법을 속속들이 행할 때의 인격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즉 다른 동기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제치고 우리 삶을 통치하도록 허용될 때 우리 안의 천국적인 인격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성전의 벽 곧 우리 인격의 벽을 형성했던 진리들은 헐어 내려지고 온갖 종류의 무가치한 사상들이 헐어진 벽을 넘어와 우리 속 성전을 기어 다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폭 빠져든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정신 차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단 한 조각의 진리라도 정성스럽게 수집해야 한다. 이는 본문 4절의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자랑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기쁘고 성실하게 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성전이 보수되는 동안 율법 책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율법이 완성된 때부터 궤 옆에 놓여 있었던 모세 오경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책에 포함된 두루마리였을 것이다(신명기 31:24-26). 그러나 소중히 보관되어야 할 이 책들은 잘못 놓여져 있었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잡동사니에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깨끗하게 보수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율법 책”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만이 선한 삶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즉,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이 천국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전율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은 우리가 배웠던 진리들이 “잃어버린 진리가 되어 있어서 심히 통곡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운 진리들 중 삶에 응용하지 않는 진리들은 잃어버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요시아는 과거의 히즈키야보다 더 철저히 개혁을 단행했다. 즉, 그는 우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상수리나무와 산당, 게다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 놓은 우상들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까지 철거하여 여로보암의 시대 때 그 제단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켰다(열왕기상 13:1-2).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허문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만으로도 삶의 발전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상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부서지게 됨을 뜻한다.

요시아는 발견된 율법 책이 들려주는 저주에 벌벌 떨었다. 그 이유는 그의 나라와 백성들이 추구했어야 할 진정한 길과 주님을 포기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신명기 28:15-68). 그는 여예언자 홀다에게 그의 나라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를 물어 보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예언은 성취될 것이나 요시아가 겸손하고 의로웠으므로 그의 시대에는 나라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피할 수 없기를 원한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결코 그 결과를 비켜갈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잘못된 결과 속에서도 순수하고 겸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과응보에 따른 다는 것이다. 이런 교훈은 히즈키야나 요시아 왕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악의 결과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악들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더 나은 것을 행하고 최소한의 천국적인 인격을 만들려는 노력의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던 시절의 우리로 환원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잘못된 결과에서 과거의 자신에게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요시아와 같이 과감히 개혁을 시도한 왕도 백성들을 그들의 죄 속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의 악의 결과가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상황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차후에 올바른 행위를 이루기가 더욱 힘들어짐을 늘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는 요시아가 들은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법이 적힌 책에 의해 판결된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그 책들을 겸손한 자세로 읽고, 자신이 얼마나 그곳에서 멀어졌는가를 인식하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속을 깨끗이 하고 인격속의 파괴된 부분을 보수해야 할 것이다.

요시아는 성전의 정화와 보수의 최정점으로 과월절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과월절은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악과 거짓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이 백성들에게는 매해 지정된 날에 그 절기를 준수하도록 엄히 명령되어 있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는 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해주는 능력과 이에 따라오게 되는 평화와 기쁨을 되새기는 경험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본문의 백성들은 주님을 포기한

지 오래되어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역시 소홀히 여겨졌고, 요시아의 시대와 같은 개혁의 시기에만 간간히 지켜졌을 뿐이다. 사실 우리들의 경우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자만심의 상태에서 근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빛진 자임을 실감하는 경험으로부터는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회에서는 과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성만찬은 요시아의 개혁이 상징하는 자기 검증과 회개라는 작업에 해당된다.

히브리국가의 종말은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의 일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 되었던 고대 히브리국가가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집트가 유다왕국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출동했을 때 요시아가 죽었다는 대목을 접하게 된다(열왕기하 23:29). 이는 오랜 습관으로 이해성의 자연적인 평면상에 고착된 악들은 원상태로 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나라의 왕위는 요시아의 아들인 요하네하즈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그는 불과 석 달만 통치한 후 이집트 왕에 의해 밀려나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집트 왕은 다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아킴을 내세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 여호아킴 때에 바빌론의 유다 침공이 시작되었는데, 여호아킴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했다. 여호야긴과 왕궁내의 대부분 사람들도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운 사람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시드키야로 개명되고 말았다. 그리고 시드키야가 반역하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이들을 끌고 가되 극빈자만 남겨두어 땅을 경작하도록 했다. 포로가 된지 칠십 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흡수했을 때, “주님께서 고레스의 심정을 흔들어서” 포로가 된 백성에게 귀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 후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어 거룩한 땅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두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따랐는가?
- 2)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한결같이 악했는가?
- 3)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 5) 그의 치적의 첫 사업은 무엇인가?

- 6) 그는 성전 수리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 7)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 8) 그 책이 요시아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 9) 그는 주님께 여쭙 보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10)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11)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
- 12)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어떤 것을 요시아 왕이 철거했는가?
- 13) 나라에 질서가 잡히자 그는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가?
- 14)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는가?
- 15) 그가 죽은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6)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유다왕국에서 가끔 선한 왕들이 즉위했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이스라엘이 망하자 유다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유다 2) 아니다 3) 요시아 4) 8 5) 성전수리 6) 백성의 헌금으로 7) 율법책
- 8) 옷을 찢었다 9) 여 예언자 홀다 10)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요시아 시대에는 그 벌이 없으리라 11)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했다 12) 베렐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13) 과월절
- 14)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15) 바빌론에 정복당함 16) 이스라엘 - 지성, 생각 유다 - 심정, 느낌 17) 우리의 인격 18) 심정이 재구성과 회개의 때를 가끔 가지게 됨
- 19) 생각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포로가 될 때, 심정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없다

## 21

### 주님께 의지하는 자

## 머리말

성경에서 시편은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놓여 있다.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늘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 성 서 본 문 : 시편 91편

1.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
2. 야훼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이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3.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덧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4.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5.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6. 밤중에 퍼지는 염병도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7. 네 왼쪽에 천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 천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8.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 값을 네가 보리라.

9.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10.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11.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12. 행여 너 돌뿌리에 밧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맡고 가리라,
13.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 14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 15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 주고 높여 주리라.
- 16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신다.
- \* 시편서는 새교회의 정경에 속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 누군가의 마음이 이타적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계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

### 상응 연구

- \* 낮 = 이해하는 상태
- \* 밤 = 무지의 상태
- \* 갑옷, 방패 = 거짓에서의 보호
- \* 돌 = 진리 혹은 거짓

## 해설

시편이 예베에 애용되어 온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시편은 노래들로서 음악은 우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편은 주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스스로 잘 찾지 못하는 우리 속의 깊은 느낌이나 생각 곧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한다는 것, 즉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가장 큰 특전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시편은 가장 깊은 의미상으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통과해 가신 많은 내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시편은 모든 거듭나는 인격의 영적인 상태들을 상응을 통해서 보여준다.

시편서는 의로운 자와 무신론자간의 대비로 시작된다. 의로운 자가 그의 주변에 항상 붙어 다니다시피 하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습격당할 때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시편 제1편에서 강조된다. 시편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편이 표현하는 것은 주님을 당당하게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스스로 체험한 결과이다.

시편 91편은 시편들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암송 되어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으로 인해서 긍지와 위로를 얻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시편을 읽으면 주님과 천사가 자신에게 가까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에 이 시편이 중점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우리가 질병이나 사별 같은 것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결론짓는 경우가 많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탓에 치료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5-7절에서 악마가 본문의 시편(12절)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하려는 것을 읽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악마에게 주신 답에서 그분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계심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새교회의 교리는 말씀의 모든 구절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험들이란 모두 영적인 위험들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체에 오게 되는 고통들을 허용하신다.

스웨덴북은 예언서와 시편의 내적 의미를 요약하면서 주님의 영화하시는 과정의 상태와 관련지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1절: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찬양하여 노래함.

2-6절: 이렇게 하여 적의 공격에서 보호가 있어 진다.

7-9절: 이리므로 지옥의 출현이 없게 될 것이다.

10절: 교회를 공격하는 지옥의 출현도 없게 될 것이다.

11-12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분을 섬기게 된다.

13-16절: 신성이 인성과 하나를 이루면 지옥의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못한다.

사실 위의 요약으로 우리 삶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이 시편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얼마간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편은 그의 저서 곳곳에 무려 22번이나 인용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보충되어 진다. 예를 들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는 우리가 이미 아는 진리로 덮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과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이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과 거짓들이라는 의미이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란 공개적으로 가르쳐진 거짓(논쟁)이며, 이로 인해 선이 파괴되어 짐을 의미한다.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이란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악들로 인해 진리가 파괴됨을 의미하며, ‘밤중에 퍼지는 염병’이란 우리도 모르게 황폐해지게 하는 악을 뜻한다.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은 드러난 채로, 즉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황폐를 자초하게 하는 악들을 말한다. 교회 속의 진리들을 황폐하게 하는 모든 거짓들을 파괴함이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로 표현되고 있고, 교회 속의 선을 황폐하게 하는 모든 거짓들을 파괴함이 ‘사자새끼와 뱀을 짓이기리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는 시험이 날마다 연속된다는 것과 이러한 시험들이 지옥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들 중 일부를 진정한 인격으로 거둬내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낮에” 또는 “한낮에” 오게 된다고 하는 위험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지 못해 즉시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시험들도 있다. 이것들이 “밤에” 또는 “한밤중에”오는 위험들이다. 설령 우리가 선한 인격이 되겠다고 수십 번

스스로 다짐했는지라도, 우리는 금방 “낮에”오는 시험에 걸려들고 만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의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의 가죽을 덮어 쓴 늑대같이 변장하고 달려드는 악과 거짓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의 시편은 주님의 도움이 언제나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고집대로 벌려 놓은 일이 곤란을 초래했을 때 주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삭빠르게 상상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이루어질법한 소원사항이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본 시편의 구절구절을 진심으로 받아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거처는 우리가 우리 안의 자연적인 생각이나 경향성에 따라 살게 될 때는 절대로 거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죽을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여 신뢰하는 날개란 영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이 진리가 우리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그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열어 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안전과 보호라는 단어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4096항에는 “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선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든다. 이 흘러들은 인간과 함께 하는 천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의 지식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 보겠다고 할 때 선한 양심이나 의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 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삶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선의 힘이 진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스웨덴북은 “선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즉,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우리 속에 든 선의지의 품질이 결정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 질문 정리

1) 본과에서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시편은 무엇인가?
- 3) 우리는 시편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 4) 왜 모든 이는 시편을 사랑하는가?
- 5) 주님께서서는 시편 91편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 6) 본 시편은 위험을 어떻게 둘로 분류했는가?
- 7)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위험을 말씀하고 계신가?
- 8) 주님께서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9)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 10)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11) 낮에 있는 위험과 밤에 있는 위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시편 2) 노래 3) 누가복음 24:44 4) 심정에 호소하므로
- 5) 보호 6) 밤과 낮 7) 아니다 8)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 9) 우리를 돌볼 것이다 10) 나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사용
- 11) 낮 - 결과를 예상하면서 있어진 악  
밤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진 잘못

## 22

### 성전에서 솟는 샘

#### 머리말

에제키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대 예언서의 일반적 요점을 소개한다.

## 성서 본문 : 에제키엘 47장 1-12절

47장: 1.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뺨은 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2.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 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3.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4.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5.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6.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7. 되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8.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9.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10.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11. 그러나 수령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12.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 교리 요점

- \* 모든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 \* 말씀은 깊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되 말씀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 \* 선한 일 안에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상응 연구

- 측량줄 = 교회의 상태를 재보는 능력
- 남쪽 = 영적 총명
- 북쪽 = 영적 회미함
- 그물 = 지침이 되는 수단

### 해설

본 장에서 언급되는 한정된 부분만으로는 예언서 전체를 언급하기 곤란하다.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시편이나 예언서의 경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예언서가 이사야나 에제키엘과 같은 개개인의 상상적인 창작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예언자 스스로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말씀 속의 많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 주셨다” 또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말한다”와 같은 표현들을 읽게 된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예언서들의 곳곳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8절에는 그 의미가 열려 있어 더욱 명백한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깊은 감동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언서들의 글자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북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시편과 예언서의 경우는 그의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미완성된 작품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그의 저술에서 예언서의 인용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알려고 노력하면 인간적인 상상이나 추측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예언서에 담긴 영적 의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선택된 본문 역시 매우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글자에서도 알 수 있다. 본문은 에제키엘의 포로생활 25년 동안 그에게 주어진 환상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그는 성직자로서 유다의 왕 여호야킴과 더불어 맨 먼저 바빌론으로 끌려 온 사람들 중 하나였다. 마지막 환상 속에서 에제키엘의 영은 거룩한 땅으로 옮겨져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아졌다. 그는 그 산 위에 남쪽으로 성 만큼 큰 건물이 하나 서 있음을 보았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용모는 뿔쇠같이 빛나고 손에 노끈과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에제키엘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측량했다. 제 40-46장은 열왕기하에서의 솔로몬의 성전 모습을 더욱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성전은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또는 주님을 예배함에 중심을 두면서 계명에 순종하는 진정한 영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그리고 물은 진리를 상징한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본문 1절에서의 “성전 오른쪽” 또는 “제단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진리에 대한 묘사라는 것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총명한 상태가 되도록 해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공부할 때만이 신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며 선한 사람의 이해성 안에 있는 말씀의 지식 안으로 신성한 진리가 유입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의 열 두절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와 선의 유입과 이러한 유입으로 세 천국의 천사들과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신성한 선과 진리로부터 총명과 선행을 갖는다.”라고 요약한다.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우리의 “강”은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거둬남을 발전시켜 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든 더 깊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29항에서는 발목이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무릎은 영적이며 자연적인 것을 그리고 허리는 진리와 선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혼의 발전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해석과 유사하다. 즉,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상태란 진리를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평화롭고 슬기로운 상태로서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최고 정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말씀 속의 진리의 깊이가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과 달라져 말씀의 내용을 밝히 알게 된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늘어진 나무들이란 말씀을 수단으로 이해된 진정한 원리를 상징한다. 이 나무들의 열매란 이타적인 사랑에서 행해진 선한 일로서, 그 열매는 순수하고 계속해서 생산됨을 의미한다. 이 나무의 잎이란 영적으로 합리적인 사상들을 상징하는 바, 이 사상들이 우리 속의 악함이나 악들을 끄집어 내 보여주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강 속의 물고기들은 우리 속의 자연적인 지식들인데, 이 지식들은 주님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에 관련되어질 때 합당하게 쓰여져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이상과 같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풍경은 우리가 가진 영적 확고한 가능성에 대한 묘사를 에제키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그분께서 재림을 통해서 밝혀주신 수단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공부해간다면, 우리는 우리 경험들의 모든 부분들이 생명이 있게 되고 축복만을 가져옴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 발달을 늦추게 하는 유일한 한계성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각 속에 존재한다. 수렁이나 웅덩이는 계속 생명 없이 있게 되고 여전히 “잔물로 남아 있게 된다.” 우리는 늘 빠뜨려져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느낌들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으려는 태도는 진리의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편에서는 “강물의 즐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그 한가운데서 하느님이 계시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강은 에제키엘의 환상 속의 강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과도 같은 것으로서, 즉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마른 사람은 오라.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라.”라고 말씀하신다.

## 질문 정리

- 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 3) 천사는 무엇을 맨 먼저 측량했는가?
- 4) 에제키엘이 알고 있는 성전 내용 중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5) 천사가 강을 측량할 때 얼마큼씩 멀리 측량했는가?
- 6) 에제키엘로 하여금 건너가보도록 허용된 세 가지 깊이는 무엇인가?
- 7) 마지막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가?
- 8)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9) 강가에 누가 서 있었는가?
- 10) 강물이 닿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 11) 살아있게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 12) 이런 장소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 13) 나뭇잎은 무엇에 쓰였인가?
- 14) 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잎과 열매는 무엇을 그리는가?
- 16) 우리가 항상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예루살렘 3) 성전 4) 물 5) 천 큐빗 6) 발목, 무릎, 허리 7) 머리 너머까지 8) 나무 9) 어부 10) 건강하게 된다 11) 짚물로 13) 치료 14) 말씀 15) 잎 - 좋은 생각, 열매 - 선한 행위 16) 말씀에는 끝없이 많은 지혜가 있다

# 느부갓네살의 꿈

## 머리말

다니엘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서 안에 알맞은 장소를 정해 주셨다. 유다왕국의 함락과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다.

## 성서 본문: 다니엘 제 2장

2장: 1. 느부갓네살왕 제이 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3.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4.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더미로 만들리라. 6.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 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8.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9. 너희가 내 꿈을 알아 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렵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10. 점성가들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11. 임금님께서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12.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재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13. 재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14.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록이 바빌론 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15.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록이 그 사정을 알려 주자 16.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17.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 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18.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재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19. 그 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21.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재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어라.

21.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어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23.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록을 찾아 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록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 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 온 유대인입니다.” 아록의 말을 듣고 26.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나?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나?”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재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라도 밝혀 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28.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31.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2.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33.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들은 산 같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36.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임금께서는 왕이실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38. 하느님께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놋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40.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십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마는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용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42.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용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43.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용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용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4.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놋쇠와 용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46.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47.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48.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재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 교리 요점

- \*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를 조절한다.
- \* 계시는 예언자들에게 종종 꿈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 \* 겸손함은 선행의 필수 요건이다.

### 상응 연구

철 = 자연적 진리

진흙 = 선함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악으로 전환된 자연적 선

밭 = 우리의 일상 지침

### 해설

다니엘서는 대 예언서들 중 네 번째 책이다. 예언자 다니엘은 유다 왕가의 일원으로서, 바빌론이 처음 유다왕국을 침공하여 공물을 바치도록 하게 한 여호야קים의 통치 때에 아주 젊은 나이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고대 유대 국가는 진정한 교회에 대한 표현적인 존재일 뿐이었고 시간이 흐르자 그마저도 거짓으로 덮여져 결국 표현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 또한 바빌론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지배욕”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주님의 인도를 찾고 그분께 순종함을 중단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인간의 영적인 적중에서도 최후의 적에 해당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스웨덴봄이 「시편과 예언서들」에서 제 1장에 대해 “유대 국가사이에 있는 교회가 파괴되었을 때에 ‘바빌론’은 그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것을 사유화해 버렸다. 애당초 바빌론은 교회속의 모든 것을 알고자 했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원했는데, 이것이 ‘바빌론’의 시작이었다.”라고 서술한 간략한 주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웨덴봄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빌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들」에 있는 의미의 응용이 제 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응용은 제 7장에서

변화를 이루어 교회 시작 초부터 있어 온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 소개되고 나머지 요약부분이 더 확대된 응용으로 이어진다.

다니엘서에 대한 소개인 제 1장은 다니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쓰여 졌다. 그러나 제 2장 4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는’ 부분부터는 갈대아어 또는 아람어로 말하고 쓰기 시작했으며 제 7장까지 갈대아어로 쓰여져 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특성이 비슷하나 히브리어만큼은 다양하지 못하다. 다니엘은 제 8장의 초두부터 주님의 예언자로서 자신의 체험으로 복귀하고, 다시 히브리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여 책의 끝까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일부는 역사적이고 다른 일부는 예언적으로 되었다. 예언적인 부분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대아어로 쓰인 제 2장부터 7장까지로서 벨사살의 축제의 사건과 사자굴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 온 네 짐승의 환상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인 것으로서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제 8장), 다니엘의 기도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한 칠십 년의 예언에 대한 해석(제 9장) 그리고 네 번째 예언적인 환상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 예언적인 환상은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고레스 시대 때 가졌던 환상이다. 제 10장에서는 그에게 주님의 경이로운 모습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유심히 공부해야 할 부분이다. 다니엘의 예언들과 계시록서의 내용들 간의 유사성은 모든 주석가들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이는 주님의 강림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 역시 미리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에서의 주님의 영적 왕국에 연결되는 사건인 기독교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기독교의 사건까지도 암시해주고 있다.

스웨덴북은 본문에 있는 꿈의 해석을 그 형상의 영적 의미와 더불어 그 의미의 일반적인 면과 특수적인 면에서의 응용까지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지배욕이 우리의 마음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성을 보도록 하고 섬뜩 놀라게까지 해준다. 지배욕은 처음에 인식하기가 힘든 것이 그 특징이다. 지배욕을 상징하는 바빌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다의 히즈키야 왕이 바빌론의 사절단을 친구로 영접하여 그들에게 궁내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히즈키야 왕의 행동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빌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북의 저서를 통해 이 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형상은 교회의 역사도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 한 단원을 「요한계시록 설명」 제 411-4항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금으로 된 형상의 머리는 태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천적 교회 또는 주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선이 통치했던 교회이다. 이 교회가 가졌던 선은 말씀가운데서 금 또는 머리로 말해진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 교회로서 태고 교회를 계승했는데, 이 교회는 영적 교회 또는 이웃을 향한 선행에서 나오는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교회의 선은 본문에서 은이나 가슴 또는 팔로 언급되고 있다.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고대의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는 영적이면서 자연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바, 이 교회는 믿음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로 통치된다. 그러나 쇠와 진흙으로 된 다리와 발은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들은 내용물은 없고 형체만 가진 교회로서 그 안에는 선과 진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 자체가 거짓인 왜곡된 진리와 그 자체가 악인 섞음질 된 선을 의미한다. 이는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철은 자연적인 진리를, 옹기 흙은 자연적인 선을 그리고 발과 다리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 진흙은 간음질 된 선을 상징하며, 철은 말씀의 곁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의미되는 인간의 씨란 선과 진리가 결합됨을 의미하나 본문에서는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이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거짓된 결합인 왜곡과 간음질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형상을 쳐서 부순 돌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진리이다. 이 진리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다함은 주님이 신성한 진리로 천국과 교회를 통치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지배욕은 모든 인류에게 상속되어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욕을 상징하는 바빌론은 말씀 속에서 고대 교회의 극치인 바벨탑으로 처음 등장한다. 우리는 지배욕이라는 악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자라 오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모습으로도 변장하여 자라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 악은 우리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는 교묘한 악임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는 지배욕이라는 악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서를 통해 철저히 배우게 된다. 다니엘의 인격은 바빌론으로 그려지는 상태와 날카롭게 대비를 이루며 굳건히 서 있다. 그는 많은 재능과 높은 교육을 겸비한 유다의 젊은이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지혜가 자신이 잘나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종교 원리에 철저히 의존했다. 그는 위급한 모든 상황의 해결책을 주님께 의지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했고,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몸부림친 이들에게 단 한 번도 분개하거나

쉴새없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 역시 그에게 어떤 나쁜 영향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는 왕들이 교체되고 여러 국가로 변모되는 시대적인 급변기에 살았지만, 삶의 끝까지 부와 권력을 유지했던 인물이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요셉처럼 주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의 전생을 통해 신성한 권능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준 표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요셉과 다니엘은 시편 91편의 말씀인 천사들이 말해주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 있어지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왜 주님은 언제나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계발해 주실 수 있으셨는가?
- 3) 다니엘 당시 누가 통치했는가?
- 4) 이 왕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무엇을 대답하라고 요구했는가?
- 5) 다니엘은 그 대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 6)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
- 7) 이 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
- 9) 그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 10) 어떻게 형상이 파괴되었는가?
- 11) 형상을 부순 돌은 무엇이 되었는가?
- 1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3) 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는가?
- 14) 상을 만든 네 금속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5) 그 상의 발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16) 이 환상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그의 믿음 3) 느부갓네살 4) 왕의 꿈을 재생하고 해석함
- 5) 기도를 통해 6) 큰 상(형상) 7) 금 8) 은, 동, 철 9) 철과 진흙
- 10) 돌 11) 산같이 큰 바위 12) “하느님들의 하느님” 13) 온 지방의 통치자
- 14) 금 - 주님을 사랑, 은 - 믿음, 동 - 자연적인 선함, 철 - 자연적인 진리
- 15) 바깥쪽 삶 16) 지배욕이 자신의 삶에서 발달하도록 허용하는 자는 영적인 과멸을 갖는다

## 24

###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 머리말

우선 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한 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성서본문 : 아모스서 제 8장

8장: 1.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 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제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3. 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 데마다 버려진 시체 투성이가 되리라.”

### 4.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 5.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결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 7.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 8.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오랐다가 잦아들리라.

9.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10. 순례절에도 통곡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면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굵은 베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잃은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11. 나 야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 말리라.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12. 끝내 앙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데만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3.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14. 라빠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회리바람과 함께 살라 버리고,
15.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 야훼의 말씀이시다.

#### 교리 요점

- \*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벌은 우리가 행하는 악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말씀의 목적중의 하나는 우리속의 악들의 해로움을 경고하는 것이다.
- \*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 \* 굶주림이란 선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 상응 연구

바구니 =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의 의지부분  
여름 = 선행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목마름 = 진리를 갈망함  
귀와 듣는 것 = 순종

#### 해설

우리는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서의 끝을 맺고 있는 말라기서까지 이르는 열 두 권의 책들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이 소 예언서들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암송하며, 특별히 요나서의

경우는 대략의 줄거리를 기억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 예언서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면 친숙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책들이 너무 짧아서 각 책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지도 모른다. 많은 학자들이 열 두 권의 책들을 적합하게 배열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오바디아서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이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배열된 순서이며, 연대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순서라고 생각된다. 일부 소 예언서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 배열되었고, 또 다른 일부 책들은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사건을 기초로 하여 그 순서가 판가름되기도 했다. 사실 새교회인들은 위와 같은 책의 순서보다는 그 말씀 속의 의미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그 이유는 내적인 의미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본문인 아모스서는 위의 문제들과 소 예언서들의 의미를 공부함에 있어서 다리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 예언서의 일반적인 방향과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교훈도 알려준다.

아모스는 자신의 신상내력을 그대로 예언서에 드러나도록 한 예언자들 중의 한명이다. 아모스 서 첫 장 첫 절에서는 그가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가 유다의 우찌야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시기에 예언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아모스가 이시야나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그가 전한 말씀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왕국의 백성들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그의 거주지가 베들레헴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그가 유다왕국의 백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7장 14-15절에서 아모스는 자신에 관하여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들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가장 큰 원리를 한시도 너리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의 이해성이나 상상력이 미약하여 영화나 상상력을 동원한 종교 소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이해성을 위한 보약이 되게 하여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인물에 대한 내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에 포함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재림으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한다면, 아주 희미한 이해만이 가능한 예언서의 부분에서도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영적 계발의 계기를 얻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가 바로 본문 초두에 기록된 환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웨덴북의 도움없이 그 구절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 예를 “여름과일, 즉 다 익은 과일, 이 과일은 곧 시들어 떨어진다. 고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 무르익었음을 표현함”이라고 설명된 국제 성서의 주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해석은 한정된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의 글자적인 의미로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인 추리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우리를 위해 「시편과 예언서들」에서 “교회의 새로운 것이 존재 안으로 오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절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련되어 “이전의 것 대신 새로운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 환상을 살펴봐야함을 알 수 있다. 이 절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스웨덴북의 어느 저서에도 첨가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석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상응들을 찾을 수 있다. 즉, 요셉과 빵을 굽는 시종장의 이야기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 바구니란 우리속의 의지 또는 자발적으로 행하려는 부분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또 창세기 8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언약 부분의 주석으로부터 여름이 선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함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상응들을 종합해 보면, 여름과일 한 바구니란 의지가 선행으로 선행 일을 생산하는 새로운 교회를 그려줌을 알 수 있다. 이 진정한 교회와 대조되는 제 4-6절에서의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종말이 피할 수 없었던 원인을 명확히 보도록 해준다.

예언서 전체를 망라하여 악에 대한 탄핵은 그것이 빠르던 늦던 간에 일단은 선한 이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언제나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아모스서 제 9장의 후반부에 이를 때까지 아모스에 의해서 실제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원과 더불어 새로운 교회가 도래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주위 조건이 8장 11-13절에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이 절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있었던 그분의 서술과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 볼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6절이다. 사실 본문의 11절은 영적인 뜻이 글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문단들 중 하나여서 신실한 태도로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에게 그 구절을 통해서 다른 많은 구절들의 의미를 계발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과 물을 길으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 예다. 스웨덴북은 이런 말씀의 경우 우리가 웃을 입고 있으나 드러내 놓고 있는 얼굴이나 손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스웨덴북의 저서에는 아모스서 8장으로부터 인용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국의 신비」 제 3693항에서 본문 제 9절인 “대낮에 해가 꺼지고”와 같은 경우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이들에게 진리가 희미해짐”을 명시한다는 것과 제 4779항에서 본문 10절인 “굽은베를 허리에 걸치고”와 같은 경우는 “자기 속의 선들이 파괴되었음에 심히 통곡함”을 명시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설명」 제 386-11항에서 제 11절에 대한 의미와 「천국의 신비」 제 3923-6항에서 14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언서는 우리의 이해성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주님께서 미리 설비해 두신 수단을 마음에 받아들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예언서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단지 당시의 국가들이나 백성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이해성에 보내는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소 예언서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 7장 25-26절의 “오늘에 이르도록 나의 종 예언자들을 줄곧 보냈지만,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어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못되게 굴고 있다(공동번역).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본 반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2) 왜 우리는 그 책들에 “소”라는 말을 붙이는가?
- 3) 이 책이 쓰여 진 가장 이른 연대는 언제인가?
- 4) 이 책 중 마지막 세 권의 연대는 언제인가?
- 5) 이 책들 중 아모스서는 몇 번째에 들어있는가?
- 6) 그는 언제 살았는가?
- 7)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8)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9) 그는 누구를 향해 예언했는가?
- 10) 본문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 11)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12)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제 11절은 어떤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가?

- 14) 복음서의 팔복 중 몇 번째가 위의 11절과 같은가?
- 15) 이런 굽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12권 2) 짧아서 3) B.C. 800년 4) B.C. 400년 5) 3번째
- 6) 우찌야 시대 (약 B.C. 800년) 7) 드고아 8) 목부
- 9) 이스라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족들 10) 여름과일 한 바구니
- 11) 속이고 훔치고 12) 국가가 망한다 13) 말씀을 듣지 못함 14) 4번째
- 15) 심정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듣기 위해 지성을 열면 된다.

## 25

### 강림에 대한 예언

머리말

성경의 두 부분과 단어 「Testament, 성약」의 의미를 설명한다.

### 성서본문: 말라기서 3장 (개역 3,4장)

3장: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터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뿔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뽀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기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6. 나는 야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7.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까?”하고 묻는다. 8.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9.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공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1.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2.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못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3.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14.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배웃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15.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것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은가!’ 16.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잊지 않으리라.

17.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 주리라. 18.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19.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 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21.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채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2.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23.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24.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의 오심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져 있다.
- \*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만을 말했다.
- \* 자신의 지혜를 신뢰함은 신앙과는 정반대이다.
- \* 선한 자는 언제나 구원될 것이다.

### 상응 연구

태양 = 주님, 신성한 사랑, 주님을 사랑함  
 날개 = 영적 진리  
 송아지 = 외면의 선(실생활에서의 선)

### 해설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사건을 상기해보면, 코라와 250명의 회중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질투하면서 성막 문간에 그들의 향을 바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추켜 세우려는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미움으로 돌변하는가를 묘사한다. 「천국과 지옥」 제 570항에서는 “지옥은 자아와 세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욕망도 해당된다. 욕망이란 꺼지지 않는 열정인데, 이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옥의 불 역시 기쁨을 주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고 열망하는 것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을 스스로 기쁨으로써 인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 기뻐하는 것은 이 밖의 다른 것으로부터는 근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불은 욕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쁨이며, 이것의 근원은 자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악들은 타인을 경멸하고 증오한다. 또한 자신을 높여주지 않는 이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시기하며 미워하고 복수심으로 불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흥폭함과 잔인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랑들은 신성한 것들에 관해서도 부정적임과 동시에 경멸하고 조롱하는 바, 교회속의 모든 거룩한 것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그리고 죽은 후 영이 될 때 이 악들은 인간 안에서 거룩한 것에 대항하는 분노와 미움으로 된다.”라고 서술된다. 말라기 3장 19절(구번역 4:1)은 위의 해석에 대한 증거로 인용되는 구절들 중 하나다.

말라기 시대 때에 위와 같이 영적으로 파괴적인 자아사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음은 본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5-15절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항하여 있어야 할 백성들의 임무들로 명백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로부터 수백 년 후 주님께서 계셨을 때의 그들의 상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말라기와 그 이전의 두 예언서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의 예언들이다. 세 권의 책들 중 가장 앞에 놓인 하깨서는 귀환 후 이십 년이 채 되기 전의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 때부터 백성들은 이미 성전의 재건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그 땅에 있던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의 백성들과의 결혼도 거침없이 하던 실정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과거 쓰라리게 당한 체험에 의거한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특사로 등장할 때까지 어느 예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던 것이다. 종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본문의 14절에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라고 잘 요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 때에 선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제 16절은 악의 세력이 다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선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제 17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약속은 주님을 진실로 흠모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음성이 없었던 사 백년 동안에도 이러한 소수의 선한 사람들이 꾸준히 악에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복의 저서로부터 교회와 황폐해질 때 주님께서 늘 새교회를 지으실 그루터기에 해당되는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보존하셨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사야 17장 6절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하여도 올리브를 떨고 나서 끝가지에 두세 알, 열가지에 네댓 알 남아 있듯 하리라.”라는 말씀이다. 오랜 시기동안 예언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예증을 누가복음 2장 25-38절의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말라기 3장 19-20절에서 주님의 오심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있어질 결과를 소멸하는 불과 떠오르는 태양으로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태양을 환영하지 않는 이들은 자연적이든 영적 차원이든 간에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자들인 것이다. 모든 선한 이들은 태양의 밝음과 따뜻함을 환영한다. 그래서 정의의 태양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게 된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283-9항에서는 정의의 태양이란 천적인 신성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날개는 영적인 차원에서 있는 신성 또는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사랑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 온 여타 진리들을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넓은 의미에서 날개란 우리 생각을 세상적인 평면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주는 영적인 진리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들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관계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로 상징되는 진리는 수많은 고뇌와 한계성에서 우리의 지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안목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외양간의 소가 풀려 뛰어나오듯이 된다”고 본문에서 묘사되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은 바깥으로 뻗는 우리의 애착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21-22절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애착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계명에 따른 삶을 즐겁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차후의 공부 과정에서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서와 더불어 우리의 구약 성서 과정은 일단락 짓게 된다. 그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유의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마지막 절이 “자식 또는 자녀”로 번역되어 있으나, 그것을 직역하면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와 같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진리를 표현한다는 영적인 해석에 원어인 히브리어의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724항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가운데 항상 자녀라는 단어 대신 아들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 구절로부터 결말 되는 것은 ‘어른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아들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린다’는 것이 영적인 선이 진리와 결합하거나 진리가 선들과의 결합을 촉진시킴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에 의해 거듭남이 있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거듭남은 선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선이 결합될 때 있어지며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태양이심과 신체적인 눈 속에 백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에 갑자기 노출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는 바대로 강림시 주님의 목적중의 하나는 “눈먼 자를 보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선한 단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는데, 이는 말씀속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지도자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덮어놓아 그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라는 엄청난 진리의 빛이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강하게 비추었다면 그들의 영혼은 자포자기하거나 자기파멸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특사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언제 예언되었는가?
- 3) 세 권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은 누가 예언했는가?
- 4) 말라기란 무슨 뜻인가?
- 5)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6) 말라기는 어떤 큰 예언을 하고 있는가?
- 7) 그는 그분의 오심이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 8) 그분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9) 그분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10)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진다고 했는가?
- 11) 주님의 오심은 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했는가?
- 12)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 때까지 왜 예언자가 보내지지 않았는가?
- 13) 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했는가?

#### 질문의 답

- 1) 12 2)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3) 말라기 4) 나의 특사
- 5) 십일조 법에 불순종함 6) 주님의 오심 7) 정의의 태양
- 8) 그들을 짓밟으리라 9) 그들을 치료해 주리라 10) 엘리야
- 11)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기 때문 12)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
- 13) 주님의 진리가 갑자기 들이닥친 결과로 자아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

## 26

### 세례자 요한의 출생

#### 머리말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배경의 설명을 추가해 왔으나 신약 성서의 공부에서는 하나의 지리적인 배경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였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바다, 가파르나움, 요르단강 건너지역 그리고 예리고의 지도상 위치를 기억해둔다. 본문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나 주님의 탄생이 성탄절 공부에서 다뤄지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와의 연결점을 강조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장

1장: 1.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3.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게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성직자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8. 어느 날 즈가리야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성직자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9. 성직자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야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10. 안에서 즈가리야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12. 이것을 본 즈가리야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16.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 올 것이다. 17.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18.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야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말하자 19.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일러 주었는데 20.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22.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야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병어리가 된 즈가리야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시늉만 할 뿐이었다. 23. 즈가리야는 성직자 당번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 왔다.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 앉아 있으면서 25.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 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야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 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29.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31.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33.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34.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자 35.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 39.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 가서 40.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42.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4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44.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46.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8.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50.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1.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3.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4.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였다. 61.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며 62.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64.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아기 아버지 즈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68.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 와 해방시키셨으며,

69.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시어 75.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76.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77.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79.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80.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다.
- \* 신약성서 안에 구약 성서가 꾸준히 인용되어 신약과 구약이 함께 묶여져 있으므로, 그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에 관한 조그만 지식까지도 흠모한다.
- \* 우리속의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만든다.

### 상응 연구

병어리 = 드러내 놓고 주님을 믿지 못함  
 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삶을 정화 함

### 해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그 때의 교회는 심히 황폐해져서 그 속에는 어떤 선이나 진리도 남아 있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그 시기는 “힘이 정의다”라는 것이 교리였던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때이다. 그리고 그때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말씀을 “어떤 효과”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후였다. 물론 말씀이 읽혀지고 예배도 그들의 전통적인 예식에 따라 성전에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종교의 목적이 이미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서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황량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예언을 흠모하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갈망한 선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본보기가 바로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인데, “이 부부는 함께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목자와 사도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방국가인 교회 밖에서도 자신들이 어둠속에 갇혀 있음을 알고 빛을 갈망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본문 68-79절에 있는 즈가리아의 노래는 주님의 자비가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 온 주님의 영화로우심이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스웨덴본은 위 구절에 있는 주님의 찾으심 곧 방문이 심판에 앞서 있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그 진정한 속성에 대한 조사를 뜻하며 여기서의 어둠은 악으로부터 있게 되는 거짓과 무지에서 오는 거짓 모두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여기서의 어둠속의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진리의 빛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아마 전 세계를 뒤덮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왜곡시켜 다른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왜곡된 진리, 즉 거짓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15).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들이었다. 즈가리아는 아비아조에 속하는 성직자의 일원이었다. 아론의 가문은 24조로 나뉘어 성전 예배를 교대로 봉사했었다(역대기상 24:1-19).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성직자들은 그들의 당번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누가복음 1:23). 특별히 즈가리아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298항에서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나타나되 분향 제단 오른쪽에 나타난 이유는 천사나 사람에게 관련지어 볼 때 오른쪽이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을 근거로 하여 갖게 된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스웨덴본은 말씀 안의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라파엘은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의 사회를 뜻하며 그 사회의 특별한 기능에 따라 이러한 이름들로

불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특별히 가브리엘은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이들의 선교, 즉 여호와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입으신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신성임을 선포하는 이들이다”라고 강조한다.

누가복음서는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완전한 주님의 생애에 관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고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복음서만이 주님의 승천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기적들은 신약과 구약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며 사 백여년의 공백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고, 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준비를 갖추도록 그분에 앞서 보내졌다. 이는 세례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하거나 표현하고,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께 의해 거듭남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를 통한 것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천상천하의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계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나 예루살렘에서 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지도 못하셨을 것이다. 더욱이 주님께서 그 속에 거짓뿐인 국가나 그 나라의 교리 가운데로 현존하셨다면, 그들이 가진 전부인 거짓이 신성 자체를 직접 대면하게 되어 그들의 파괴가 초래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서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로 의미되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즈카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한 스스로도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변모를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뒤 세례자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이었음을 밝혀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밀접한 연관성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구약 성서의 전체가 주님 생애에 관한 예언에 해당되며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예언들이 실체화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당신은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법과 모든 예언들이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임을 명백히 해주시기도 했다.

즈카리아가 병어리가 된 사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상응을 제시해 준다. 그 이유는 속어 중에

있는 “병어리”의 의미가 상응으로 표현되는 병어리란 뜻에서 파생된 것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어리란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관용어에서 무지함 또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어떤 대상에 대한 무지 또는 총명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어리란 지식 그리고 이해성과 더불어 확신의 결핍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웨덴북은 병어리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병어리는 무지로 인해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로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이들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에 있는 국가가 교회 밖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단순한 이들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주님에 의해 베풀어진 기적들은 그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원되는 인류나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주님에 의해 병어리가 치료됨은 병어리 된 자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거짓으로부터 해방됨을 상징한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 관해 시편(135:16)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35:6)에서 주님의 나라가 오에 관하여 “그 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병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썸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라고 예언되었다. 사막과 황무지란 강림 시에 처한 교회의 상태를 그리는데, 이런 이유로 요한이 광야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다. 또한 썸이 터지고 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진리를 상징한다. 누가복음은 “천사의 예언에 따라 요한이 태어나고 아기 이름을 요한 곧 그 이름의 의미인 ‘주님은 놀라운 자비이시다’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에 즈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전한다. **주님에 대해 무지함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이해성의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가 진실로 영적으로 “병어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중에 그분을 밝히신 대로 그분을 익히며 배워 획득한 지식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까지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주님 시대의 선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 위에 덮어놓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능력을 요한에게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얹혀져야 할 옳고 그름의 근본이

되는 새로운 원리들이 요한을 통해 명백히 알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과 거짓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주님을 인식할 준비가 갖추어져 그분을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밝혀 주시는 더 깊은 진리들을 경청할 준비도 갖추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에 겸손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의 길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로 상징되고 있다.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구성의 시기를 의미하며,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 외적 생활을 질서 안에 정착시킴을 표현한다. 이렇게 삶을 질서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거룩한 땅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이란 내적인 성취와 행복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이 외친 모든 것은 외적인 삶을 재구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선에 관한 측면에서 말씀의 글자가 주는 진리를 표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영원히 생생한 진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계셔 언제나 들어오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을 치워냄으로서 주님의 영을 위한 길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본문은 말라기서에 있는 두 예언들의 성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즉, 천사 가브리엘이 즈가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 마리아에게 사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전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기뻐 뛰놀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뤄지게 된 천사의 약속에 대한 신성한 확증을 갖게 되었고, 즈가리아와 마리아의 찬양이 있게 된 것이다.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출생하여 공적인 선교역시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분의 진실한 정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했는데, 이 선포는 하늘로부터의 소리와 표증에 의해 즉각적으로 확증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가 있어지자 요한의 선교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는 스스로 “그분은 더욱 커져서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증언했다(요한복음 3:30). 그는 주님의 공생애 2년째 되던 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3년째 되던 해 초에 사형되었다.

## 질문 정리

- 1)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
- 2) 말라기는 어떤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가?
- 3) 말라기는 어떤 두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가?
- 4) 주님이 오실 당시 그 땅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
- 5) 주님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6) 주님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7) 첫 특사는 누구라고 했는가?
- 8)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 9) 그 천사는 누구에게 먼저 왔는가?
- 10)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즈가리아에게 주었는가?
- 11)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12) 천사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13)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4) 우리는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15)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6) 왜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 17) 병어리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는가?
- 19) 세례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말라기 2) 주님의 오심 3)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사와 언약의 특사
- 4)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과 선해지기를 원한 이들 5) 풀무불에 타듯이 된다
- 6) 고침을 받는다 7) 엘리야(요한) 8) 가브리엘 9) 즈가리아 10) 아들을 갖는다
- 11)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12) 마리아 13) 아들을 가진다
- 14)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 15) 회개하라! 16) 세례를 주었기 때문

- 17) 영적인 무지 18) 겸손과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  
19)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도

## 27

# 주님의 탄생

### 머리말

본장은 교회의 절기중 하나에 속하나 성서를 차례대로 배열하고자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성탄절에 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성탄절에 대한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장 1-20절

2장: 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7.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13.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 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하면서 16. 곧 달려 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 교리 요점

- \*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이다.
- \*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도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 \* 주님께서서는 우리속의 유대 땅 곧 마음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속의 갈릴래아 지역 곧 일상생활에서 성장하시며 우리속의 사마리아 지역 곧 생각을 자주 거치셔야 한다.

### 상응 연구

마구간 = 말씀에서 온 진리의 교리  
목자 = 순진을 흠모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 삶을 목적으로 진리를 흠모하는 이들  
별 = 인도해 주는 진리

### 해설

당시 사람들이 미미하게 여겼던 사건인 주님의 강림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바꾸어 놓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력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대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들이 강성해졌다는 것 등이 그 예다. 주님의 삶은 세상에 새로운 표준 곧 새로운 이상을 주셨고, 영적 생명 없이는 결국 멸해질 수밖에 없음을 세상에 알리셨다. 영적인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며, 그것을 얻는 수단은 진리를 배워 살아냄으로서 생기는 지혜이다.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총명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게 되면 혼돈과 불확실과 두려움이 초래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지상에서 유일하게 순수했던 진리는 히브리 말씀 안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이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아서 당대의 사람들은 그 책을 더 이상 열린 마음으로 읽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을 뒤덮은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린 큰 빛은 한밤중에 있었다. 유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동방박사가 본 별, 즉 목자들의 주위에 내리 비취 “주님의 영광”의 빛은 모두 동일한 빛으로서, 주님이 진리로서의 “길”이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빛인 것이다. 또한 이 빛은 “이방인들을 밝게 해줄 빛”이고 진리를 추구하여서 빛을 찾는 현자들에게 길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린이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경배하러 온 목자들에 둘러싸여 놓여 있는 말구유의 거룩한 아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담긴 더 깊은 의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는 새로워지고 깊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외의 그 어느 것도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의 탄생은 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식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말씀 중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즉, 마태복음 13장 15절의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또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답해 주고 있다. 올빼미는 자기들의 먹이를 포획하려고 어둠에 의존한다. 그들은 밤에는 잘 보지만 낮에는 거의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올빼미란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진리를 보게 될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어린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과제가 주어지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들의 눈이 감겨있지 않았더라면, 올빼미의 눈이 대낮에 열리면 파괴되는 것같이 주님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

게 그분의 빛은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강림은 그당시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주님의 강림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알려졌다. 그래서 주님의 빛은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였고 점차 확산되어 전 세계에 퍼졌던 것이다.

주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으로, 그곳은 과거 베냐민과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그분은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의 집”이라는 뜻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선택되고 유용해지는가를 아주 간단한 교훈으로 가르치신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인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인 비천한 곳에서 아기로 오시는 모습은 우리의 어린 심정을 충분히 움직이도록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순진한 상태를 벗어나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미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 탄생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에서 벗어나 그 안에 담긴 그분에 관한 지식과 의미들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성탄 이야기에 담긴 상응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동방박사들은 영적인 삶에 따른 진리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표현하고, 목자들은 선함과 순진한 것을 사랑하는 단순한 심정을 표현한다. 이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자들이다. 이들은 과거 부모나 선생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통해 받았던 주님에 대한 지식을 흠모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오래 전부터 지녀왔던 고대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흠모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반면, 주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나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속에 저항하며 선하고 순진한 애착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이들은 목자들이 밤새워 양떼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주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여관은 없었다. 여관이란 “교훈하는 장소”를 표현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배우기를 원할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의 장소였다. 그 여관이 사람들로 꽉 차서 머무를 방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라는 장소에 위탁된 귀중한 지식이 이상한 것으로 꽉 차서 신성한 진리역시 그것들과 뒤섞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주님께서 놓으신 장소는 미천한 구유였다. 구유(여물통)란 말이나 소를 먹이는 곳이다. 삶을 위한 어떤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속의 장소란 낮은 이해성과 마음이다. 그리고 그분은 포대기에 싸서 눕혀졌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어 있어진 처음의 진리들을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히브리국가에 주님의 탄생에 관한 언급이 있어왔고, 탄생 시에도 이적과 경이로움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탄생을 인정했던 것을

의아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적이나 경이로움이 아무에게나 보여 질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본문 제 17-18절은 이에 대한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단순히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 신앙이란 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게 된다. 주님역시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진실로 갈망했던 이들만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아기 예수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에 알맞은 방법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다. 즉, 동방박사들은 상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별을 볼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에 비해 단순한 목자들에게는 그들 심정에 직통하는 방법인 이름답고도 장엄한 환상을 보도록 하셨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천사를 통해 실질적인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천사에 의해 말해졌다. 또한 시므온과 안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지각함에 따라 가르쳐졌다. 하지만 어떤 진리도 원치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을 멀하지 않도록 보거나 듣지 못하도록 되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스웨덴북은 천사들이 지상의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속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수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전을 주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선택의 자유가 인간들에게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섭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교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게 강요하려 드는 것은 오로지 악 뿐이다. 그러나 강림 당시의 천군 천사들에게는 천국의 참 분위기를 위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로 표현하도록 허용되었다. 즉, 본문 14절의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바로 그것이다. “good will toward men”을 보다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to men of good will”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으로 강조해 두신 그분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은 개인적 측면과 세상적 측면 모두에서 평화로의 길임이 명백하다. 이 두 계명은 성탄절에 가장 깊이 숙고해야 할 메시지라고 사료된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주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다면, 우리는 목자들이 했던 행동을 닮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놓인 주님을 발견했다. 구유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서 주님을 빨리 발견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주님을 타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일상 업무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2) 주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전에 지상에 태어나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4)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5)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 6) 그분의 탄생이 알려진 이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누구인가?
- 7)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 8)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졌는가?
- 9) 그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10)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11)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2)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 14) 목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15) 누가 목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했는가?
- 16) 예수란 누구인가?
- 17)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가?
- 18)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 2) 2000년 전
- 3) 베들레헴
- 4) 마리아
- 5) 요셉
- 6) 동방박사
- 7) 별을 보고...
- 8) 목자
- 9)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 10) 천사 11)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 12)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3) 마구간 14) 그들이 만난 사람 15) 마리아 1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 17)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심 18) 속량, 모든 이로 구원 가능하게 만드심

## 28

# 나인성의 과부

### 머리말

제 1권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다루어 같은 사건의 중복을 피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님 생애의 초기나 세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관된 사항들은 각 권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7장 1-30절

7장: 1.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2. 마침 그 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4.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6.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사람이 못 되며 7. 감히

주님을 나가 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8.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19.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20. 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고 말하였다. 21. 바로 그 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22.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4.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 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6.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27.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28.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30.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 \* 모든 예언자들은 말씀을 표현한다.
- \*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 \* 진정한 선행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 상응 연구

과부 = 소유하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잃은 선한 바램  
갈대 = 말씀의 가장 외적인 뜻  
왕궁 = 천국

### 해설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17개의 비유들과 다른 복음서들과 공통된 10개의 비유가 담겨 있어서 비유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의 대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가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초대 기독교인들 중 일인으로 바울과 여러 번 여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그는 유럽에 건설된 초대 기독교회인 마케도니아에 있는 필립의 그룹 지도자로

7년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누가”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골고새서 4:14). 그의 이름은 그가 유다의 후손이 아니었음을 암시해 준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과 세 번째 복음의 저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누가복음 제 1장 1-4절에서의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한 그의 기억적 지식이 그에게 가능했던 모든 자료들을 심도 있게 고찰한 결과임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서역시 여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감하에 쓰인 기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들 중 하나는 마태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병을 고치는 광경을 기록하되 병의 고침을 받는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본문의 기적에 대해서 이 사건의 말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인 백인대장과 유대인의 믿음을 비교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인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일으키는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다. 위의 두 사건 모두 갈릴래이에서 있었다. 백인대장의 전갈은 가파르나움에 계시던 주님께 전달되었다. 나인성은 나자렛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갈릴래이는 “이방인의 갈릴래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지역이 우리의 바깥쪽 삶 또는 일상생활을 표현해 줌을 살펴보았다. 정복자 로마 역시 세상의 삶을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더 높은 것에 헌신해야 하는 노력이나 우리가 침략당하는 시기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 하지만 정복자 로마인들 중 한 명인 백인대장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친구이며 혜택을 줄 수 있는 측면의 삶이 약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백인대장의 종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영감을 통해 우리속의 쓸모 있는 능력이 얼마간이라도 회복됨을 의미한다.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위와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에서의 과부란 선한 바램이 생산적으로 되고자 하나 그에 따른 적절한 진리가 결여된 상태에 처한 것을 묘사한다. 아들이란 선한 바램에서 파생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선택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에 따라 있어야 할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단순한 진리마저도 거짓에게 강탈당하고 마는 예를 볼 수 있다. 진리가 결핍된 선택은 남에게 속고 이용당하기 쉬우며 악에 물들기 쉽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수 요소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모두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부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해준다. 그중 하나가 자연적인 부활인데, 이는 인간이 육신을 물질세계에 내려놓고 영계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부활인데,

이는 인간의 생명 노릇을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 의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발견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 측면에서 알게 되는 말씀이 갖는 연계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흥미를 더해준다. 본문에서는 나인성의 과부가 당한 일로 이어진 일종의 비통함에 대한 예증으로서, 과부 사건 뒤에 세레자 요한의 이야기가 연이어 주어지고 있다. 그 당시 요한은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그를 추종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선교는 이미 막을 내렸던 것이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선교 사업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의아심을 그의 마음에 허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의 생애와 선교에 대해 좌절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이나 타인을 돕는 일에 대한 노력이 불현듯 헛되게 느껴질 때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나 희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경우와 같다. 감옥에 있던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이룬 성취라는 좁은 공간에 자신을 감금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큰 섭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그분에게 여쭙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성취해 가시고 있는 기적들을 직접 보도록 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기꺼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면, 그분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함이 정녕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비롯됨을 확인하도록 해주신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의 제 28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여느 예언자들처럼 세레자 요한도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말씀의 글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글자는 우리의 바람이나 상상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말씀의 글자는 부드러운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말씀의 글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칠게만 보이는 진리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거친 진리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기도 하다. 예언자들은 주님을 대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글자가 주님을 대변함을 인식하게 될 때, 말씀의 글자는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록 해준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스웨덴북은 제 28절을 인용하는 「천국의 신비」 제 9372-6항에서 “내적인 뜻 혹은 천국에서의 말씀은 외적인 뜻이나 세상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세레자 요한이 가르친

것 보다 더 위에 존재함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로 의미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말씀이 지각되는 것은 지혜 속에 있는 것이어서 심히 위대하므로, [그곳에서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 질문 정리

- 1)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2)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통고했는가?
- 4)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5) 같은 천사가 어떤 다른 통보를 했는가?
- 6) 누구에게 위의 통보는 있어졌는가?
- 7)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두 개의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가?
- 8)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9)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10)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 11)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 13)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 14) 요한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15)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6)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누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    2) 즈가리아와 엘리사벳    3) 천사 가브리엘
- 4) 요한의 출생까지 병어리가 됨    5)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    6) 마리아

- 7) 축가와 찬미가 8) 회개하라 9) 그들에게 세례를 줌
- 10)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11)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심
- 12)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심 13) 그분은 생명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
- 14)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 15)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16) 예언자
- 17)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 29

### 열 두 사도의 파견

#### 머리말

본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장에서는 열 두 사도의 파견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9장 1-36절

9장: 1.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보내시면서 3.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5.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6. 열 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 7. 한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 왔기 때문이다. 9.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뒤쫓아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하였다. 그러자 13.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하고 물었다. 14.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15.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었더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하고 물으셨다. 19.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2.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35.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화하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은 주님께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 \* 믿음은 남을 도울 능력을 준다.
- \* 우리가 남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상응 연구

열 둘 =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베드로 = 믿음  
 야고보 = 선행  
 요한 = 선행으로부터 이루어진 일

모세 = 율법 또는 말씀의 역사 부분

엘리아 = 말씀의 예언 부분

얼굴 = 개인 속에 든 내면의 특성

## 해설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다 보면 본문에 언급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나 그분의 변모하시는 사건이 중복됨을 볼 수 있다. 중복된 사건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넓게 해석하면 어느 복음서나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다보면, 서로 각기 다른 다양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이해성에 친숙해진 말씀의 문단들이 두드러져 나오는 현상은 그 안에 우리를 위한 진정한 어떤 길이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각기 다른 상태나 경험에 말씀의 이야기들이 적용되도록 말씀들을 우리의 이해성에 가져다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본문에 중복된 두 가지 사건역시 사도들의 인생 업무를 위해 준비되는 부분으로서 그것들을 누가복음에 가져다 놓으셨는데, 이는 사도가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한 준비로서 배려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도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들이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하며,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할 것이다. 본문은 이런 과업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지침들에 해당된다.

사도들을 파견했던 것은 실질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도들은 각기 여러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가 되돌아와 그들의 스승에게 보고했다. 떠날 때 각 사도들에게는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속의 악을 극복하고 타인들의 악함을 고치는데 도와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내용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직접 보여주라는 의미이다. 사도들은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받도록 해 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떠나라고 명받았다. 이 명령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들 간에 우리의 자아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자만이나 자기주장에 쉽게 휘말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하며, 사도들이 동네속의 먼지를 떨어 버렸듯이 그동안 들었던 노력에 대한 실망감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즉시 떨어뜨려야 한다.

주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 복음서들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기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자녀 또는 우리의 이웃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양식을 줄 책임이나 기회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가진바가 부족하여 안타까워하거나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에게 새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혹은 “내 자녀들이 새교회의 교리를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하나?” 등과 같은 질문은 실로 다양할 것이다. 12절에서 사도들이 군중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듯이 우리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적절한 답을 위해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자고 하는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기억 속에 든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줄 어떤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분께서 필요함을 충족하고도 남도록 그것을 배가시켜 주심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스웨덴북의 저서를 통해 설비해 두신 주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공부해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도로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스웨덴북이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流入)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오병이어의 교훈에 뒤따르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접하도록 해준다. 변모에 관한 이야기는 세 복음서들에서만 주어지고 있다(마태 17:1-9, 마가 9:2-10). 이 사건이 세 복음서들에 기록되는데 따르는 공통된 선행 조건은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선행 조건들은 네 단계로 구분되는 영적 성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는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둘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놓으셨는가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는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분과 결합하고자 하면 자아 중심적인 삶 곧 자신의 목숨을 반드시 한쪽으로 밀어 놓아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영화된 인성 안에 계신 그분을 뵈는 능력과 그분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의 글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4-2항에서는 변모하심에 관한 이야기의 상응이 다른 문단에서보다 더 명백하고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다. 즉,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택하셔서 산에 오르셨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의 믿음과 선행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행해진 선을 표현하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함은 ‘산’이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마태 17: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얼굴’이 내면의 것들을 의미하고 ‘그 얼굴이 빛났음’은 그분의 내면의 것이 신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해가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옷은 그분에게서 발출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빛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는 두 사람이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말씀의 역사적인 부분을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의 예언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에서 ‘빛나는 구름’이란 내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말씀은 말씀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성함이 주님으로부터 있고 교회속의 모든 진리 역시 그분으로부터 있어져서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비」 5922-5항, 「요한계시록 설명」 195-18항, 「천국의 신비」 2576-19항 그리고 「천국의 신비」중에서 창세기 18장에 대한 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변모에 관한 이야기에서 구름이 걷힌 뒤 세 명의 사도들은 예수만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신실할 때, 우리는 영적인 환상의 높은 산으로 인도되어 말씀의 내적인 의미가 그분을 밝혀주듯이 그 산에서 영화하신 주님을 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주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서와 말씀의 전체에서 주님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세 사도들은 그들이 본 환상을 얼마동안 다른 이들과 나누지 못했다. 이와 같은 환상은 충직한 섬김의 왕관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을 보도록 준비되지 않은 이들과는 이러한 특별한 환상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말이다. 주님의 재림의 실체는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알려주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모란 그분의 재림으로 가능해지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성을 예언해 주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백인대장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 2) 주님께서는 백인대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4)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5) 요한의 특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6) 주님께서는 그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그분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이때 거기에는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 9)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 11)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 13) 그들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가?
- 14)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15) 본문에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 16) 그 기적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17)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 18) 어떤 세 사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근했는가?
- 19)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20) 이 환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21) 우리는 이 환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 22) 열둘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3) 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이 변모를 볼 수 있었는가?
- 24)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2)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 3) 이들을 살리심
- 4) 감옥에 들어갔다 5)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6)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 7) 위대한 예언자 8) 열 둘 9)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침 10) 하느님의 나라
- 11) 온 동네에서 병을 고치고 전도함 12) 어느 여분의 것도 지니지 말라
- 13) 사람들의 집에서 14)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15) 오천명을 먹이심
- 16)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 17) 하느님의 그리스도
- 18) 베드로, 야고보, 요한 19) 주님이 회개 빛나심 20) 모세, 엘리야 21) 변모
- 22) 복합체 안의 모든 선과 진리,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애쓸 때 알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
- 23)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
- 24)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과는 자유로이 나누되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 30

### 선한 사마리아 사람

## 머리말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까지는 몇 개의 장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장 안에는 비유, 제자들을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제 10장의 첫 부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금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명확한 빛으로 비춰 보게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0장 25-42절

10장: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하고 반문하셨다. 27.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28.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3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31. 마침 한 성직자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2.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34.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36.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 들였다. 39.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 교리 요약

- \* 주님을 예배함은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 \*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 \* 믿음은 선한 일로 결과 되어져야 한다.
- \* 각자 안에 든 선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 상용 연구

예루살렘 = 영적인 상태  
 예리고 = 바깥쪽 생각과 활동 평면  
 강도 = 나쁜 생각과 바램  
 기름 = 사랑  
 포도주 = 영적인 진리

### 해설

우리는 본문과 더불어 주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에 주님께서 지상 업무의 마지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다(누가복음 9:51). 본문 이후의 몇 장에 걸쳐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은 비유이며, 그것들 대부분은 타 복음서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본문의 가르침은 시작부터 아주 간단한 용어로 이뤄지고 있다. 율법교사 곧 서기관은 당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34-40절에서는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사랑을 강조하신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율법교사의 답이 옳다고 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씀 전부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다. 본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중 첫째 돌 판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 돌 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둘째 돌 판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첫째 돌 판의 것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 돌 판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둘째 돌 판의 것을 깨트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친절과 정의 안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인정됨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일부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정의와 선행이 결핍된 행위를 보여 주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혹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웃사랑이 주님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즉, “저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없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또는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 더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와 같은 주장들이 그러하다. Leigh Junt라는 사람의 시가 출간된 1838년에는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부산물로 인정되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증거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과 뜻을 주님께 의지하지 않거나 무엇이 선인지에 대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웃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님 사랑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선이 자아 사랑에 근거하게 되고 자아 사랑은 선함을 자아의 걸치레로 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16-26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자아 사랑이 선함을 자아의 걸치레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으나, 주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했을 때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판다함은 우리의 소유인 선함과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즉,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본문의 율법교사는 이와 같은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는데, 이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그의 질문으로 암시된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어 비유들 중에서 자주 거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솔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진정한 선행이 교회 밖에서 있다는 증거로 이 비유를 거론하거나 이웃 사랑의 필수요건이 이웃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는 것이라고 억측하는데 이 비유를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며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삶에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출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한 상응을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착각이나 억측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는 상응으로 보면 “교리속의 진리가 생활의 선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그분의 뜻에 관해 배웠던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 응용하는 데에 놓으려고 노력함을 말한다(AE 458-10). 우리는 이 여행 끝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속의 이기적 바람이나 그 바람에서 나오는 거짓 추론에 의해 종종 공격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라는 옷을 강탈당하고 우리의 선한 해결책들이 소극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반쯤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 좋은 의미에서 성직자와 레위 지파 인은 주님에 대한 예배와 선행의 선을 표현한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나쁜 의미에서의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과 선행의 선이 없는 것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자들을 의미한다(AE 444-1). 사마리아인이란 “진리를 사랑(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은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삶에 적용해 보려는 의지를 지닌 자 또는 “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AE 375-42).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성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도와주는 바, 선한 사마리아인들만이 선하고 진정한 것인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어 흔들렸던 우리의 선의지를 강건하게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하여 우리의 이해성이 허용하면 더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게 된다. 여관이란 삶의 참된 교훈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야기 전체가 영적인 섬김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라고 불리는 자가 사마리아인이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심을 주목해야 한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가 선행의 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각자가 지닌 주님 사랑의 품질에 따라 이웃이 될 사람이 결정된다고 말한다(AC 6711항).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 안에 든 주님 사랑이며 타인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주님 사랑이 증가되는 방향으로의 행동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분별없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은 결국 그의 악행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각자 주위에서 이에 대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을 위해서 스웨덴법의 「천국의 신비」 제 6703- 6712항 또는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428항을 읽어 보도록 하자. 주님께서 율법교사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이 성직자나 레위지파 인보다 더 나은 자신의 이웃임을 인정하도록 만드셨을 때, 율법교사가 받은 가르침은 진정한 선함은 그 선함의 출처에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곡해하여 스스로가 옳은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이 비유 뒤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란 우리가 활동적인 것에만 미혹되어 바쁜 나머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느라 바빴던 마르타와 같이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기고, 이를 실천하면서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다보면, 과도한 일에 신경 쓰며 걱정하여 한정된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균형감을 상실하게 된다. 어떤 교회는 때로 외적인 봉사에 너무 치중하여 말씀을 가르치거나 공부하는데 소홀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필요성이 긴박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인간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히 진실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평화와 기쁨을 찾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붓느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투덜거렸다. 이때에 주님께서서는 본문과 같이 가르치시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마가복음 14장 7절을 읽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마르타에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사랑함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다. 우리가 주님께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드높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자.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 질문 정리

- 1) 사도란 무엇인가?
- 2) 주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는가?
- 3)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4) 그들은 전도 때에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되었는가?
- 5) 사도들이 군중들을 먹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6)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 7)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 8)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누구인가?
- 9) 이 세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10)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위해 어떤 책을 참고 하셨는가?
- 12) 율법교사는 무슨 대답을 발견했는가?
- 13)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4)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비유로 답하셨는가?
- 15) 강도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
- 16)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하고 지나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17) 누가 이 사람을 도왔는가?
- 18) 사마리아인들이란 누구인가?
- 19)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0)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1) 주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22) 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즉시 이어지는가?

**질문의 답**

- 1) 파견함 2) 열 둘 3) 하느님의 나라 4) 영접하는 자들
- 5)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불러서서
- 6)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7)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 8) 베드로, 야고보, 요한 9) 변모
- 10)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1) 성경
- 12) 주님과 이웃사랑 13)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 15)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16) 성직자, 레위인 17) 사마리아 사람
- 18) 아시리아 나라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 19)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라
- 20)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타는 봉사하느라 분주했다 21) 마리아
- 22)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1

##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 머리말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문이 언급된 앞부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친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영혼의 눈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 성서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장: 1.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2.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 놓을 것이 있어야지’하고 사정을 한다면 7.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하고 거절할 것이다. 8.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9.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려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1. 생선을 달리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12. 달걀을 달리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병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으며 16.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18.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19.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러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20.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하면서 25.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26.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외치자 28.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하고 대답하셨다. 29. 군중이 계속 모여 들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30.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31.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32. 심판 날이 오면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33.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방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와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손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와 사람은 깜짝 놀랐다. 39.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40.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41.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43. 너희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45. 이 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희에게도 모욕이 됩니다”하고 투덜거렸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 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47.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고 하셨던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렸고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53.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54.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 \*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꾸준히 인용하셨다.
- \*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오게 된다.
- \* 가장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 상용 연구

초, 등잔 = 교리  
 등경 = 교회  
 잔 = 영적인 진리를 위한 용기  
 눈 = 이해성

### 해설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문을 주심으로 시작된다. 산상설교에서 주어진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다. 사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상이한 형태와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차이점이 별반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서들 간의 기록이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는 각 복음서를 기록했던 자의 마음 상태가 달라서 각기 다른 섭리로 복음이 기억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서가 모두 그리스어로 씌어졌고 같은 사건에 다른 형태가 연결되는 경우 그리스인이 말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와 같은 단어의 순서는 본문의 나머지 교훈과 내용상의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첫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진정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듯이 삶에 있게 되는 모든 일의 안내와 도움을 주님께 의존해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일 요구되는 영적 필요함을 충족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찾아야 한다.

위 문단의 내용과 상반되는 배경으로 다음 문단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세의 법을 알고 지킨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타나신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에 관하여 묘사되고 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하는 것이었다. 이사야가 기록한 바대로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높이는 체 하며 그들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이사야 29:13-19).” 이 인용 구절은 본문에 나타나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기도 하다.

제 33-34절은 본문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으로 볼 수 있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뒷막으로 덮어 둔” 이들이었다. 그들은 구약 성서를 높이 들어 올려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는커녕 잘못된 해석과 규정들을 첨가시켜 말씀을 덮어둠으로써 오히려 성서에서 나오는 빛을 가려버린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라는 말씀이 있다. 어떤 교회든지 첫째로 삼아야 할 교회로서의 기능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말씀 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밝혀 주시는 진리(계시) 위에 인간의 총명을 칭찬 받게 하려고 튀어나오는 추론들로 성서의 빛을 덮을 때, 이 행위는 그야말로 제일가는 교회의 기능을 뒤엎는 의도적인 거짓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 34절은 이런 악의 근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은 이해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눈이 “성해야 (single)”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 single이라는 단어를 “단순 (simple)”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어로부터 비롯된 이 single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단 하나의, 단순한, 거리낌 없는, 꾸밈없는, 솔직한, 진실한” 등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악과 병들”에 대치하고 있다. 본문의 원어인 그리스에서 “악과 병들”이라는 단어는 “사악함, 외고집의, 악의 있는, 악”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34 절에서 강조되는 사항은 이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다. 고로 위에서 사용된 두 단어의 대비는 마음의 내적인 상태들에 해당되는 겸손함과 자기 고집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34 절에 담긴 이러한 의미를 염두 한 뒤 이후에 언급된 바리사이파인

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읽는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바깥쪽인 행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 제 147항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교회 안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그 결과로 있어지는 행동이나 말 속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유아기 때부터 설사 자기 속의 내적인 것이 의견을 달리한다하더라도 외적인 것으로부터 말하도록 가르쳐짐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이런 것이 위장, 아침 그리고 위선의 근원이 됨은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뜻하고 행동하되, 이것들은 모두 내적으로부터 있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말씀에서 “단순”으로 의미되고 있다(누가복음 8:15, 11:34 참조). 한 마음인 자가 두 마음을 가진 자 보다 더 현명하다.” 스웨덴봄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대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서 산다고 자랑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것을 마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처럼 여기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느낀 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새교회의 교리가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바깥쪽인 행위의 재구성이 우리의 거듭남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유발하는 동기는 주님의 뜻 외의 다른 인간적인 동기가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유쾌하게 인사를 하거나 친절하게 한 행동들이 우리의 내적인 사고나 느낌의 진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바꾸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계시록 설명」 394-3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사람이 선하고 진실 된 것 그리고 신실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고 행동하되 그것들이 모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아 사랑으로부터 그것들을 말하고 행동한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내적으로부터 없고 외적인 곳에만 근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행위나 일들은 악하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 안에 있다고 간주하면 그 천국은 결국 자신을 정당화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주님의 법에 어긋난다.” 스웨덴봄은 이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해 놓은 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해서인지 혹은 자신을 사랑해서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일 자체라는 외적인 형태로 보면 두 종류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로지 주님만 판단하시고 식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생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행위의 진정한 근원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과 이해성을 보셨다. 그들은 악을 단죄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만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안쪽 행동 곧 동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말씀 속에서 오게 되는 주님의 진리로 자신을 성찰하고 빼놓아버지거나 어그러진 것들을 꼬집어내어 교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영혼인 하늘에서 이뤄진 후 땅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기도문을 형태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 2) 율법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3)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율법학자들은 무슨 책을 공부했는가?
- 5) 위의 두 계층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6)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께서는 어떤 징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 8) 본문에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 9) 주님께서는 등불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위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12) 눈이 병들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 13) 주님께서는 무슨 과오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는가?
- 14) 위선이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어떤 것들인가?
- 16)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 질문의 답

- 1) 제 2반 참조
- 2) 성경을 베끼는 사람
- 3)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계층
- 4) 성경
- 5) 악마
- 6) 갈라져서 싸워 망하는 집안
- 7) 요나의 기적
- 8) 요나, 세바 여왕
- 9) 등경 위에
- 10) 등불을 켜서 감추어둔 자는 어리석다
- 11) 깨끗함, 순수함
- 12) 악으로 인해 보지 못함
- 13) 위선
- 14) 선한 체 함
- 15) 사람들이 보는데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며, 경건한 체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함
- 16) 주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

## 32

## 큰 잔치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바리사이파인들에 대해서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녔던 이유를 상기해본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율법학자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4장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 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하고 물으셨다. 4.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할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5.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1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18.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 하겠소. 미안하오’하였고 19. 둘째 사람은 ‘나는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यो. 미안하오’하였으며 20.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하고 말하였다. 21.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 와서 주님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22. 얼마 뒤에 종이 돌아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니

23.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24.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5.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29.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30.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34.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
- \*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의문점을 갖게 된다.
- \*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신실하지 않은 친구와의 관계와 같다.

\* 변명은 우리가 가진 애착의 진정한 본성을 노출 시켜준다.

### 상응 연구

황소 = 유용한 일에 대한 애착

결혼 = 마음과 이해성이 하나 됨, 또는 선과 진리의 결합

가난한 자 = 겸손한 마음

불구자 = 자신이 행한 죄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하는 이들

절름발이 = 나에게서 의를 행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

소경 = 지식과 이해 측면의 결핍을 인정하는 이들

### 해설

식욕은 우리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육체는 규칙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건강에 유익하며 다양해야만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로 식탁에 앉게 되면, 우리는 그저 먹는 것을 즐기 위해 식탁에 앉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는 함께 식사함을 서로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효과적인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나눔으로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 이것은 서로가 지닌 영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한 상태에 있게 되면, 먹는다는 것과 더불어 영적인 선용도 수행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 먹고 마심, 잔치, 만찬 그리고 결혼잔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과한 것, 즉 먹고 마시는 것을 거론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먹고 마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먹고 마심이란 그분의 사랑과 지혜 또는 선과 진리이며,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유지시키고 발달시켜주게 되는 영의 자양분들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연계의 먹고 마심이 육체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먹는 유대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계시록 3:20). 그분은 말씀 속에서 항상 잔치를 열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입맛대로의 선과 진리를 먹고 마시 행복을 얻도록 하고 계신다. 그분은 말씀 속에 현존하시면서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슬기롭고 사랑스러운 단어들로 말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바람과 생각들로 우리와 기쁨을 나누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위와 같은 초대를 받아들이는 선택은 우리 자신의 자유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싶은 집단 또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해 간다. 우리는 때로 자신보다 슬기로운 누군가를 찾아내 그로부터 배움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장점을 뽐내고자 하여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찾아내 대장노릇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발전을 잘라내고 후퇴함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큰 잔치의 비유에서 더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진실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꾸준하게 참석하며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고 그분이 제공하는 진리를 흡수하여 실지로 삶에 응용함으로써 말씀속의 선함까지 받게 되어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연계를 맺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주님의 일을 거들게 된다. 우리가 참석하는 성찬식이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는 그분의 초대에 가겠다고 승낙함에 대한 외적인 상징이다. 실지로 이 만찬에 있게 되는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는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바래느냐에 비례하여 우리 안에서 실제화 되며 권능도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에 비례하여 이 부분의 달성여부도 가능성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초대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도착되어 있다. 게다가 주님께서서는 이 초대장을 거듭하여 보내고 계신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는 말씀의 글자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든 진리에서도 반복되는데, 이는 “자기 종을 보내어. 어서 오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문의 비유를 읽으면서 초대받은 자들이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그 잔치를 왜 거절했을까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생각들에 몰두하게 되면, 주님과 의 관계로 인해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간섭될까 우려하여 그분의 초대를 거절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다.

세 가지 핑계들이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지혜를 주님에게서 찾으려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사의 총체적인 상징화이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거기에 가 봐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밭은 마음을, 정확히 말하자면 지적인 것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핑계는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사고에 자아도취 되어 그러한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갈 여유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여기며 심지어 주님에 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어서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과 같은 핑계를 대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겨뿔소 다섯 쌍을 사서 그 황소들을 얼른 부려 보아야겠다고 했다. 황소란 자연적인 유용함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한다. 이 애착이 주님을 섬기는데 향하고 있다면 선하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경우에서처럼 인간적인 사무들을 돌보느라 너무 분주해 혹은 현재나 장래의 필요성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거나 세상 모두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외적인 자선에 몰두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을 더욱 잘 알기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과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손님들은 자기들이 초대에 응해야 함을 인정했으나, 당장은 갈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위의 두 사람은 언젠가 자신들이 몰두한 일이나 공부 등을 마친 후에 주님을 찾을 시간을 갖고 교회도 나가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인격을 건설함이 결코 미룰 수 없고 오늘 중단했다가 내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것이 아니라서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위의 두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면, 우리는 이내 세 번째 사람과 같이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라고 노기 띤 반문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업무나 사업을 일으켜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성취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혼신을 기울인 사상이나 사업에 결혼되어 떼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과거에는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믿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일들로서 단지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자세로 “성서에 무슨 진리가 들었나? 내 방식이 진리이지.”라는 반문을 제기하며 주님이나 교회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어떻게 갈 수 있겠소?”라고 주님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된다.

이 비유는 사실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핑계를 댄 손님이란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사상이나 사리추구에 전적으로 빨려든 사람들 또는 교회를 묘사한다. 반면, 잔치에 모여든 손님들이란 성경의 진리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갖고자 하는 자들로서 첫째로 “동네의 한 길과 골목에 있는 자들”이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 끼여 살고 있어 말씀의 진리에 어느 정도 접촉되어 있었던 이들을 말한다. 그 다음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 밖의 사람 곧 교리를 모르는 이들인데, 이들은 “억지로라도 데려 오라”고 명령되고 있다. 이는 진리를 통해 주님께 도달되기보다 사랑의 힘으로 이끌릴 자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간혹 교회에 등록된 새 신자가 “나는 교회와 성경에 쓰여 있는 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 친한 친구가 내게 베푼 행동의 동기가 바로 그가 믿는 하느님의 진리에서 나왔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라고 고백함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에 이끌릴 사람들에게 대한 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가 글자그대로의 자연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들은 영적 의미에서 말씀을 가지지 못하여 진리에 무지하고 선함이 결핍된 자들이나 여전히 진리를 바라고 진리로 선함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들이 이방인들이요,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후에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어졌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계시록 설명 제 652-31과 천국의 신비 제 2336-4 그리고 계시록 설명 223-22을 참고하기 바란다.

큰 잔치의 비유 마지막 절은 주님의 초대에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특전인 선택의 자유에 따르는 심각함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는 것은 그것들을 얻고자 얼마나 소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을 닫아걸게 되어 더 이상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자아와 주님 사이를 선택하는 기회로 주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선택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자신속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바램을 버리고 그 속에 그분의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뒤로 후퇴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사상이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진취시키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입장을 차단하는 사리주구나 자아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에서 몰아냄으로서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고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인 바, 주님께서는 본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비유로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 질문 정리

- 1) 왜 주님께서 말씀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놓으셨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과오를 보셨는가?
- 4)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주셨는가?
- 5) 그분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 6) 이들이 참석 못 한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인가?
- 7) 이들 속에 어떤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 8) 그분의 잔치를 즐기도록 발견된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
- 9) 비유속의 잔치 주인은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대하시는가?
- 11) 주님의 집은 어디인가?
- 12) 핑계를 댄 친구들은 누구인가?
- 13) 그분의 초대에 응한 가난한 자란 누구인가?
- 14)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다함은 무엇을 표현인가?
- 15)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도우시기 위해
- 2)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계층 3)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
- 4) 큰 잔치 5) 친구들 6)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보려고, 결혼해서
- 7) 이기적이어서 무부분별함 8)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 9) 주님 10)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는 그분의 말씀
- 11) 교회 12)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
- 13) 겸손이 있는 마음 14) 주님의 선함과 진리로 우리 영혼을 먹이심
- 15) 밭: 지적인 자랑(마음)  
 황소: 우리 마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음  
 아내: 이기적인 방법(행동)에 “결혼됨”

## 33

### 방탕한 아들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에 뒤따르는 비유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 성서본문: 누가복음 15장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하며 좋아할 것이다. 7.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 볼 것이다. 9.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4.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흥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15.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27.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30.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31.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 교리 요점

\*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 \* 말씀속의 진리는 영적인 부유함이다.
- \* 진리를 잃게 될 때 믿음도 잃게 된다.
- \*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용서역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다.

### 상응 연구

잃은 은전 = 잃은 진리  
 우리의 상속 =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  
 돼지 때 = 감각적인 것에 대한 애착  
 잃은 양 = 잃은 선한 애착

### 해설

우리는 본문에서 바리새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로 대치되는 모습을 다시 접하게 된다. 즉,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를 보고 투덜거렸다. 이후에 있는 세 가지 비유들의 취지는 주님 사랑의 참의미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비유들은 그 사랑으로 위의 모든 이들을 그분께로 끌어당겨 각자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검증해 보고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해서 회복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각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한 사항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즉 우리가 주님께에서 이탈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바꾸어 보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비유들은 우리 삶의 세 평면에서 있게 되는 진리들을 각 평면 별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것인데, 잃은 양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껴두신 아주 중요한 애착인 순진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그 애착 하나를 잃음으로 써 그 밖의 모든 양(애착)들도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양들은 광야(들판)에 버려 둔 채로라는 말씀에 묘사된 것과 같은 상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서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되돌아오셔야 하는 것이다. 더 설명하면 잃은 양이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지극히 단순한

신뢰심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얻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심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물불을 가리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곤경과 위협을 물리쳐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휘말려 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심을 우리 삶 속에서 거듭하여 보여 주신다. 우리는 이 신뢰심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며 기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북은 “천사들이 인간에게서 악이 제거되어 천국으로 인도됨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여긴다.” 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5992항). “어깨에 메고”란 신성한 사랑이 온힘을 다 쏟아 신뢰심을 보존하려 함을 의미하며, “잃었다가 찾은 양”이란 회개하는 사람속의 선을 의미한다(천국의 신비 제 9836-6항)

잃었던 은전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진리를 잃은 모습을 그리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진리를 알되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온 진리의 빛으로 살살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그것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우리의 정신적인 집을 살살이 쓸어 내는 바, 즉 자신을 면밀히 검증하여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짓 사상을 거절해 버려야 한다(요한계시록 설명 675-10항).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은전인 진리는 무엇일까? 죽음이란 저 세계의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저 세계의 삶 곧 영혼으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며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진리이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가르침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으나, 성장하면서 세상에 퍼진 죽음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속으로 미끄러지게 되어 자신과 친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죽어야만 한다니.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어.”라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나 견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견해와 세상적인 사상으로 진리를 덮어둔 면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전 한 닢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샘이 다 마르기 전에는 결코 물의 귀함을 모를 줄”이라는 말 역시 진리의 귀중함을 잘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할 때까지 그분께서 주신 선과 진리를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간직해야 했던 것을 잃고 난 후 그것을 다시 찾아 원위치에 놓았을 때 오는 기쁨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 이상의 기쁨임을 알고 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의 행동적인 선상에 있어서의 죄라는 것을 가지고 위의 교훈을 직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물론 주님이시다. 아들이 자기 것으로 떼어 달라고 요구한 뭇(상속 분)이란 주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선과 진리들이다. 우리가 안내자로서의 주님을 찾는 것을 피곤하게 느끼며 스스로 뭔가 해 보고자하면, 우리는 본문의 방탕한 아들처럼 되어 버린다. 그는 이내 주님께에서 멀리 떨어진 “먼 고장”으로 가게 되었고, 무분별한 생활로 자기 뭇을 모두 탕진해 버린다. 우리가 우리 안의 선한 애착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자신의 명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선함과 진리의 본성은 그것 안에서 사라져버린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선하고 진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지만 주님의 것으로서, 그분에게서 온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빛이 나온다고 하여 그 빛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세상적인 기준들을 습득하게 되어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삶을 정진하게 된다. 결국 “돼지를 치는” 수준까지 전락하여 오로지 육체가 탐하는 욕망만을 탐식하게 된다. 이렇게 까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기근이 더 심하게 엄습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여서 영적 본성이 굶주리게 되면 어떤 만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속의 방탕한 아들은 이런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 스스로의 잘못 때문임을 실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르러서 마침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 지극히 옳은 삶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릴 때 우리의 잘못된 방법에 대한 벌금인 고통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의 본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도록 해주시고 결국에 그분께로 되돌아가도록 해 주신다. 이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상태 곧 누가 뭐래도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은 용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도 전에 멀리서 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진정한 생각인 새 옷을 다시 입혀 주시고 선을 행하는 새 사랑의 가락지를 끼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한 행위라는 살찐 송아지를 잡도록 해 주신다.

집에 계속 머물렀던 큰아들이란 바리사이파인을 표현하나 우리속의 바리사이파인도 표현함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가시적으로의 올바른 삶, 즉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본문 25절의 “밭에 나가있던” 큰아들과

같이 된다. 즉, 우리는 법을 어긴 이들에 대해 냉랭하고 혹평적일 때가 많으며 그들이 회개할 때나 그들도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용납하는 자체를 거절하여 본문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게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가시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제 9361항 또는 요한계시록 설명 제 279-6항을 참조). 위 세 가지 비유들에 있는 공통된 교훈은 우리에게 자신속의 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에 관한 것이다. 바리사이파인들처럼 본문의 큰아들은 자신 속에 든 결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율법의 글자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의 영적 상태를 진보시킬 가능성은 없게 된다. 용서해주는 주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란 너나 나나 불완전하지 않은가?”라는 변명 대신 참회어린 고백을 해야만 한다. 즉,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다시 그런 짓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자신속의 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아서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은 은전 한 닢”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해야 한다.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 제정신을 차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세상의 관례를 넘어 우리들의 생각을 들어올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 다시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소 발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반겨 맞는 천사들의 기쁨 곧 천국의 기쁨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큰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말해졌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셨는가?
- 4) 위 비유 속에서 어떤 손님이 처음 초대받았는가?
- 5)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 6) 이 핑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7) 잔치 음식을 즐긴 손님들은 누구인가?
- 8)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 9) 이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이 비유들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 12) 첫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3) 둘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4) 셋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5) 방탕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작은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는가?
- 17)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8)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결국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 20)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 주었는가?
- 21) 큰아들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
- 22)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3)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은 무엇을 그리는가?
- 24) 방탕한 아들이 낭비한 상속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 되돌아감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2)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계층 3) 자기 자랑 4) 친구들
- 5)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 보려고, 아내를 얻어서 6) 이기적인 무분별
- 7)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8) 세리, 죄인 9) 주님께 불평했다
- 10) 3 11) 뭔가를 잃고 찾음 12) 양 13) 은전 14) 아들 15) 낭비함
- 16) 돈 17) 먼 고장 18) 가난해지고 굶주림 19)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 20) 기쁨으로 21) 시기했다 22)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 23) 잃은 애착, 잃은 생각 24) 모든 우리의 능력  
 25) 자아를 겸손하게 하고, 길을 바꿔서 다시 노력함

## 34

### 부정한 청지기

#### 머리말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는 점이 자주 돌출되므로 이를 설명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지 모르나, 두 가지 비유 모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귀결된다. 이 구절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성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것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4.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6. ‘기름 백 말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이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8.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11.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뭇을 내어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17.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20.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23.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25.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26.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27.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30.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31.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것을 허용하신다.
- \*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말씀속의 법칙은 반드시 성취된다.
- \* 주님께의 충실함은 저절로 이웃에의 충실함으로 표현된다.
- \* 마음속의 선행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

### 상응 연구

- 밀 = 선함
- 백 = 충분한 양
- 개 = 자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연적인 애착
- 지옥 불 = 자아사랑

### 해설

본문에는 익히 알려진 두 가지 비유가 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재물을 섬기고 있음을 발견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 13절이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두 주인”을 “두 주들 (two lords)”로 읽어야 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13절의 경우 주인(master)과 주님(lord)이 동시에 사용되는데, 이때의 주님과 본문의 주님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이에 대해서 주인은 진리를 그리고 주님은 선에 관하여 서술한다고 설명한다(천국의 신비 9167-2). 그래서 이 절은 “너희는 진리와 거짓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과 악을 함께 섬길 수 없다”를 의미하게 된다.

본문의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는 많은 성경 애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왔다. 그 이유는 비유속의 주인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님께서 “세속의 자녀들”로부터 있는 위와 같은 예를 “빛의 자녀들”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시며,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충고하신다. 재물(mammon)이란 아람어로서 “부유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단어는 성경 상에서 소유물, 돈, 학식 또는 사회적 지위 등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족과 타인을 경멸하도록 하는 것들을 총칭하는데 사용된다.

이 비유는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 능력, 재주, 지식, 책임 또는 기회 등은 그분을 잘 섬기도록 하기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선물들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중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그분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목적이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낭비하는 청지기들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문의 청지기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인 3절은 두 가지의 “터무니없는 해결책들”에 관한 것이다. 청지기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두 해결책에 자신의 구원을 기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란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사상이 거짓임을 의미한다.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란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으로 주님께 빚진 것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주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구원을 기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을 무가치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주님의 선물을 어느 정도라도 이미 남용해 버린 자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방향은 본문의 청지기가 선택한 것뿐 일 것이다. 청지기가 불러 모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란 주님을 섬기도록 부여된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표현한다. 그들이 빚진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분께서 예상하신 사랑과 선행의 기대치이다. 그러나 기름 오십 말과 밀 팔십 섬이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랑과 선행의 최대치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여태껏 자신의 재능을 잘못 사용하여 낭비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빚진 것 곧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을 영원히 갚을 길이 없으므로, 우리의 여생을 충분히 선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 빚진 자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왕 잘못된 인생 될 대로 되거라”하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부족함을 정정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전력을 기울여 그분께 빚진 것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갚는 성의를 보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가 청지기의 결정에 있었기에 비유속의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깨달은 순간부터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위와 같은 결정이 쉽게 있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는 이러한 결심을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재물이란 세상적 소유물, 학식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 등을 총칭한다고 배웠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혹은 자아를 섬기는데 사용된다.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위 세 가지 종류를 모두 가졌으며, 그것들을 자아를 섬기는데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여 어떤 측면에서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면서 남들을 경멸해 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되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마가복음 10:24).”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곧 자신의 지식이나 선행이 부족하여 주님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과 반대된다. 둘째 비유속의 부자는 당연히 바리사이파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우리, 즉 자신의 이모저모에 대해 주님께 빚진 것이 없고 그분께 용서(탕감) 받을 일이 없어서 그분의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라자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이 도울 자”이다. 거지 라자로란 자신을 영적인 거지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형편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부자가 입은 화사하고 값진 옷이란 그가 소유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묘사한다. 라자로의 종기투성이인 몸은 무엇이 올바른지 잘 몰라서 또는 그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빠져 버린 악들을 의미하고, 이 종기를 앓은 개들이란 선하게 살아보겠다는 단순한 충동만으로 자신의 외적인 삶을 고쳐보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비 9231-3항, 9467-5항, 천국과 지옥 365항, 진정한 기독 종교 215항, 성경에 관한 교리 40항」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자는 그의 물질적 부유함이 아닌 그의 즐거움의 근원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이른 것이다. 라자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즉 선한 인격을 이루고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지식까지도 갈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란 영적인 거리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187항에서 선한 기운만 맴도는 곳에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잠깐도 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러한 구렁텅이를 장치해 두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구렁텅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삶에서 스스로 만들게 되는 어떤 것이다. 이기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삶을 산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타적인 선함을 발견하거나 추구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거나 어떤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친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충고해주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했다라면, 우리는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달라”하는 구절에서 라자로에게 물을 찍어 가져다주는 일이 불가능했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저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야. 육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야.”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물론 천국에 가야지.”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삶의 본질 그 이상의 것을 저 세상에서 얻거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한 것을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선을 저 세상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렁텅이가 의미하는 바다. 이 세상에서 악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자들은 천국의 것을 즐기는 그릇을 만들지 못하여 이들이 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지옥에서만 발견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에서의 부자와 같이 주님께서 저 세상의 삶을 기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적에 의해서라도 저 세상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7290항에서 기적이 주님의 시대 때 행해진 이유와 오늘날 기적이 질서 있지 못하게 된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까닭은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과 엇갈리는

주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고 심지어 그 법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이기적인 소망 사항이 우리들 심정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그 소망에 반대되는 것을 세상 삶의 장애물로 여기고 거절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는가?
- 2) 청지기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 3) 그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4) 그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5) 그는 무엇이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 7) 그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9)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주셨는가?
- 13)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 14)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 15)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16)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가?
- 17) 그러자 부자는 무엇을 부탁했는가?
- 18)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 19)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20)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2) 글자 상에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정이 어떻게 슬기롭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23) 둘째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제자들 2)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3) 자기 직책을 잃음
- 4) 땅을 파는 일 5) 밭어먹는 일
- 6) 작접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7) 그를 칭찬했다
- 8)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남은여생 동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 9) 그렇게 할 수 없다 10) 부유함,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 11) 주님을 비웃었다 12) 부자와 라자로 13) 아브라함의 품(천국) 14) 지옥
- 15) 라자로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보내달라
- 16) 나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못 간다
- 17)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 해 달라 18)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
- 19)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낸다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 2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게 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야 한다
- 22) 스스로가 원래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며 자비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 23) 부자 - 영적인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자  
거지 -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며 의에 굶주려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종려 주일 (3)

### 머리말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과 자료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 하여, 모든 밤이 이 사건에 시간을 할애해준다. 주님을 왕으로 받기 위한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통치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면 즉시 거행되는 작업이 성전을 깨끗이 함임에 주목한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9장

19장: 1.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3.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들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5.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6.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열린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8.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9.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 주셨다. 12.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보아라’하고 일렸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16.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하고 말하자 17. 주인은 ‘잘 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하며 칭찬하였다. 18.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다섯을 벌었습니다’하고 말하자 19. 주인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20.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몫쓸 종아, 나는 바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야? 23.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며 호통을 친 다음 24.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하고 일렀다. 25.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열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자 26.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하고 말하였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29.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31.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32.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3.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가요?”하고 물었다. 34.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35.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겂옷을 엮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36.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겂옷을 벗어 길에 퍼 놓았다. 37.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39.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이제 네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 와 44.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상인들을 쫓아 내시며 45.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다. 48.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교리 요약

- \* 왕으로서의 주님이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이다. 자연적 이성을 완전히 다스린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 \* 말씀속의 아주 짧은 이야기에도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다.
- \*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길 원해야 한다. 겸손은 선행의 기초이다.

### 상응 연구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나귀 = 자연적 이성(추론)

## 해설

본문은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도중 근처에 있는 예리고에 들리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리고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교훈과 그로 인해 있게 되는 생활의 선을 표현하는데, 이는 생활의 선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교리의 선으로도 교훈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제 700-15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겪게 되는 사건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식을 삶의 행동 선상에 실제로 놓으려고 애쓰는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주님께서 갈릴리와 요르단 건너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이는 삶의 외적인 측면에서 있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예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인데, 이는 그분의 가장 깊은 시험과 그분의 가장 큰 승리를 위해 가고 계심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예리고에서 세관장인 자캐오를 발견하신다. 자캐오는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졌으나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다. 그의 마음에는 그분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기어오른 돌무화과나무란 무화과 중에서 가장 저급한 과실을 생산하는 나무인데, 이는 세상적인 인간에게 가능한 선과 진리의 외적인 종류를 말한다(계시록 설명 403, 805-10) 자캐오가 표현해 주는 것은 영성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는 눈에 보이기엔 선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생각해서 이기적 동기 없이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하면서 그분에 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된다. 자캐오는 주님을 보고 그분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자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즉시 인식하고 고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금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14-30)와 비슷하나 똑같지는 않다. 본문에서는 기회의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사람에게에는 한 개의 금화가 주어진다. 「계시록 설명」 제 675항에는 비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 ‘먼 길을 떠나는 귀족이 부른 열 종’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교회에 있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 장사를 해보라고 나누어 준 ‘금화 열 개’란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과 그 지식을 지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이 지식이나 능력으로 총명과 지혜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많이 획득한 이들이 금화 한 개를 열 개로 불린 사람이고, 얼마정도 획득한 이들이 금화 다섯 개까지 불린 이들도.

장사를 잘한 이들에게 주어진 ‘고을’이란 총명과 지혜로부터 나온 삶과 행복이다. 말씀속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적인 총명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악하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하느님의 섭리」 제 210항에 있는 이에 대한 이유와 더불어 설명되는 예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살고 있다는 나에 대한 외관을 빼놓으면 인간은 인간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뜻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스스로의 의지로부터인 듯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스스로의 사려 분별로부터 필요한 것을 찾아 얻어서 삶에 속하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거나 지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지 않으면 인간은 축 처진 손, 벌려진 입, 감겨진 눈, 들이마신 숨, 숨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있는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언행이 마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감각이나 지각에서 오는 인간적 지각을 벗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도록 해주는 유일한 두 능력인 자유와 합리성을 벗어버리는 격이 되고 만다.”

주님의 지상 생활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세부 사항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주간 동안 이러한 이야기(20-23장)들을 사려 깊게 묵상하며 자기 검증의 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주간은 주님의 당당한 예루살렘 입성의 날인 종려주일에서 시작된다. 이제 지상에서의 주님의 일은 거의 끝나셨다. 남아 있는 일이란 마지막 시험을 맞으시고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일, 즉 신성화하심의 성취뿐이었다. 많은 평범한 사람과 극소수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서 믿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왕이나 관관이 타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사람들의 한 중간에서 계셨다. 주님께서 그분 앞에 놓인 어두운 며칠과 환호하는 군중이 그분을 버릴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가 구약성서를 성취하시는 것임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즈가리야 9장 9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방법이 미리 예언되었던 것이다. 말씀의 글자는 그분의 공생애가 밝히 알려려 하는 진리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내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과 행동 각각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있었던 것들이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신성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상징한다. 주님의 진리가 권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나귀란 자연적인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됨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란 이러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781항에서 나귀와 그 망아지란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인간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주님만이 자연적인 인간을 완전히 굴복시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였던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은 자연적인 수준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그분 앞에 종속시키셨음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그들의 겐옷을 나귀위에 얹어 깔고, 그분을 환영한 군중들은 그들의 겐옷을 벗어 길에 퍼놓았다. 우리의 겐옷이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각종 생각이나 사상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주님 아래 종속되며 그분의 방법에 순응되어야만 한다. 군중이 들고 나온 종려나무가지(요한복음 12:13)란 신성한 진리가 주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상징한다 (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367참조). 그래서 영광되심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은 육체적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있다는 것”,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질서로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 그분의 탄생 시에 천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약속의 성취이라는 것, 등등을 제자들이 인정함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은 글자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의 가장 깊은 슬픔은 인간이 자신들에게 있게 되는 평화에 속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세상을 단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열망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까지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자 성전에서 사고팔던 장사꾼들을 몰아 내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진리가 우리속의 성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을 상징한다.

## 질문 정리

- 1) 본과는 무슨 날에 관한 것인가? 왜 그렇게 불러 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는가?
- 3) 본문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 어디를 통과하고 계셨는가?

- 4) 본문에서의 주님의 길 방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어떤 사람의 길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 자캐오의 직업은 무엇인가?
- 6)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7)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8)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 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 12)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3) 주님께서 말씀해준 비유는 무엇인가?
- 14) 이 비유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 1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16)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17)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8) 새끼 나귀는 누가 타 본 적이 있는가?
- 19)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 20) 군중들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 21)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22) 바리사이파인들이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3)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4)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 25)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 26)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요한복음 12:13)    2) 예루살렘    3) 예리고

- 4) 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5) 세관원 6) 키가 작아서 7)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올랐다  
 8) “어서 내려오너라...” 9)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10)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11) 불평했다 12) 비유 13) 금화 14) 열 중에게, 금화 한 개씩을...  
 15)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선용하라  
 16)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17)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18) 그렇지 않다  
 19) 나귀위에 겂옷을 깔았다 20) 나무가지들을 던졌다  
 21)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22) 돌들이 소리치리라  
 23)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24) 예루살렘의 파멸  
 25) 성전을 깨끗케 하심 26) 기도하는 집

## 36

### 부활절(3)

#### 머리말

성주간의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12

24장: 1.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3.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말해 주었다. 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 \* “돌이 굴러졌음”이란 말씀의 글자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위해서 주님께 의해 영감 된 글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 \* 진정한 믿음은 열심히 이해하려는데 있게 된다.
- \* 영화하신 그리스도를 뵈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지는 것이다.

### 상응 연구

무덤을 막은 돌 =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  
 아침 = 새로운 상태의 시작  
 여인들 = 애착들  
 향료 = 선으로부터의 내적 진리

### 해설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의 이모저모와 그것들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고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을 공부하는 데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성주간은 당당하게 시작되어 영광스럽게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극도로 약해질 수 있었던 것과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면서까지 인간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주님의 마지막이며 가장 깊은 시험에 관하여 묘사되고 있다.

주님께서 성주간의 첫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와 성직자들의 위선이나 세상욕을 거침없이 모두 폭로하셨다. 밤이 되면, 그분은 베다니아로 나가셔서 친구인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그분은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오셔서 열 두 사도와 더불어 과일절 음식을 드셨다. 그분은 이 만찬에서 모든 제물과 전통적인 축제를 대신 할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그분의 현존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의 기초를 기독교회에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만찬이 그분께서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명백히 일러두시며, 그들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만찬을 준수하라고 당부하셨다. 즉,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빵이 그분의 몸을,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서 우리는 과일절 어린 양이 순진을 상징하여 주님 사랑에 근거한 선을 뜻하고,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양의 피는 삶에 응용된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고 배웠다. 주님께서 사랑과 지혜이시므로, 그분의 몸은 그분의 사랑이며 그분의 피는 그분의 지혜 혹은 진리가 되는 것이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역시 이와 같은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에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그분에게서 받고자하는 간절함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고대 유대교회의 예배가 가지는 상응을 통해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내적 삶이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에서 주님께서도 더 이상 내적 경로를 통해 인간과 결합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삶 속의 영적 힘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분과의 진정한 결합으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인간은 이때로부터 과거 교회들의 예식을 그대로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고, 각자의 삶속에 깃든 애착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지침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규적인 예배 의식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음을 재인식하며, 선하고 슬기로운 것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새교회는 정규적인 예배 의식과 특별 의식으로서 주님께서 성별해 두신 세례식과 성찬식 모두를 집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들에 참가하면서 이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관하여 더욱 배우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신실한 마음가짐을 겸비한다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결합하도록 하는데 한층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현존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들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행동적인 상징이 되는 이러한 예식들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너희는 내 왕국의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리라.”하는 영적인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가 이 축제에 참여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진정한 기독 종교 702-710, 계시록 설명 329참조)

스웨덴북은 게쉴마니 동산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상에서의 시험을 연결시켜 주님의 마지막 큰 시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이유는 지옥이 신성 자체를 시험할 수 없어서 시험을 겪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겪게 된 모든 시험을 극복해 내셨다. 또한 주님께서 입으신 인성으로서의 그분은 우리가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듯이 지옥의 세력을 만나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 속에 존재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텅 빈 상태”라 불리는 때, 즉 그분이 입으신 인성의 평면을 의식하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이런 인성 위를 내려 누르는 지옥이 만든 공격에 대하여 인간의 측면에서도 투쟁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게쉴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십자가의 시험)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그분역시 우리가 시험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약함과 악의 강함을 느끼셔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도 기도 하셨다. 십자가상에서의 시험과 게쉴마니에서의 시험은 육체적 고통이나 그분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버리는데 따른 슬픔 혹은 사람들 앞에 잘못 보여 지게 된 것을 줄여보겠다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과시해 보이려는 것에 따른 시험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신성을 보도록 하여 구원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천국의 신비 2821, 10528참조)

위와 같은 시험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수난을 피하는 것은 그분께서 육을 입으신 목적 자체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게 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여금 강제로 그분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시험이 그분의 힘을 얻으면 극복이 가능함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까닭은 죽음조차도 진정한 인간을 파괴할 권능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적들이 행한 것들이 최악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그분은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세 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으셨다. 즉, 대성직자와 헤로데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였다. 당시 유대인들의 평의회는 대성직자와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실질적으로 단죄했다. 그 외의 두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형에 동의했을 뿐이다. 성직자란 언제나 의지의 측면을 표현한다. 거꾸로 된 교회속의 성직자란 의지 속에 든 악을 상징한다. 인간의 의지 속에 든 악이 주님을 실제로 단죄하고 거절한 장본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성직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숨김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를 그분을 단죄하는 구실로 삼았다. 비록 악이 주님의 주장이 신성한 권위임을 인식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성한 권위이므로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헤로데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이기적인 삶을 통치하는 거짓 원리를 상징한다. 그는 예수를 만나길 원했고 기적을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님께 했지만, 그분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주지 않으셨다. 설령 악인 속에 든 합리성이 호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려고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영적인 계발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바깥 삶을 통치하는 세상욕을 상징한다. 이 세상욕은 주님의 주장이 신성한 것과 죄목에 해당될만한 것이 그분께 전혀 없음을 인정했으나, 그것은 악한 의지의 판단에 거기에 손뼉을 치는 일당인 것이다. 그래도 그는 주님을 심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씻었다.

십자가의 수난은 입으신 인성을 통해 주님을 공격해 오는 악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분은 이 시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유한한 인성의 모든 것을 벗어나셔서 입으신 인성과 그분의 본질인 신성이 하나를 이루도록 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만나시고 극복하신 모든 과정과 그분의 삶을 통해 진행되어 온 영화의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의 지진은 당시에 존재한 교회 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계시록 설명 400). 주님께서 숨을 거둘 당시의 암흑이란 당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간 속에 있는 거짓들을 표현한다. 군인들이 주님의 겹옷을 나눠 가짐이란 성경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말씀의 글자를 사사로이 나눠 갖음을 표현한다.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뽑아 차지함이란 말씀의 내적 의미는 상하게 할 수 없음을 표현한다. 주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두 강도란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인정함으로 구원되는 이들과 그분을 거절하는 이들을 상징한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짐이란 “모든 가상들을 홀으려 버리심으로 신성 자체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갔음을 표현한다. 이와 더불어 그분께서 신성 자체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기도 하다(천국의 신비 2576-5).”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 천국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셔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개자이신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여전히 그분께서 보여주시지 못한 시험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시험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필요성 속에서 신성한 권능에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신성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기초가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복음서는 주님 스스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명백하게 일러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제자들을 의심과 낙망 속에 처하도록 했음을 간증한다.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이 헛소리라고 간주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복음서의 증거는 사도들이 부활을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물질주의적 비평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된다. 사도들은 부활 후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수의 집단이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지식이나 지능 면에서도 대단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세계로 뛰쳐나가 갖은 박해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건설된 기독교는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은 복음이 갖는 권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부활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었을까? 주님의 부활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모든 약속이나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들의 스승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이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사랑해 주는 친구며 자상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인간들이 그들에게 가하는 어떤 것도 그들의 영원한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강건함을 얻어 전진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주는 힘 속에서 기독교회가 건설되며 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 부활을 빼두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단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되어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런 권능이 없는 단순한 시민적이고 도덕적 생활에 관한 교훈들로 급락될 것이며, 미래는 물론 현재에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부활주일 아침에 기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음을 통과하셔서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두셨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18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보여주셨으나,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또 다른 사항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던 자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라고 말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그분을 조롱했던 자들과 같이 그분의 죽음을 인정했고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주님께서 어떠한 외적인 도움 없이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유한한 존재 속에도 없는 것, 즉 그분만이 생명이심을 모두에게 입증해 주셨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주님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의 차이점을 명시해 주고 있다(천국의 신비 35, 108, 1729, 2083, 5078등 참조). 하나님만이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하느님의 사랑과 지혜 4-6).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신 주님의 본질을 확신 받은 토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라고 고백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는 확신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약속에 신성한 권위를 즉시 부여해 준다.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비록 그분이 선하고 위대하셨다할지라도 그분의 가르침에는 신성한 권위가 없는 것이다.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든지 간에 의를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면류관이 될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물질주의에서의 탈출이라고 빈정대거나 삶의 불공평함과 고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또한 분명하다. 즉,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살아날 것이다.”란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면류관으로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부활은 이보다 더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부활은 주님께서 이 천년 전 지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시고 수십 년간 사셨다는 것과 신성한 인성으로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면서 과거 사도들이 알고 따랐던 그분과 똑같이 강하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한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다시는 그분을 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과 항상 현존하심을 믿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면 곳에 떨어져 존재하시는 분 혹은 어떤 비인격적인 분으로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인간으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는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즉시 도울 채비를 갖추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묵상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자.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8:19-20).”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마지막장 끝 절).”

##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 2)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3) 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서 자캐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7)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 8) 군중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 10) 주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께서는 성주간동안 어디서 묵으셨는가?
- 12)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 13) 그분이 새로 제정한 기구는 무엇인가?
- 14)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15)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 16) 어느 요일에 십자가형이 거행되었는가?
- 17)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모셔졌는가?
- 18) 누가 일요일 아침 무덤에 왔는가?
- 19)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20)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21)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2)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는가?
- 23)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24)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25)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질문의 답

- 1) 자캐오 2) 누가복음 19장 참조 3) 그가 미움 받는 세관원이어서 4) 금화의 비유 5)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라 6) 나귀 7) 왕이나 관관이 나귀를 탔기 때문 8) 왕으로서 9)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았기 때문 10)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 베다니아 12) 과일절 음식을 드심 13) 성만찬 14) 가리옷 유다 15) 십자가형 16) 금요일 17) 새 돌무덤에 18) 여인들 19) 향료 20)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졌다 21) 그분은 일어나셨다 22) 그분이 삼일만에 일어나신다고 한 말씀 23) 믿지 않았다 24)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25) 주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 머리말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본과를 공부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3-53

24장: 1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14.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리고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 “무슨 일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오.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성직자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현에게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가보았더니 23.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일러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26.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29.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30.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 졌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에 열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40.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하시고 45.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46.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된다고 하였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야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51.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52.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 53.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 교리 요약

- \*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가 모든 인류를 위해 말씀을 열어 보이도록 한다.
- \*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 \* 말씀을 믿고 공부해야만이 천국적인 교리를 받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상응 연구

빵을 떼심 = 선을 수단으로 결합함

구운 생선 = 사랑에 의해 유용하게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

벌집 = 자연적인 기쁨들

구운 생선과 벌집 = 말씀의 글자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즐거움

### 해설

본문은 새교회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각자를 위한 의미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사실 부활 후 주님의 몸에 관한 특성에 관하여 기독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은 견해차가 있어왔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수의만 남겨진 채 주님의 육체는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분과 대화하면서 걸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빵을 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는데, 그러자마자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런 후 그분은 갑자기 사도들 가운데서 계셨다. 따라서 부활 후 나타나신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것인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사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몸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하고 반문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드시기도 했다. 스웨덴북

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화하심을 통해 그분의 가장 바깥의 것들까지도 신성으로 만드셨으므로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곧 신성화된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몸은 무한한 것이며, 물질적 몸은 유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머리로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믿는 바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분이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심정은 뜨거워졌고, 그 후 그분이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셨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진리를 간직하고자 하는 바램을 의미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진리를 삶에 응용하고자 하는 바램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함은 믿음 속의 선과 진리가 가르쳐짐과 이를 수단으로 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의미한다고 스웨덴봉은 말한다.

새교회는 본문의 이야기나 그 밖의 모든 말씀에 내적 의미가 있음이 주님 스스로 증거 하신 사건들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 또한 그분에 관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는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에서도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셨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서 직접 성경의 의미들을 풀어 주시는 것을 들었음을 그들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특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특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즐기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 놓으셨으므로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타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주님의 부활 후의 출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부활과 승천 사이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은 이전보다 더 내면에 속한 것으로, 선교를 위해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밖에 있는 한 장소로 인도하신 후 거기서 그들과 헤어져 하늘로 올라 가셨다. 그분의 제자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현존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르렀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진정으로 그들의 믿음이 가시적인 그분의 현존에 의존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더불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첨가하고 있다(요한복음 20:30-31)

스웨덴봄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 이해성 속에서 승천하셔야만 한다. 즉, 그분의 지상 생활은 오래 전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분의 유아기, 어린 시절, 기적들 또는 십자가에서의 고통 등에 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도록 해 주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의 내적 의미는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만 할 주님에 대한 우리 이해의 단계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주님에 대한 우리 이해는 그분의 삶의 자연적인 부분 위로 올라가야만 하고, 신성화 하신 인성이 이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 상응적인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성화하신 주님의 인성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친구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이시다. 이사야가 말한 바대로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인 것이다(이사야 9:6). 성경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생각, 즉 기독교인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 받으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분을 동정하는 태도로 신앙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한 마지막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하고 그들에게 당부되었다. 예루살렘이란 교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교리를 통해 우리의 이해성에 올 때까지 교리를 공부하며 실습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언제나 신성한 지혜와 함께 수행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상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사상들로 뭔가를 해보려하거나 말씀 또는 스웨덴봄의 저서로부터의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어떤 문단을 발췌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힘 속에서” 전진될 수도 있지만 이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새 시대에서는 스웨덴북의 저서의 도움을 받아 열리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말씀의 일부를 바꿔 보려하거나 어떤 성경 단원의 가치를 저하시켜 자신이 의도하려는 바에 들어맞도록 하려고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시도가 자신의 충명을 드러내어 즐기려 하는데서 비롯되어 결국에 진리를 왜곡시키려는데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있었던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의 제자 된 도리의 면류관은 주님의 진리를 타인에게 가져다주는 능력과 타인에게 주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배운 그분에 관한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능력에서 있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자아를 한쪽에 내려놓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은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첫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의 부활을 처음 배운 이는 누구였는가?
- 3)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
- 5) 누가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걸었는가?
- 6)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7)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9) 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주님께서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11)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이때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3)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확증시켜 주셨는가?
- 14) 그분은 무엇을 잡수셨는가?
- 15) 그 다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16)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8) 승천은 어디서 거행되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 20) “빵을 떼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던 말씀속의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22) 주님의 부활후의 몸은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 2) 여인들 3) 헛소리로 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 5) 예수님 6)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7) 본문 25절 8) 성경에 있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
- 9)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10) 심정이 뜨거워졌다 11)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 12)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함 13)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 14) 생선과 꿀 15) 성경의 내적 의미
- 16)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17)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하늘로 올라가심
- 19) 베다니아 20) 사랑을 나눔 21) 천국의 교리 22) 신성화 되신 신성한 실체 (glorified, divine substantial)

## 38

# 네 기수들

###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계시록 1-5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네 생물과 봉인된 책 그리고 어린 양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6장

6장: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뢰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5.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 가운데서 들려 오는 듯했습니다.

7.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

17.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 교리 요점

- \* 말씀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 \* 예언적 말씀의 결과들은 사람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 교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 상응 연구

흰 말 =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

붉은말 = 선해지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

검은 말 = 진리가 없는 말씀의 이해

푸르스름한 말 = 선과 진리의 양 측면을 파괴하는 성경의 이해

## 해설

“계시록의 네 기수들”은 수세기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의 상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 중 하나다. 네 기수들은 단계적인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써 언제나 인식되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예증하려는 시도가 아주 많았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네 기수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재림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내적 상태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을 인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봉인이 때어짐에 따라 있어지는 심판이 말씀의 내적 의미가 열림으로 가능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계시록 밝힘」에서 본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장차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 이들에 대한 탐사가 취급된다. 즉, 각자가 지녀온 말씀의 진정한 이해가 발견되고, 그에 따른 그들의 삶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제 1-2절은 선에 의거하여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며, 제 3-4절은 선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제 5-6절은 진리를 경멸한 자들이며, 제 7-8절은 선과 진리 양 측면이 황폐해져 있는 자들이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언급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천국에 살게 될 이들이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받아 그들 악에 대항하는 싸움에 그 진리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19장 11-1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진리는 이해했으나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바람은 없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흥미가 없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선하게 보였으면 하고 바라는 이들로써, 바리사이파인들처럼 율법의 글자를 열심히 추켜들고 왈가왈부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여 자아사랑과 거짓으로 삶이 팍 차버린 자들이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타입은 한결같이 파괴적이어서 그 파괴하는 모습은 각 말 위에 탄 기수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흰 말 위에 탄 기수는 손에 활을 들고 있었다. 활이란 교리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말씀은 교리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교리는 말씀의 글자에서 이뤄져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굳이 영적 의미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귀결 짓기도 한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하여 기독교 이전의 이스라엘 교회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글자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의 글자 중에서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스웨덴복의 저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91항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말씀은 교리 없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은 교리란 순수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등불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말씀은 전적으로 상응에 의해 쓰여 졌으며, 그 결과 말씀 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은 진리의 외관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님이 나에게 보여 졌다. 그리고 성서의 많은 것들이 자연을 압득하고, 사람의 감각적인 것에 속한 것들까지 채워져 쓰여 졌음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진리를 옷 입히고 있는 진리의 외관을 보고 그것이 마치 진리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여 붙잡기도 한다.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타인보다 명석하여 진리를 본다고 착각하여 자신이 본 진리, 즉 껍데기에 불과한 진리를 그들의 삶에 확증(응용)하게 되면,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명하다는 것은 사실 진리의 여부를 확증하기 전에 확실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들이 진리를 확증하는 이유는 스스로 천부적인 재주가 있다고 착각함으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서의 단순한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화되어 진리를 삶에 사용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에 의해 계발되고, 진리의 빛으로 진리를 보게 된다. 이리하여 타인들도 그들에 의해 계발되지만, 거짓은 거짓의 빛으로만 보인다.”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는 없다. 우리는 말씀과 스웨덴복의 저서를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바램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예상했던 바대로의 견해를 찾지 못하는 때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흰 말 위의 기수는 월계관을 받아쓰고 있다. 월계관은 승리를 상징한다. 전투란 자신 속에서의 악과 거짓에 대한 것이다.

붉은말 위의 기수는 자신 속의 악을 고쳐보려고 하기는커녕 이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의 칼이란 이기적인 편의를 위해 진리를 사용하는 바, 진리를 왜곡 시켜버림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이 큰 칼을 타인을 향해 휘두른다. 그래서 평화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즈가리야 1장 8-15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어둠이 무지를 상징한다는 정도의 상응은 알고 있다. 검은 말 위의 기수는 저울을 들고 있었다. 저울이란 “진리와 선을 평가함”을 의미한다. 그가 밀과 보리를 단 그 가치는 매우 적었다. 여기서의 밀과 보리란 외적인 선과 진리들을 표현한다. 이 기수에게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내적인 선과 진리들로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기수들로부터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7610항에서 이것과 이집트에 내려진 열 재앙 중 우박의 재앙을 비교하고 있다. 우박의 재앙에서 보리와 아미는 파괴되었으나, 밀과 쌀보리는 파괴되지 않았다. 푸르스름한 말을 탄 기수는 큰잔치의 비유(누가복음 14장)에서의 세 번째 사람이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라고 한 변명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상응에서 흥미 있는 사항 중 하나는 말들의 출현에 일치하여 언급되고 있는 네 생물(거룩)들에 관한 것이다. 이 생물들은 제 4장에서 기술된 순서에 따르면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사람과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다.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 흰 말 위의 기수는 정복에 정복을 거듭해 가고 있었다. 송아지는 자연적 선택을 상징한다. 붉은말 위의 기수는 이 선택을 파괴할 수 있었다. 사람은 지적인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검은 말 위의 기수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독수리는 영적인 지식을 상징하는데, 푸르스름한 말 위의 기수는 이러한 지식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다.

본문 후반부에서의 다섯째와 여섯째 봉인을 폐심이란 첫 기독교 교회로부터 수 세기 동안 영계에 모여진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말씀의 열림 이후 위에 있어질 결과들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가 영구적인 기독교인의 천국은 주님의 재림이 거행될 때까지 형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스웨덴본은 말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독교계에서 온 모든 선한 자들은 주님의 보호 하에서 “보다 낮은 지역”인 영계에서 보존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선한 자가 바로 본문에서의 “제단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영혼”들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며 구원된 자들이라고 자부한 악한 자들은 “가상 천국”에 보존되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 하늘”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면전에서부터 숨으려 했다.

## 질문 정리

- 1)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2) 이 책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3) 요한이 본 첫 번째는 무엇인가?
- 4) 그분은 누구들을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5) 심판의 큰 상징물은 무엇인가?
- 6) 누가 옥좌 둘레에 앉아 있었는가?
- 7) 누가 옥좌 위에 앉아 계셨는가?
- 8) 어떤 생물이 이 환상에서 나타났는가?
- 9) 옥좌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 10) 이 책은 무엇인가?
- 11) 그 책에는 몇 개의 봉인이 있었는가?
- 12) 누가 그 봉인을 뿔 수 있었는가?
- 1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14)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을 보았는가?
- 15)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을 보았는가?
- 16)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17) 네 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봉인이 떼어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계시록 2) 사도요한 3) 부활하신 주님 4) 일곱 교회
- 5) 옥좌 6) 24 장로들 7) 주님(어린 양) 8) 거룩들 9) 두루마리, 책
- 10) 말씀 11) 일곱 12) 주님(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어린 양) 13) 흰말
- 14) 붉은, 검은, 푸르스름한 말 15)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 16) 지진 등등 17)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 18) 말씀의 내적 의미가 우리 이해성에 열림

## 일곱째 봉인

### 머리말

본문의 내용은 상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는지도 모른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문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8, 9장

8장: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타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횡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었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 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찼고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 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향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말들의 입에서 뱀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20.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 교리 요약

- \* 참된 영적 상태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 \*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신성한 진리이다.
- \*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

### 상용 연구

나팔 = 신성한 진리가 하늘로부터 밝혀져 명백해짐

### 해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말씀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본문과 유사한 사항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끝맺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큰 용은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인 “늪은 뱀”이다. 이 밖에도 창조의 육일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인간의 점진적 발달 단계이며, 이렛날은 그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여섯 봉인이 떼어지는 것과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것은 모두 일곱 번째와 더불어 완성된다. 이것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자신 속에 교회를 건설하기를 거절한 이들 위에 있어진 심판의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의 창조 과정에서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 넷째 나팔이 불어지자 해와 달과 별의 파괴가 있었다. 또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예리고성의 정복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예리고성

을 들고 이렛날에는 그곳을 일곱 번 돌고난 후에 케를 메고 앞장 선 성직자들이 나팔을 불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일곱 성직자와 일곱 나팔이 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미디안족들은 갑작스런 나팔소리와 빈 단지 속에 든 횃불이 번쩍임으로 인해 갈팡질팡했었다.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31절은 주님의 재림 시에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실 것”이라고 하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전한다. 이 구절은 계시록 7장 1-3절과도 비교 된다. 이 밖에도 예언서에서 나팔소리는 의의 승리를 말하고, 악의 최후를 선포하고 있다. 상응에 관한 지식 없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 상징적 표현들의 유사성만으로 본문의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보다라도, 본문 구절의 상징들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 시대의 빛 속에서 이 의미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나팔소리란 “신성한 진리가 천국으로부터 명백하게 밝혀주심”을 표현한다(계시록 설명 262).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 속에서 악과 거짓들은 파괴적이며 죽어있는 인격 속에 있는 것들이 밝히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믿기에 편리할 것 같은 것들을 즐겁게 따라가려는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으로서의 속성이다. 기독교계에서의 이러한 경향의 태동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재림이 거행되어야 했던 이유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이 기독교 내에서 크게 확산되어 기반을 다지고 있어서 기독교내의 선한 심정들이 더 이상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주님의 첫 강림시인 이스라엘 교회의 말기 때에도 있었다. 본문 역시 다른 부분의 말씀처럼 각 영혼이 영계에 들어올 때 그들의 삶에 관한 심판에 적용된다. 하지만 본문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불리는 것에도 적용된다. 마지막 심판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시에 영계에서 집행된 심판이다. 스웨덴북은 “말씀이 열릴 때까지 진정한 기독교인의 천국이 형성될 수 없었으므로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선한 자들은 중간 세계, 즉 “보다 낮은 지역”의 한쪽 지역에 보존되었고, 같은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악한 자들은 “가상 천국”에 집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열린 말씀에 기초한 마지막 심판은 이러한 영혼들 위에 집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상 천국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들의 본성을 본 악한 자들은 그들의 거처가 지옥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반면, 낮은 지역에 머물던 선한 이들은 들려져서 영원한 기독교인의 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상 천국이 사라지는 모습은 계시록 6장 14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선한 이들이 보호되는 모습은 계시록 6장 9-11절과 7장 1-3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본문 8장과 9장에 관하여 「계시록 밝힘」에서 서술된 것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8장: “개혁교회가 여기서 취급된다. 1-6절은 믿음 만에 존재했던 이들에 관한 것과 그들과 교통되는 영적 천국의 준비에 관한 것이다. 7절은 그런 믿음의 내용물이 탐사되고 명백히 보여진다. 8절과 9절은 그 믿음의 형체에 관한 것이다. 10절과 11절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12절과 13절은 그들이 거짓 안 곧 악 속에 있다는 것이다.”

제 9장: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들 곧 선행에서 믿음을 분리해서 확증하여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하며 구원되었다고 하는 학식 있고 슬기롭다는 이들의 삶의 상태가 탐사되고 그들의 진상이 밝혀진다.” (1-12절) “앞서 언급된 자들과는 달리 학식이 있거나 슬기롭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기쁘게 받아 삶에 적용한 믿음 만에 거한 자들이 탐사되고 밝혀진다.” (13-19절)

“마지막으로 위의 부류에 소속된 자들, 즉 믿음이 모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들에 관해서이다.” (20,21절)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심판은 개혁교회의 기초 교리인 “믿음만(faith alone)”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확증해 버린 사람들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뒤의 환상 중 일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명백히 구분해 두어야 할 사항은 스웨덴볼이 기독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과 그 교회들이 만들어 발달시킨 교리적 기초 위에서 다양해진 기독교 분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교리적 기초를 경시한 채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흔하며, 때로는 그런 교리를 누가 믿느냐는 식으로 소홀히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의 태도가 마치 대중화된 기초 논리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경향성에서 자라나는 태도들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서의 인간적인 분위기 혹은 소속감 때문에 그 교파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기초에 관하여 재고해 보기를 게을리 하고, 그 기초가 중시하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편리한 듯 여겨져 그 교리와 합세 할 경우의 신앙은 명목상인 입술로만의 예배에 그치고 삶에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게 된다. 물론 각종 교회들에 소속된 이들이 교회의 교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삶을 살면서 그 교리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군가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진리를 세세하게 따져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거나 그에 따른 삶을 일일이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주님께서 친절하시며 사랑자체인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각이나 행실이 조금 빛나가더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신앙의 중심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만으로서의 신앙에 폭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견지를 명심하면서 본문을 사려 깊게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과멸은 진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은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대신 자기 고집대로 인도되어야겠다고 선택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 있어지는 진정한 모든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과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은 어떤 책인가?
- 2)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4)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5)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승마자는 무엇으로 불렸는가?
- 6)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7)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8)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11) 그 천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2) 여덟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천사는 향로에 무엇을 담았는가?
- 14) 그 다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향로를 채웠는가?
- 15)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6) 본문에서 몇 개의 나팔이 불어졌는가?
- 17)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18)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9) 끝없는 지옥 구덩이의 악마에게 어떤 두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0)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회개했는가?
- 21)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22)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가도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말씀 2) 주님 3) 흰말 4) 붉은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5) 죽음 6) 제단 아래에 있는 선한 자들 7) 악한 자들 8) 바위가 자기들을 숨겨주도록 9) 침묵 10) 일곱 11) 나팔 12) 금향로 13) 향 14) 제단 불 15)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16) 여섯 17) 우박, 불덩어리, 큰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18) 썩 19) 아바돈, 아폴리온(파괴자) 20) 회개하지 않았다 21) 첫 기독교 시대 안에 있던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괴 22)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

## 40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 머리말

말씀의 전체적 윤곽을 되새겨 보면서 본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정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21장: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청옥으로, 열 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에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 교리 요약

- \* “거룩한 성”은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규율하기 위해 선택한 천국적인 원리로 건설된다.
- \* 새 예루살렘은 삶의 이상향을 그려주는데, 이를 향하여 각 개인들이 날마다 분투하는 것이다.

## 상응 연구

성 = 교리  
거리 = 삶의 길  
성벽 = 말씀에 대한 글자적인 측면  
길이 = 선함의 척도  
넓이 = 진리의 척도  
높이 = 각 수준에 있는 선과 진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 하늘과 땅에 있는 새교회

## 해설

말씀은 진정한 인간 존재의 창조로 시작되어 인간 존재가 갖춰야 할 이상향으로 끝맺고 있다. 이상향이란 각자에게 허용된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남아 있게 되면 달성 가능한 우리 영혼의 이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우리 영혼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글자 그대로만 보아도 아름다운 이 환상은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구절로 여겨진다. 그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기억한다면, 차후 우리를 계발해 주시는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시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성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된다면, 그때의 우리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새교회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에 주어진 말씀의 내적 의미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된 우리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해 주시는 신성한 섭리 하에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공부는 거룩한 성의 세부 사항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항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들, 즉 개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밝힘」의 제 21장 목차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본 장은 마지막 심판 이후의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다룬다. 심판 후 새 천국을

통해 새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주님만을 예배할 것이다(1-8절) 그 교회가 주님과 결합할 것이다(9절과 19절) 말씀으로부터 온 총명에 대한 세부사항과(11절) 그로부터의 교리에 관한 것과(12-21절) 그것의 품질에 관하여(22-26절)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서 밝혀주신 교리 속에서 스스로의 영적 의문을 해결하며, 진정한 천국적 삶의 도면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기초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 Church of the New Jerusalem”이라고 명명했다. 그 이유는 새교회의 목적이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의 교리들을 타인에게 알려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도성이란 말씀의 어느 곳에서든지 교리를 상징한다. “언덕위에 세운 도성은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본 교회의 선구자들은 이 도성을 언덕위에 세워 교회가 자라도록 했다. 요즘의 우리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 같이 왜 급성장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후 타교회의 방법들을 연구하느라 동분서주하며 그것들을 베끼려 하고, 우리 교회의 교리는 좁은 소견 같으며 타협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교리를 바꾸면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리를 뜯어고치려는 마음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 교회는 새교회가 아니다. 진정한 새교회는 사방 각처에 내려오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만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곳이 새교회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이유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새교회 교인들인 우리가 새교회의 교리를 배워 그대로 살아내는 정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리를 선포해 갈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요한의 환상 속에 있었던 거룩한 성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의 길 역시 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천국과 지상에 있는 새교회가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품질이 사랑의 선임을 의미한다. 즉, 거룩한 도성은 자연적 선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선을, 그 도성의 길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사랑하는 길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벽은 벽옥으로 되었는데, 이는 투명한(transparent)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 즉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성벽이란 도성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도성의 한계를 그어주기도 한다.

거룩한 도성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었고 사방의 각 방위에는 세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문이란 소개하는 진리(입문을 위한 진리)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며, 각각의 다른 유전적 속성과 배경 그리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전도 사업을 위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도성에 접근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문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문이란 각자에게 허락된 특별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 또는 특사가 각기 특별한 품질을 가지고 각 문마다 서 있다. 이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각 문에 하나씩 적혀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한 진리에 대한 흥미는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바라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록 도성의 문들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이다” 라고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다. 앞서 우리는 심판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선택한 것으로 기록되어진 우리 삶의 책과 말씀인 생명의 책과의 비교 대조임을 배웠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벽의 주춧돌이란 크고 기본이 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새롭고 항구적이 될 천국들은 기독교인들의 천국들이기 때문에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이 주춧돌들에 적혀있는 것이다. 벽옥으로 된 성벽이란, 이 교회인과 더불어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진리는 영적 의미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반투명(translucent)한다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우리가 그의 저서를 수단으로 말씀속의 영적 의미를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지게 되는 성벽은 벽옥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는 벽을 장식하는 보석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그 의미는 새 예루살렘 교리 속에 거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부터 취해진 모든 교리는 각자 그 교리를 받는 태도에 따라 다른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천사는 금으로 된 측량자를 가지고 성을 측정했다. 이 측량자란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자를 상징한다. 측량 결과 그 도성은 네모반듯하였다. 즉,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모두 같았다는 것이다. 말씀에서 길이란 선 또는 사랑의 척도를, 넓이란 진리의 척도를 그리고 높이란 선과 진리가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인 우리의 바깥 행동으로부터 생각을 거쳐 가장 깊은 것인 의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평면에서 활동되는 것의 측량을 의미한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삶의 모든 평면을 이루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측량의 자는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였다. 즉, 새교회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자아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정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새교회를 건설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큰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는 정도에 따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다.” (시편 127:1)

### 질문 정리

- 1)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그 도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 3) 그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 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5)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이 있는가?
- 6) 그 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7)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는가?
- 9)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 10) 그 주춧돌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 11) 그 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12) 성안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13) 그 도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 14)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5)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6)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7)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측량했는가?
- 18) 그 도성의 가로 세로는 어떠했는가?

- 19)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20) 우리 교회가 본문을 특별히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21) 성과 성의 길이 순금으로 되었다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22) 누군가가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 23)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 질문의 답

- 1) 거룩한 성 2) 하느님, 하늘로부터 3) 새 예루살렘 4) 금 5) 12
- 6) 이스라엘 지파 7) 벽옥 8) 12 9) 사도 10) 보석 11) 금
- 12) 주님이 성전이다 13) 하느님의 영광 14) 악한 사람
-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 16) 선한 삶을 영위했음
- 17) 금자 18) 네모반듯했다 19) 선한 인격은 네모반듯하기 때문
- 20)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주기 때문
- 21)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도록 하시기 위함
- 22) 새 예루살렘 교회 23) 계시록 21-22장을 숙독하자.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